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 ! !

CPh.a.1



보안사에서 각종 사찰관련 자료를 갖고 탈영한 윤석양 이병이 4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7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통일염원 46년 10월 4일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

애국 한양대학교 제18대 혁신 중학생회

1) 들어가는 말

-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 보안사와 군의 정치적 중립
- 보안사=인권탄압기구

2)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

3) 보안사 해부

- 무소불위의 권부, 국군보안사
- 고발! 대한민국 국군보안사
- 진상!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끊이지 않는 정치테러

4) 정권안전기획부-안기부

-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로
- 국가안전기획부 정보비 명세서
- 보안사, 안기부 프락치공작
- 나는 안기부의 프락치였다
- 안기부의 지하언론<내외통신>
- 우리들의 안방 전화까지도 (도청)

5) 학원사찰의 전모

- 학원 정보공작대, CP의 전모
- 학군단 프락치활동 지침서
- 신문보도자료

6) 군의 정치적 중립화를 위하여

- 청년장교 5명, 군 명예선언 (89. 1. 5)
- 박길남 이병 양심선언 (89. 1. 7)
- 전경해체투쟁위원회 성명서 (89. 1. 21)

*책안본부도 6만5천여명 개인 신상카드 만들어 감시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 ! !

기만! 분노!

지금 4천만 국민은 군정보기관 보안사가 택시안에서의 대화, 안방전화 내용까지 국민의 일수 일투족을 철저히하고도 광범위하게 민간 감시체제로 사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마치 누에고치가 실을 뽑아내듯이 끊임없이 보안사의 놀랄 만한 민간 사찰 내용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 이것은 1990년 10월4일 한 신참 사병, 윤석양의 용감한 양심선언 때문이었다.

웨이터와 술집지배인이 보안사 군무원인가 하면 전국의 서점에서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한 보안사의 악의적인 비방을 담은 잡지들이 배포, 판매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군인들에 의하여 감시, 관리당 하며 때로는 끌려가 동료와 선후배들을 팔아먹는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아왔던 이 사태앞에 온 국민은 몸서리 치지 않을 수 없다.

87년 대통령 선거때 노태우 후보가 약속한 "밝은미래"의 공약에서도, 88년 가을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군보안사령관이 역설한 "새시대에 부응해서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운운하던 그 화려한 말잔치에서도 보안사기능 축소, 군의 정치적 중립은 강조되고 또 강조되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같은 국민에 대한 망발과 국민을 적으로 한 불법 사찰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오늘 현재까지도 뉘우치고 물러설 줄 모르는 미국과 노태우 군부는 10월8일 사찰책임 문책인사에서도 단지 <사찰자료의 관리 소홀>만을 문제삼아 국방장관을 경질시켜 이 국면을 무마하는데 급급한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신임 이종구 국방부장관 (노태우의 직계 후배로 TK계의 군부 대부) 과 구창희 보안사령관 (12. 12사태 당시 9사단장인 노태우의 사단 참모장 역임) 을 등용시켜 노태우 정권이 군부의 안정적 구도를 사전에 구축해놓은 것이다.

웃지 못할 일은 취임식 직후 이종구 장관은 오전에는 윤석양이병의 행동을 "아버지를 고발하는 꼴"이라고 윤이병을 배신자나 배신자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대북경각심 운운하더니 오후에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보안사 대민사찰은 앞으로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하는 등,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조변석개하는 작태를 보였다.

올해들어 노태우 민자당 정권은 3당합당 직후 4당 시절에 합의했던 제반 악법개폐, 개혁입법 (안기부법, 경찰중립화법안 등),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의 실시를 유보, 후퇴시켰으며 물가와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었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민들의 불만은 크게 높아졌다. 또 증권값 폭락을 방지해 증산증을 올렸으며 치안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시민들은 매일매일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민자당정권은 국회의 파행적 운영 속에서 군조직법, 방송법, 광주보상법 등을 통과시켜 내각제 준비를 치밀하게 진행하여 왔으며 군수사기관을 동원한 민간인들에 대한 정보사찰, 안기부 등 정보기관들에 의한 애국민주세력 탄압은 민주인사에 대한 구속, 수배조치로 가시화되고 이 땅 민중들의 초보적인 민주적 권리와 생존권 요구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과 봉쇄로 일관해 왔다.

이것은 오로지 장기집권, 내각제 개헌을 위해 국민적 저항을 사전에 탄압시키기 위한 노태우 정권의 반민주적인 음모를 반영하는 것이다. 사면초가가 된 미국-노태우정권은 10월 정국을 모면하기 위해 남북통일 촉구, 남북대화나 북방정책의 작은 성과로 이 사태를 오도하려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와 한 하늘아래 살 수 없다!!!

보안사가 민간인에 대한 불법수사, 프락치공작, 고문을 통한 간첩사건 조작 등도 모자라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에게 물고문과 구타등을 자행하여 특별휴가 또는 외박의 형식으로 학교에 보내 학내정보를 수집해 오도록 강요하며 현재까지 녹화사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국군보안사가 60만 사병통제에 열을 올리며 건전한 사고를 가진 젊은이들을 감시, 유린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력 탄압은 민주인사에게 대한 구속, 수배조치가 시화되고 이 땅 민중들

4천만 국민은 이제 미국과 노태우 민자당 독재가 '안보'를 위해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일반 국민과 비판세력을 감시, 탄압하는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를 더 이상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공연한 군 정보기관의 일상적 폭력과 인권탄압책동을 준엄하게 심판할 보안사 해체투쟁과 군민주화 및 군의 정치적 중립화 쟁취는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이다.

끝으로 국민을 적으로 간주, 안방까지 군화발을 신고 들어온 민자당정권은 한줌의 재벌을 위한 정권으로 이제 민자당의 장기집권 내각제 개헌 구도는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지지 파탄시켜야 하며 4천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일당독재 민자당이 아니라 민주연합정부이며 이를 위해 모든 애국세력이 단결하여 민자당 일당독재를 종식시켜야 하겠다.

* 윤석양이병 양심선언 정당하다, 수배조치 즉각 해제하라 !

* 불법사찰, 프락치공작, 보안사, 안기부 해체하라 !

* 보안사, 안기부 해체하고 군경의 정치적 중립 쟁취하자 !

* 장기집권도구, 보안사, 안기부 해체하고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

* 노태우정권 조종하는 미국놈들 몰아내자 !

통일염원46년 10월13일

보안사와 군의 정치적 종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되고(헌법 제5조 제2항), 한편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그런데 일부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획득한 이래 우리나라의 군대는 국토방위보다는 정권유지를 위하여 동원되고 있다. 또한 획일적인 군사문화를 사회에 유포시켜 민주화를 위한 모든 노력들을 좌경·용공으로 매도하였다. 심지어 총부리를 국민의 가슴을 향해 겨누고, 광주항쟁에서 보여지듯이 국민을 학살하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특히 군대 내의 일정한 범주를 수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군보안사령부는 계엄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에 대하여 불법수사를 할 뿐만 아니라 프락치공작, 고문을 통한 사건조작 등을 감행하여 왔다. 송과 분실, '빙고호텔'로 불리지는 서빙고동 분실, 서소문 분실, 경복궁옆 분실 등이 불법수사와 고문 등으로 악명 높다.

그 신분이 군인 또는 경찰이거나, 학생이거나 단순한 폭력배이거나를 묻지 않고, 공권력의 지시와 비호 또는 묵인과 방조하에 벌어지는 프락치공작과 '백색테러'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프락치공작은 대부분 경찰, 보안사 등의 요원이나 이들 기관에 매수된 사람들이 비판세력의 활동을 감시하고 그 내부정보를 캐내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프락치공작은 안기부 등에 의한 전화도청과 서신검열, 그리고 공안기관의 반대세력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는 달리, 공권력이 국민들을 상대로 하여 '간첩'을 침투시킴으로써 국민대중 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인간관계의 파탄을 기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방법 자체에 대해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특히 크다고 하겠다.

프락치공작은 주로 학생운동권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노동자를 가 장하여 광산지역에 침투한 프락치와 종교기관인 성공회에 침투한 프락치가 밝혀지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양심수'를 가정한 프락치가 교도소 내에 들어가 양심수들의 생활과 사상을 감시하는 것이 폭로되기도 하였다.

87년

강원도 정선군 사복읍 소재 경일광업소에 근무하던 진두환씨는 1987년 3월 21일 사복천주교회에서 보안대의 사주에 의하여 노동운동을 하는 동료 광부들의 동태를 감시, 밀고하는 등 프락치활동을 한 것을 고백하고 양심선언을 하였다.

국군 제100보안부대 소속 김윤수 중사(주민등록번호: 630610-1663531) 등 7명은 성남지역 해고 노동자 2명을 감시·미행하다가, 1987년 7월 8일 자신들의 미행이 탄로되자 집단적으로 달려들어 각목으로 머리를 찍고 벽돌로 온몸을 찍어 각각 전치 11일과 14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며, 충북 민주화운동협의회 회원 장현동씨는 1987년 8월 18일 05:30경 자택에서 잠을 자다가 괴청년 6명에게 눈을 가린 채 강제로 공군 제3579부대(보안대 또는 헌병대)에 끌려가 자백강요를 당하면서 집단구타당하였다고 한다.

88년

최근에 정부가 "학원가를 비롯한 정치, 경제, 노동, 출판 등 각 분야에 널리 침투해 있는 좌경세력에 대해서는 국가수호라는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수술이 가해지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은 가히 입체적인 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청주 도시산업선교회 정진동 목사에 대한 테러(7월 26일)의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부장에 대한 정보사요원들의 테러(8월 6일)에 이어 '우리마당'에 대한 습격 및 폭행(8월 17일), 내무부의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 책자 10여만 부 배포(8월 6일경) 및 「좌경, 그 실체와 대응」이란 슬라이드 및 소책자 배포(8월 13일경), 김용갑 총부차장관의 '초현비적 싸움이 조치' 발언(8월 13일), 야당 총재들의 인내심촉에 의한 좌경세력의 위협성에 대한 인식 공유(8월 22일, 8월 26일, 8월 29일), 정치강패 유지광의 '한일우익연맹' 결성 움직임(9월 6일), TV 토론에 출연하여 양심에 따라 진보적 발언을 한 홍근수 복사에 대한 테러위협 및 고발(9월 17일), 인내내에서의 이한열군 영정 훼손(9월 28일), 박창신 신부 테러규탄집회가 예정된 전주성당의 방화(10월 12일) 등은 하나같이 민족민주세력을 겨냥한 것으로서 서로 무관한 우발적인 사건들이라기보다는 민주세력에 대한 일련의 파장적인 공세로 보는 것이 일반국민들의 생각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 군부대의 녹화사업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학원 내 프락치문제가 1989년에 들어와 또다시 문제가 되었다.

8월 28일 국민대생 김정환 군이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자신이 8월 9일 정체모를 20~30대 남자 6~7명에 의해 차량으로 납치돼 학원 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받고, 알려 준 전화번호로 김진우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4번에 걸쳐 학내동향을 보고했다고 양심선언을 하였다.

김군은 또 이 과정에서 괴한들이 수갑을 채우고 눈을 가린 채 알 수 없는 산으로 끌고 가 소나무에 묶은 뒤 수배중인 국민대 전 교지편집장 김정덕, 김황영의 거처를 대라고 협박하고 구덩이에 김씨를 넣고 삽으로 흙을 때 부르며 생매장 위협을 하였다고 밝혔다.

김정환 씨 사진 외에도 '9월 8일 인세대학교 사회학과 4학년 김정애(여, 23세) 양이 교내집회에서 폭로한 바에 의하면, 김양은 8월 30일 안기부로 인행돼 이틀동안 갖가지 협박과 인격적 모욕을 당하였고, 다음 날 김양을 풀어주며 계속 미행을 하겠다며 프락치 노릇을 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사범대학 4년 박모양, 연세대 문과대 3학년 이모양, 연세대 졸업생 오모양의 경우도 안기부에 끌려가 이와 비슷한 경로로 프락치 노릇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안기부, 보안사 등 수사기관의 프락치 강요사례는 이밖에도 각 대학에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자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여 혹은 수치심 때문에 이를 숨기고 있어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프락치의 사용과 학생들의 이에 대한 피해의식이 급기야 설인종 군 폭행치사 사건이라는 불행한 사건으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보안사 = 인권탄압기구

(가)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현대적인 병기와 조직원리로 무장되고 세계체제적 반공이해 속에서¹⁾ 정치주체로 등장한 군사관료기구는 대외적 방위기능보다는 대내적 사회질서유지 및 반체제적 경향의 억압기능을 강화하게 되었고 결국은 인권탄압기구로 변화되고 말았다. 나아가 군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노골적인 개입의 어려움은 국가안전기획부 및 경찰의 공안기구, 그리고 준군사집단인 전 부경찰 등의 사용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특히 군대는 정치적 위국국면에서 위수령 또는 계엄령을 근거로 집단적으로 동원되어 극한적인 폭력을 사용함으로써 지배체제를 최종적으로 지켜주는 물리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직접 개입을 통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갈등이 생겨날 때마다 군의 개입을 하나의 위협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저항을 봉쇄하는 역할을 해 왔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는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국방의무의 이행이 탄압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대학당국의 '특수학적 변동조치(지도휴학)'와 연결되어 임영영장이나 신재검사조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강제징집은 군대의 특수한 조직체계와 상명하복의 규율관계, 철지한 감시등을 이용하여 학생운동을 하는 대학생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군복무기간 중 국군보안사령부 및 각 단위부대의 보안대에서 항상적으로 회유, 구금, 구타 등을 가함으로써 학생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강요하였는데, 이러한 소위 '녹화사업'의 과정에서 적어도 447명이 강제징집되었고, 8명이 살해되거나 억압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였다.

(나) 보안사, 안기부, 경찰의 공안기구 등이 일상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불법인행, 구금, 고문 등을 자행해 온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들 기관은 보안사의 경복궁, 송파, 서빙고 분실 및 각 지역보안대, 안기부의 각 분실, 치안본부 대공분실과 특수수사대, 시경과 도경의 분실과 같이 전국 각지에 소재한 밀실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인권을 유린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유형적인 인권침해 외에도 이들 기관 중 보안사와 안기부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해 '업무협조' 등의 명목으로 간섭하여 군사정권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은 물론 정치인·언론인·경제인 등에 이르기까지 감시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비판세력의 활동을 봉쇄하는 데 이용하였다.

보안사가 국방예산을 쓰는 것과는 별도로 안기부 등 공안기관은 본 예산의 15배가 넘는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헌법 제55조 제2항),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지출이 가능하며, 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그 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법규징을 이용하여²⁾ 자유롭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국회와 국민의 감시를 받지 않고 사용되는 막대한 국가예산은 결국 이들 기관이 독재정권의 '안보'를 위하여 일반 국민과 비판세력을 감시·탄압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생각된

나. 그런 반면에 이들 기관은 군사기밀보호법과 국방보도규정, 국가안전기획부법 및 관계규정 등을 근거로 모든 활동을 비밀로 하고 언론의 취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군과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데 동원되는 것과는 별도로 군대와 경찰, 특히 전투경찰 내부에서의 인권유린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군대 내의 구타와 기합이 항상 문제되어 온 것은 물론이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1980년 이후 군대 내에서의 사망자가 2,670명이며, 그 중 자살이 2,254명, 타살이 290명으로 나타나 같은 연령층 사망율의 25배에 이르고 있고, 200 전경 내부에서도 구타와 기합에 의한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인권탄압 기구화한 군과 전경의 폭력성이 국민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1989년 9월 20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올들어 군복무중 사망자는 총 283명이고 이중 25명은 상급자 또는 고참병들에게 구타당한 끝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통계에도 나타나듯이 통제사회의 군 내부의 인권침해 현실 역시 심각한 상황이고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군 내부의 민주화와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윤석양 이병 양심선언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폭로!!

— 학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노동계, 학원가 등

1303명에 이르러

보안사의 혁노맹사건 조작 진상

국군보안사령부와 치안본부는 8월 22일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사건을 발표했다. 수사당국은 혁노맹이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원 10명을 군부대에 침투시켜 무장봉기를 준비했다며 이 조직을 6공 들어 최초의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혁노맹의 이념과 노선 그리고 혁노맹 군사위원회의 진상을 밝혀본다.

최진섭(본지 기자)

현역군인 10명 포함된 혁노맹사건

치안본부와 국군보안사령부는 지난 8월 22일 현역군인 10명이 포함된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혁노맹) 사건을 발표했다. 군·경 수사당국은 이 사건으로 혁노맹 중앙위원 겸 사상지도체인 박대호씨(26, 서울대 국사3 제적) 등 혁노맹 조직원 16명과 산하 학생조직인 민족민주학생투쟁연맹(민학투련) 중앙위원 김준강씨 등 민학투련 조직원 32명, 총 48명을 구속·송치하거나 수사중이다. 그런데 수사당국은 이들을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제3조 위반(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로 조사중이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침략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가리키는데, 6공 들어 반국가단체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올해만 해도 여러 운동단체들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었다. 그런데 민중민주주의혁명투쟁을 선동했다는 노동계급(2·12),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지하단체라는 기독교화노동운동연합(2·15), 주체사상을 학습했다는 서

울북부지역노동자연맹(3·10), 「노동자의 깃발」을 통해 민중혁명을 고취했다는 민족통일 민주주의노동자동맹(4·27) 등의 운동조직은 이적단체구성,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을 뿐이다. 그에 반해 혁노맹이 반국가단체로 조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혁노맹이 "종래의 이적조직과는 달리 무장봉기를 통한 체제전복을 위하여 혁명군대가 수행하여야 할 준비사업과 군사행동 등 세부적 실행계획까지도 마련"했으며, "타 지하혁명조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별기관인 군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를 두어 혁명군대 양성을 획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노맹사건은 10명의 현역군인들이 직접 연루된 것으로 발표돼 국민들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6·25 이후 최대의 군대내 혁명조직사건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구속자 가족 일동은 9월 5일 '혁노맹 군사위원회는 조작'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혁노맹 사건은 "8월 18일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주범이었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전 치안본부 5차장을 비롯한 대공경찰간부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한 전국민적 반감을 무마시키고자 불

법연행과 조작수사 끝에 서둘러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 국군보안사령부에서 조사받은 병사들은 연행 후 2주일이 지나도록(9월 5일 현재) 가족들과 면회조차 못했다고 하며 밀실 고문수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제현의회그룹 구중앙파 혁노맹

혁노맹의 뿌리는 86년 8월 결성된 제현의회(일명 CA)그룹이다. CA그룹은 87년 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다수파, 소수파, 구중앙파로 나뉘어지는데 구중앙파는 87년 3월 불꽃(일명 이스크라, 기관지 「혁명의 불꽃」)이라는 단체를 결성한다. 불꽃은 89년 4월 경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노동자동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그해 8월 19일 경기도 소재 '작은자리'에서 개최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기관지「불꽃」)으로 개칭하고 전국 14개 대학에 민학투련을 결성했다. 서울지역에서는 성균관대, 한성대, 국민대, 단국대, 외국어대 등 5개 대에 민학투련이 조직되었다.

혁노맹의 기관지로 89년 9월 7일 발간된 「불꽃」 창간호에는 이 조직의 이념과 노선이 집약되어 있다. 「불꽃」 편집국은 창간호의 '선언'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전위당을 건설



8월 30일 기독교교회에서 열린 '목요예배'에서 한 학생이 혁노맹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있다.

하기 위한 투쟁을 실제해결의 과제로 두고 이를 즉각 개시해야 하며,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은 직접적 혁명가의 전위조직으로 출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관지 「불꽃」은 단순한 정치신문이 아니라 "당건설의 무기로서의 전국적 정치신문의 위상을 띠고 발간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창건대회 선언문을 통해 현시기를 양대계급진영의 대격돌이 시시각각 임박하여오는 "혁명적 정세의 최후의 시기"라고 주장하고 '임시혁명정부'와 '무장봉기의 실제기술적 준비'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불꽃」이나 혁노맹 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분명 혁노맹은 대중조직은 아니며 즉각적인 전위당 건설을 목표로 하는 혁명조직이었다.

그리고 수사당국은 혁노맹이 무장봉기를 위한 혁명군대 창설을 추진했다는 물증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이론적 지침은 기관지 「불꽃」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불꽃」에서 주장한 혁명군대

혁노맹이 실제로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사행동을 실행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혁노맹이 「불꽃」에서 "독자적 군사행동과 대중에 대한 군사적 지도를 기본 임무로 하는 혁명군대 건설을 위한 사업에 즉각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다. 이들은 "현재의 정세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술적 결의"라는 제하의 주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천적 군사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 군사과학의 연구, 군사문제의 습득(군사상의 약술에 대한 책자분석·토론, 광주봉기의 과정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분석, 남한 파쇼군대에서 발간한 약술문서 등등).
- 중화기·개인화기를 포함한 자체무장을 모든 수단을 통해 갖출 것.
- 봉기가 시작될 때 즉시 장악해야 할

여러 기관 (신문사·방송국·행정기관·감옥·법원·은행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연고자와의 연락망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대한 탐지·정찰사업을 할 것.

• 파쇼국가의 군대·경찰 등에 대한 실질적인 물리적 타격을 통하여 파쇼국가를 붕괴시켜 나갈 것.

「불꽃」은 이밖에도 군사행동을 위한 여러가지 실천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89년 11월에는 혁노맹 명의로 "파쇼소당의 군대·경찰을 실질적 힘으로 파괴할 수 있도록 현재 조직되어 있는 정당방위대, 선봉대, 결사대 등을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갖춘 혁명군대로 재조직해가자"고 선동한 유인물도 살포하였다.

이처럼 혁노맹은 기본적으로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89년 당시를 봉기가 임박한 정세로 보고 혁명군의 의식적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혁명군사위의 실체

혁명군 관련자들은 자신들이 무장봉기를 주장한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된 혁명군 관련자들은 가족들을 통해 "「불꽃」에서 무장봉기의 준비를 역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위원회를 설치한 적은 없으며 논의 이상의 실제적인 준비는 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혁명군 조직원들을 무장봉기 준비를 위해 군내에 침투시켰다는 수사당국의 발표는 근거없는 억지라고 일축하고 있다. 실제로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구속·수사 중인 10명의 혁명군인들은 군사위원장으로 지목된 임찬수씨를 포함해서 한결같이 민학투련 조직을 탈퇴하고 군에 입대한 경우라 한다.

민학투련 조직국장 혐의로 구속된 이한준씨(1공수여단 61항공단)는 군인가족이 거주하는 김포 독수리아파트에서 동료 3인과 교대로 보초를 서는 방위병이었다. 이씨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일기장에 "운동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다"는 글을 적었다며 이는 자신이 "혁명군 군사위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민학투련 중앙위원 혐의로 구속된 조재은씨 역시 89년 8월 경 조직활동을 중단하고 그해 12월 군입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사단에서 소총수로 철책근무를 한 조씨는 입대 후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여러 차례 보안사에 호출되고 서신검열을 당하는 등 주요주의인물로 감찰대상이었다. 조재은씨가 연행당한 직후 소속부대 중대장은 조씨의 부친과의 전화 통화에서 "실제로 한 일이 없으니 가 별일 없을 것"이라며 그의 무고함을 간접적으로 입증했다고 한다.

경기도 벽제 2127부대 법당에서 청소를 하며 단기병(방위병)으로 근무

하던 신승호씨(외국어대 정외과) 역시 이미 89년 5월경 학생운동을 정리한 상태였다고 한다. 그리고 육군 35사단에서 단기병으로 복무하다 구속된 정현호씨는 89년 초 운동을 그만두고 전남 남원 고향집에 내려갔다. 그해 12월에 입대했다. 민학투련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동료학생들에 의하면 정현호씨가 "조직과의 선이 끊긴 상태에서 누구의 지도를 받아 무장봉기를 위해 군내에 침투했겠느냐"며 수사발표에 반문하고 있다.

이처럼 혁명군 사건으로 구속된 10명의 혁명군인들은 조직에서 이탈했거나, 심지어 제명된 조직원이었음에도 보안사는 이들을 '군내에 침투한 좌익분자'로 각색, 이들 구속된 혁명군인들이 과거에 혁명군, 민학투련에서 활동했다는 전력을 빌미삼아 "조직탈퇴한다는 분리선언서를 쓴 적도 없지 않느냐"며 조직원임을 강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수사당국은 혁명군 군사위 활동의 결정적인 단서의 하나로 대전 32사단의 동구대대 군수과에 근무하다 구속된 김선환씨(충남대 농공학과)가 1과운드 가량의 TNT 등을 반출한 것을 들고 있다. 그런데 충남 NCC 박만규(31) 국장에 따르면 김선환씨는 "소총 탄환은 수공예품 목걸이를 만들려 한 것이고 TNT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빼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같이 근무하던 병사들도 이같은 일은 "군사적 목적이 아니며 흔히 있는 공공연한 비밀일 뿐"이라 증언했다고 한다. 김씨의 어머니 김민진씨(54) 역시 김선환씨가 "민학투련에 잠시 가담한 적은 있지만 군입대 전의 일이며, 만약 요인암살, 무장봉기를 하려고 TNT를 빼냈으면 책상서랍에 숨기겠냐"며 "단순한 군수품 사고에 관련됐을 뿐"이라 항변

하고 있다.

행적 감춘 혁명군 관련 병사와 보안대

국군보안사령부에 구속된 현역군인 말고도 치안본부에 구속된 혁명군, 민학투련 관련자들 역시 상당수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기에는 활동사항이 너무 미약한 경우가 많다. 민학투련의 핵심조직원으로 검거된 김종훈(충남대 농생물학과3 제적, 민학투련 중앙위원), 최홍묵(충남대 무역과), 김윤희(충남대 불문과), 이명희(충남대 미술학과) 등은 연행된 바로 다음날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되었다. 대전지역의 혁명군 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 NCC 박만규 국장은 조사결과 "혁명군 사건으로 보안사, 치안본부에 연행된 충남대 출신 10명의 군인, 학생들 모두가 혁명군 창립 이전에 조직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했다.

민학투련 한국 외국어대 총책으로 구속된 전명숙씨(영어교육4)도 이미 지난해 10월 경 활동을 정리한 상태라고 한다. 전씨는 올해 5월에는 석관중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하였으며, 여름방학 동안에는 계절학기를 수강하고 남는 시간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고 한다. 그리고 민학투련은 현재 학생운동권에서 활동이 부각되지 않고 거의 실세가 없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혁명군 사건으로 7명이 구속된 외국어대의 경우만 해도 올해 초를 지나면서 민학투련 조직은 거의 와해된 상태라고 한다.

한편 민학투련의 핵심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군에 입대한 윤모씨는 행적이 묘연해져 군사위원회의 조작음모에 이용당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윤씨는 국군보안사령부의 혁명군 구속자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

다. 윤씨는 올해 5월 입대해서 강원도 철원의 22연대에 배치되었다. 그런데 6월 말 경부터 소식이 끊기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던 윤씨는 혁명군 사건 수사발표 하루 전인 8월 21일 보안대요원 2명과 함께 인천 누나 집

리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고도의 정보체계를 동원한 추적수사를 하는 데 놀랐다"고 전했다 한다. 그리고 남씨가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면회를 기다리는 동안 출입자를 눈여겨보았더니 "승용차를



혁명군의 기관지 「불꽃」

을 예고 없이 찾아왔다고 한다. 혁명군 관련자료를 찾으러 왔다는 그는 "내일 조직사건이 터지는데 나는 빠질 것이다"라는 말을 은밀히 남겼다고 한다. 이날 이후 가족들은 윤씨를 만나려 했지만 군부대 책임자는 "철책선 안에 투입됐다" "위에서 데려갔다"고 발뻠발 뻘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씨의 누나 윤호순씨는 "동생이 만에 하나 협박 등으로 사건조작에 이용당했다면 엄청난 좌절감에 빠졌을테고, 무슨 일을 저지를까 걱정이 돼요. 모든 걸 정리하고 군에 간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가족들이 만나볼 수도 없으니 누가 안심하고 군에 가겠습니까?"라며 군의 비민주성을 비난했다.

국가보안법 존립의 희생양

혁명군 중앙위원 노성철씨는 면회 과정에서 부인 남영주씨에게 "수사기관이 두세달 동안이나 미행하여 길거

리 패션모델 같은 처녀, 평범한 주부로 보이는 중년부인, 운동권 학생 차림의 청년 등 도저히 수사관 낚새가 보이지 않는 차림새의 출입객이 정기적으로 드나들었다"고 밝히고 "아마도 이들이 미행조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89년 5월에는 외국어대 민학투련(당시 임시혁명정부) 조직 내부에 프락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학교 독일어과에 재학중이던 김모씨가 용산경찰서의 꼬나불로 조직 내부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해오다 학생들에게 발각돼 자술서까지 썼던 것이다.

이같은 정보수집 능력으로 혁명군, 민학투련 조직을 조목조목 들여다보고 있을 수사기관에서 조직을 이탈한 현역군인, 학생들의 동정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군·경 수사당국이 구속한 혁명군 관계자 대부분이 이미 활동을 중단한 줄 뻔히 알면서 이 사

건을 확대조작하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혁명군 사건을 담당해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김남주(32) 간사는 "최근 반공이데올로기가 위력을 상실해가면서 국가보안법의 존재 자체에 회의적인 여론이 급등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즉 국가보안법의 존립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혁명군에 군사위원회라는 '빨간 혹'을 덧붙여 제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씨는 혁명군이 표적이 된 것에 대해 "원래 혁명군이 강경노선을 표방하고 좌익적 색채가 짙어 조작이 용이한 탓"이라 말하고 "혁명군 사건은 정권의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의 서곡일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비추기도 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혁명군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확대조작과 함께 혁명군이 표방하는 노선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 인권변호사는 "지금까지 운동단체 중에 사회주의를 표방해온 조직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폭력성'을 내세우지는 않았다"며 "국민들의 정서로부터 유리된 투쟁노선이 자칫 정권에게 탄압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무튼 군·경 수사당국의 혁명군 군사위 조작 여부와 함께 혁명군의 무장봉기를 통한 사회주의 건설노선은 법정에서 한바탕의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치안본부에서 구속수사 중인 혁명군의 중앙위원인 박대호, 노성철씨 등이 "혁명군이 내세운 사회주의의 정당성과 이의 실현을 위한 무장봉기의 불가피성"에 대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선전'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대앞서 위장술집 경영

보안사 민간 정보수집에 활용

장교지배인·사병은 웨이터

보안사서 잡지사도 경영

계간지 '현실초점' 발행 재야·운동권 비난 일색
발행인·편집국장등 모두 군무원

“보안사, 민간연구단체도 수사”

‘과학세대’ 디스켓 도난...연관 추정
업무지침 치안본부 내세워 뒤에서 주도



윤석양이병에게 보내는 누나의 편지

○...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의 누나가 본지 ...○
 ○..... 에 그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 왔다. 윤 이병은 폭로 기자○
 ○..... 회견 이후에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 <편집자>○

막내석양에게
 보안사로부터
 네가 탈영했다
 는 소식을 듣고
 불안과 초조감
 에 휩싸여 있던

"우리는 언제나 네편이었단다"

윤석양 이병에게 보내는 누나의 편지

누나는, 5일 아침 신문보도를
 통해서야 만 석달만에 널 볼
 수 있었다.

피를 나눈 한 가족인 우리
 의 경악과 비통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구나.

게다가 이제 들여다보니
 대학시절을 지내는 동안 널
 이해하고 감싸려는 식구들의
 노력이 무척 부족했다는 회
 한마저 겹쳐, 외롭게 스스로
 를 채찍질해 왔을 널 생각하
 면서 안타까운 마음 실로 금
 할 수 없다.

누나는 그저께 민가협이
 여러 부모님들을 만났고, 네
 학교 친구들과도 대화를 나
 뉘었다.

집안의 막내여서 어리고
 여러계만 보아온 너를
 친구들이 강한

의지를 지닌 침착하고 생각
 깊은 아이라고 평하는 것을
 들으니 너에 대한 신뢰가 새
 로워짐을 느꼈다. 또 훌륭한
 동생을 두었다는 민가협 부
 모님들의 말씀이 따뜻한 격
 려로 가슴에 와닿았다.

석양아,
 문학에 깊이 몰두해보겠다
 며 노어과에 입학한 네가 학
 업을 마치지 못하고 체적당
 한 것도, 몇달씩 집에 들어오
 지 못하고 체포의 손길을 피
 해 차디찬 거리를 떠돌아야
 했던 것도 모두 우리 사회의
 아픈 탓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군에 입대한 너를 프락처
 로, 탈영범으로 만들어 버린
 이 현실을 눈앞에 두고 우리
 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패
 처된 고통을 느끼고 있다.

네가 하는 일
 에 대해 비록
 뒤늦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
 긴 했으나 우리
 는 항상 너를
 아끼며 소중히 여겨왔고, 언
 제나 네 편이었다는 것을 알
 아주렴.

지금 우리 가족들 모두는
 너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뚝뚝 뚫쳐서 너의 신변안전
 과 인권옹호를 위해 몸과 마
 음을 아끼지 않을 결심으로
 여러사람을 만나며 뛰고 있
 단다.

우리가 이번 일과 관련하
 여 너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리겠
 지만, 너 역시 가족들을 믿고
 총명하게 어려움을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진실
 로 간절하다.

세 누나와 형으로부터, 막
 내의 건강을 빌며,
 윤 호 순 <서울 은평구
 길현동 383-13>

<한겨레 90.10.10>

윤이병의 양심선언 정당하다,

윤이병을 가족의 품으로!!!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

한겨레 90.10.10

도리끼

이종구 국방부장은 8일 오
 전 취임사에서 보안사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북
 한의 적화통일 전략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대북경각심이 풀리거
 나 통일에 대한 막연한 환상에
 사로잡혀서는 안될 것"이라고
 누구에게인지 모를 경고를 했다.
 이 장관은 이어 "우리 모두가
 깊은 성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국군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반성은 민
 군 양쪽에서 다해야 한다는 해

이라는등 오전과는 맥락이 전혀
 다른 발언을 했다.

직선적이고 솔직한 성격으로
 평가받았던 이상훈 전 장관과는
 달리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
 인물로 알려진 신임 장관이 이
 날 보인 언행은 지켜보는 사람
 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에 충
 분했다. 보안사 사건을 도맡아
 사실을 파헤치고 제도적 혁신을
 추진해야 할 장본인이 잘못된
 사람들은 감싸면서 잘못을 폭로
 한 사람을 공격하고 나섰으니
 그럴 만도 하다.

게다가 청와대에서 바람이 어
 느 쪽으로 부는지를 알고는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말을 바꾸

오전·오후 다른 신임국방

석도 가능한 말을 했다.
 이 장관은 취임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안사 사건에
 언급하면서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과 같은 사태" "도
 망간 이등병 하나가 국가를 뒤
 흔들었다"는 등 윤 이병을 패륜
 이나 배신자인 것처럼 매도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태도는 오
 후 들어 표변했다. 그는 노 대
 통령과 김영삼 대표가 만나 보
 안사가 민간인 사찰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합의한 사실을 전해들
 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
 하며 사과한다"면서 "보안사는
 대민사찰 권한도 책임도 없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결코 없을 것"

는 데 대해서는 아연해 질 수
 밖에 없었다.
 보안사령관 출신의 대통령과
 보안사령관 출신의 국방장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앞으
 로는 정보전문 군인이 보안사령
 관을 맡아 사령관직을 마지막으
 로 명예롭게 퇴직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국방장관이 국민들은 아랑곳
 않고 대통령과 군부 양쪽에만
 신경을 쓰는 것도 문제지만, 육
 사 출신들이 장관직을 독차지해
 서 정치적 감각을 익힐 때까지
 수습기간을 가질 만큼 우리 군
 이 한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병호 기자>

보안사령부에서의 체험

보안사에 의해 엄청난 고문 끝에 간첩으로 조작
 되었고, 협박에 의해 보안사요원이 될 수 밖에
 없었던 金丙鍊이 목숨을 걸고 밝혀낸 충격폭로!!

전화:337-9767(代) 도서출판 소나무

보안사

미주알 (739) 김윤호



무소불위의 권부, 국군보안사

자료1

新東亞 1988.12



제5공화국은 「보안사 공화국」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보안사는 5공 창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1988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국군보안사 창설 1주년 기념식에서 박정희(왼쪽)가 박근혜(오른쪽)를 소개하고 있다.

國軍保安司, 全斗煥 권력의 支柱……

5공의 산실—국군보안사령부

大韓民國 國軍保安司司令部(이하 보안사)는 全斗煥·盧泰愚 두 대통령을 배출한 우리나라 최고의 권부 보안사는 5공화국의 권력을 창출한 산파역이었다. 79년 10·26사건 직후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막강했던 중앙정보부(현 안기부)의 책임자 金載圭 부장을 체포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즉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은 최고의 실력자로 떠올랐다. 그 뒤 12·12와 5·17 광주 사태를 거치면서 보안사는 새로운 공화국을 탄생시키는 산실이 되어 지난 7년 동안 한국 정치의 주역으로 활약, 전두환체제의 첨병으로서, 支柱로서 정권안보의 파수꾼 기능을 다했다.

당시 보안사와 함께 양대 최대 권력 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는 부장이 10·26에 연루됨으로써 그 기능이 마비상태에 빠졌고,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對民정보활동이 묶여 있던 보안사는 행동영역을 확대, 5공 출범을 위한 정치작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12·12 때는 보안사의 許三守 처장 등 핵심요원에 의해 당시 계엄사령관이던 鄭昇和 육군참모총장마저 체포됨으로써 계엄사령부의 기능도 현저하게 약화, 권력의 추가 자연스럽게 보안사에 기울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이 5공 출범의 무대장치였던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이하 국보위) 설치, 민주정의당 창당 그리고 언론통폐합 등 우리나라 현대사에 일대 폭풍을

몰고온 破天荒의 개혁조치들이 보안사에 의해 기획 입안, 집행됨으로써 명실공히 제5공화국은 「보안사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5공 창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80년대 초반 보안사는 국민들에게 공포와 전율의 대명사였으며 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기관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광주 사태와 신군부에 의한 삼청교육대, 사회정화를 위한 숙정 등 각종 살벌한 조치들이 숨가쁘게 집행되던 80년대 초반 계엄사령부의 모든 작업들의 배후에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라고 하는 「보안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집권기반을 다지기 위한 무자비한 혁명적 조치는 공포정치로 비쳤고 이를 집행한 보안사는 바로 개혁 주도세력들의 전위대였던 것이다.

全斗煥 대통령은 지난 8월 초순 연희동 사저에서 만난 한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崔圭夏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밝혔다.

「80년 8월 초 최규하 대통령이 당시 보안사령관인 나를 불러서 처음으로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다. 「수사령관이 아무래도 중책을 맡아야 할 것 같소」라고 말하더라. 나는 당시 그 말이 맡은 직책을 그만두게 할 때에 흔히 말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네, 성의껏 일했으나 제가 역량이 부족해 충분히 보좌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최 대통령은 「그런 뜻이 아

나라 경제는 어렵고, 사회는 혼란하고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형편이 아니오. 이런 어려운 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수사령관이 대통령의 자리를 맡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통령은 우선 군을 알아야 하는데 나는 군대를 모르오. 또 경제도 정치도 아무것도 잘 모르니 내가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모자라는 것이 한 둘이 아닙니다」고 말했다.

「수사령관, 대통령 말으시오」

나는 「각하께서는 외교의 전문가이시고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쌓지 않았습니까. 기껏 군대를 좀 알고 있는 형편에 지나지 않는 제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습니까?」「아니요. 지금 상황에서 군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뿐 아니라 수사령관에 대해서 곰곰히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최적적인 것으로 나는 결론을 내렸소. 나는 1주일쯤 설악산으로 가서 쉬고 오겠으니 그동안 구상을 가다듬어 주시오」 나는 당황했고 어떻게 할지 몰라 한 동안 망연한 상태였다. 청와대에서 나와 하루밤을 혼자서 고민한 후 그 다음날인가 周永福국방, 李煥性개업사령관과 협의를 했다. 내 얘기를 들은 두 분이 최대통령의 결심이 높은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것

이 내가 대통령이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최대통령이 온갖 루머속에 대통령직을 자진반납(?)하기까지 그에게 유·부형의 압력을 가한 것으로 세간에 인식돼온 보안사는 제 5공화국을 창출해낸 개혁주도세력들의 심장부였고 산실이었다. 따라서 전두환소장이 대장으로 예편, 80년 9월 1일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보안사의 핵심 측근 참모들도 모두 청와대로 옮겨 마치 보안사를 청와대에 옮겨놓은 듯한 진용을 갖추었다.

5공화국 하에서 역대 보안사령관은 개혁주도세력의 核중의 핵이었다. 수사령관에 이어 현대통령인 노태우 당시 수정사령관이 후임을 맡았다(80년 8월~81년 7월). 이어 12·12와 5·17 당시 20사단장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던 朴俊炳 당시 육본인사참모부장이 3년여 보안사령관을 맡았고(81년 7월~84년 10월) 현 대한식탄공사사장이인 安弼潑사령관(84년 10월~85년 8월), 현 참모총장인 李鍾九사령관(85년 8월~86년 7월), 현 군단장인 高明昇사령관(86년 7월~87년 12월), 그리고 崔樺旭사령관이 작년 12월에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두 5공의 핵심세력들인 이들의 민보가 보안사가 바로 5공화국의 지주임을 실감케 한다.

흔히 5공 창업의 개국공신으로 불리는 權正達대령(육사 15기, 보안사 징보처장), 고명승대령(육사 15기, 청와대 경호실 직전담당관), 張世東대령(육사 16기, 수정사 30단장), 金振永대령(육사

17기, 수정사 33단장), 許三守대령(육사 17기, 보안사 인사처장), 許和平대령(육사 17기, 보안사 비서실장), 李鶴樺중령(육사 18기, 보안사 대공처장) 등 7공자 가운데 핵심세력인 4명이 보안사 소속 영관장교들이었다.

10·26후 12·12로 본격화된 신군부의 집권기도와 80년 제 5공화국의 출범은 이들이 소속된 보안사라는 특수한 군 조직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85년 2·12총선을 전후한 전두환체제의 전반기는 어떤 측면에서 「보안사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할지 모른다.

박사<육사<보안사<女史

권정달전민정당사무총장 등 보안사 인맥에 의해 집권여당이 창당됐고 보안사 출신이었던 당시 李相宰사무차장(현 민정당 동지회장 및 공주지구당 위원장) 중심으로 민정당이 운영되어 항간에서는 민정당이 보안사의 분실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85년 2·12총선 전후 보안사 준위 출신인 이차장의 막강한 당내 위치는 육사출신들조차 견제할 수 없었는데 시중에서는 「박사 위에 육사, 육사 위에 보안사, 보안사 위에 여사」라는 시니키한 유행어가 회자될 정도였다.

한편 널리 알려진 두 히씨 외에도 당시 보안사의 많은 인물들이 직·간접으로 수사령관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鄭棹永보안처장. 그는 경북 문경 출

신으로 육사 14기. 10·26 당시 준장으로 보안사의 보안처장이었다. 10·26 당일 보안사의 당직사령이기도 했던 그는 기획조정처장이었던 崔禮燮준장과 함께 김제규와 金桂元 체포, 김제규 부하들의 일망타진에 큰 공을 세웠다. 27년 동안 군대 생활을 거의 전부 대공분야에서 보냈던 그는 5공화국이 열린 뒤에도 85년까지 보안사 참모장을 역임하다가 소장으로 예편, 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직에 앉았다가 86년에 사회정화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수사령관 특별보좌관이었던 李相淵씨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10·26 당시 계급은 대령. 81년 대령 예편, 민정당 중앙 정치연수원장, 정무 제 1 장관 보좌관 등으로 일해오다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했고 이어 85년에 대구시장으로 금의환향하기도. 87년에는 안기부 제 1 차장으로 현재까지 영향력이 전제하다.

韓鎔源씨는 당시 중령으로 육사 19기. 수사령관이 1사단장 시절 보안부 대장으로 있다가 보안사령관으로 오면서 데리고 온 정치학 전공의 엘리트로 고려대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취득하기도. 그는 방산처 방산과장으로 권정달 방산처장(후 정보처)과 한팀이 되어 민정당 창당작업과 정치규제자 선정 작업 등을 맡았던 실무 주역. 대령으로 예편, 현재는 교원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姜仁成사령관 시절 보안사에 차출되어 15년간 근무했으나 일찌감치 개혁주도세력과 결별, 출세의 기회를 버리고 학문의 길로 들어선 인물이다.

그는 보안사령관이 현 노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때 승진하여 권정달처장후임으로 언론통폐합 집행의 惡役을 맡아 언론통폐합 청문회 증인으로 나시게 됐다.

南雄鍾씨는 10·26당시 준장. 보안사의 참모장, 경북 영덕 출신. 62년 단국대학을 졸업한 그는 비육사출신 장교로 대공분야에 투신하였는데 개혁 주도세력에서 소외받았던 인물. 81년 준장으로 예편, 국가안보연구원, 방 송광고공사 감사 등을 지낸 뒤 올해 4월에 사장이 됐다. 노대통령과는 경북 고 동기 동창.

10·26과 12·12 당시 육본의 보안 부대장으로 육본 내의 보안사 거점이었던 卜奎秀准장은 5공 창출의 숨은 주역. 12·12 당시 육본에 있던 계엄 사령부에서 숨가쁘게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 쏘보안사령관이 최후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음지에서 대단히 활약을 했던 인물로 80년 4월 수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서리를 겸임하게 되자 정보부장 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사령관이 대통령이 된 이후 대한보증보험사장(81년~86년)으로 경제계에 진출했다가 현재는 집에서 쉬고 있다.

10·26당시 보안사 기획조정처장이었던 최예섭씨는 81년 보안사 참모장이 되었고 같은 해 준장으로 예편, 82년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처음에는 서울올림픽조직위의 제 2 사무차장으로 출발, 국내 담당 차장, 선수촌 본부

장, 행정담당사무차장 등을 거치면서 올림픽조직위의 선수촌, 자금, 시설, 인사 등 실무총책으로 일해왔다. 조직 위원장 등 간부들이 바뀌는 바람에 그는 올림픽조직위 임무전반에 가장 정통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거미줄처럼 뻗친 보안사 인맥

이들 외에도 보안사 출신 인맥은 정계 관계 등에 거미줄처럼 뻗어 있다. 79년과 80년의 격변기에 보안사에 몸담았던 그들은 제 5공화국 탄생에 직·간접으로 기여했다. 이들은 5공 창출 당시 수행한 역할의 차이 그리고 진두한 사령관 개인과의 인간관계, 신임도에 따라 論功行賞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7년동안 부침을 거듭했다. 결국 보안사 인맥이 12·12사태를 수사령관의 승리로 이끌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다.

보안사 정보처장을 지낸 한용원씨는 지난 8월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건국 40주년 기념 정치 발전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한국정치에 있어서 軍의 역할」이란 논문을 통해 군부의 정치개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2·12 당시 박대통령 사후 민주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3군씨의 과열한 대권경쟁으로 인한 다수의 정치적 혼란과 학원 및 노조의 소요사태로 인해 사회적 혼란요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군부내에 시혜사건과 관련하여 정승화장군과 그 추종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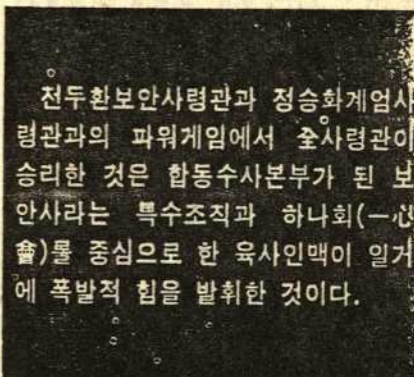
에 대한 진두환장군과 그 추종세력의 불신과 상호간의 암투가 존재하고 있었고 정치성이 강한 「하나회」 그룹이 군부내에 주도적 위치로 성장해 있었으며 진급 정체현상의 심화에 따라 불만 의식이 팽배했던 점 등 촉발요인이 오히려 컸다고 볼 수 있다.

수사령관은 10·26이 나던 날 밤 김재규부장이 체포되기 2시간 전 한용원 방산과장을 불러 「국가에 큰 변란이 일어났는데 이런 때에 어떻게 했는지 연구하라. 허화평대령을 만나보라」고 지시했다.

한중령이 허대령을 만나자 「권력이 진공상태에 빠졌다.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5·16 주체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검토하라」고 말해 구내 도시관에서 「5·16군사혁명사」를 찾아 계엄령 포고에 대비했다는 것. 그러나 육군본부에서는 곧 포고령을 발표해 준비했던 것이 소용없었다고 최근 기자회견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씨는 밝혔다.

10·26이후부터 12·12에 이르기까지 정승화계엄사령관의 세력과 암투를 계속했던 수사령관의 흥중에 막연하지만 권력에의 의지가 싹트고 있었던 것으로 당시 주변인물들은 기억하고 있다.

10·26으로부터 47일이 지난 12·12 이후 수사령관을 정점으로 한 보안사는 5·17 광주항쟁을 기치면서 국가권력 장악에 한걸음씩 다가간다. 유신체제의 심장부인 중앙정보부, 청와대 경



전두환보안사령관과 정승화계엄사령관과의 파워게임에서 쏘보안사령관이 승리한 것은 합동수사본부가 된 보안사라는 특수조직과 하나회(一心會)를 중심으로 한 육사인맥이 일거에 폭발적 힘을 발휘한 것이다.

호실과 비서실의 책임자들이 죽거나 구속당한 상황이어서, 모든 권력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던 쏘보안사령관에게 집중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합수본부장이었던 쏘보안사령관은 보안사는 물론 정보부, 경찰 등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함으로써 정치·군사 등 모든 고급정보에 접할 수 있었고 정확한 상황판단이 가능했던 점은 정승화계엄사령관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중요요인이었다.

보안사가 치른 「12·12」

수사령관의 부상을 알린 12·12는 보안사의 핵심요원들에 의해 치밀하게 추진되었다.

「전두환본부장을 접견실에서 맞이한 최대통령은 언제나처럼 온화한 모습이었다. 군부의 지휘관들이 지금 어떤 긴장감으로 1초1초를 호흡하고 있는지 최대통령으로서는 모를 일이기도 하였다. 「중요한 보고가 있지요」 최대통령이 먼저 말했다. 전 본부장은 「각하께서 꼭 재가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고 운을 뗀 뒤 「각하, 박대통령시해사건 공판 때문입니다. 정총장이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를 해 주시면 합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본 후 결정하겠다고 국방장관을 찾았다. 한시간 동안이나 설득했으나 최대통령은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千金成저 『軍, 決斷 1000 時間』)

12월 12일 7시 15분쯤 접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하봉중령에게 허삼수대령의 전화가 걸려왔다. 「정총장이 순순히 응하지 않아 총격이 몇번 있는 뒤 연행했다. 이중령은 결재를 받으려고 최대통령과 앉아있던 수사령관에게 이 사실을 귓속말로 알린다. 그러나 최대통령은 국방장관이 없으면 결재를 못하겠다고 완강히 버티다 우여곡절 끝에 신현확총리 노재현국방이희성중앙정보부장서리와 손보안사령관 배석하에 정승화총장 연행에 대한 지각재가를 한다. 12·12 다음날인 13일 새벽 4시 30분이었다.

12·12당시 보안사 핵심간부들은 수사령관의 분신처럼 정승화총장 납치, 군통제 등 창업공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보안사의 한장교는 「12·12에 대한 여러가지 평가가 있지만 결국 정승화총장과 진두환합수본부장의 파워 게임이었다. 게임령이 나면 게임사령관이 최고 지위지만 그것은 껍데기이고 합수본부장(보안사령관)이 가장 막

강한 권력을 갖게 된다. 군만 아니라 안기부, 경찰, 검찰까지 모두 합수본부장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진두환 합수본부장의 승리는 합수본부가 된 보안사라는 조직과 그의 하나회(一心會)를 중심으로 한 육사 인맥이 일기에 폭발적 힘을 발휘한 것이다」고 풀이했다.

정승화총장은 보안사 시범고 분실에 연행되어 이하봉합수본부사국장의 수사를 받게 된다. 물론 이같은 보안사 핵심세력 외에 朴熙道 준장, 노태우 소장, 고명승, 장세동, 김진영대령 등 육사 동창과 지계 후배들의 절대적 성원이 12·12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12·12이후 표류하던 권력은 진두환 합수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보안사로 더욱 집중, 보안사를 중심으로 80년들이 제5공화국을 탄생시키는 각종 개혁조치들이 기획, 입안되어 집행된다. 5·17계엄화대 조치의 국보위설치, 정치규제법 발동과 강제적인 정치권의 세대 교체, 제8차개헌과 국민투표, 과외금지 등유 골자로 한 교육개혁, 삼청대교육, 언론통폐합 등 혁명적인 조치들이었다.

국보위는 5·17이 일던 수습된 5월 31일 최규하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으로 주요 행정각료 등 10명과 주요 군 요직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 발족된다.

국보위설치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으나 대체로 12·12 이후 보안사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들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국보위설치를 위한 기초작업은 보안사의 핵심참모들이 수사령관을 국민적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이루어진것으로 5공화국 창건을 위한 정치작업이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시작되었고 공식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月刊中央」(88년 3월호)에서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80년 5월27일 국무회의가 소집되기 전 보안사령관실에는 수사령관, 노태우수정사령관과 9사단장인 백운태 소장(작고)등 3인이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허화평·허삼수대령·이하봉중령 등 3인이 「국보위설치에 관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들어와 이중령이 수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중령은 5월16일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국보위 설치가 결의되기 전후하여 치밀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기본골격을 만들어왔던 터였다. 물론 이 작업에는 보안사 정보처장인 권정달대령과 두 허씨 등 보안사 핵심 요원들이 깊숙이 관여했다.

당시 외신들은 「배후에서 계엄업무를 지원해 오던 수사령관이 표면에 등장한 것으로 최규하대통령체제를 뒷받침하는 제1인자로서 그가 앞으로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讀賣新聞」), 「全중장을 중심으로 한 新軍部가 완전히 군부

의실권을 장악한 것을 보여 주는 것. (「朝日新聞」)이라고 논평했다.

어쨌든 국보위 설치에 관한 모든 작업은 보안사에서 담당했고 최종 결정은 수사령관이 내렸다는 것이 당시 권력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국보위의 업무가 시작되자 그 성격을 잘 몰라 이리동절하던 각료들도 서로 눈치를 보다 모두 수상임위원장에게 정례적으로 업무보고를 시작했고 업무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이었지만 기존의 정부조직에 대응하는 정부속의 정부, 「超정부」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국보위는 상임위원장 이하 30인의 상임위원 가운데 18명이 현역 장성인데다 분과위원회 간사들이 모두 영관급 장교로 구성되어 軍政평의회나 혁명위원회 같은 인상을 주었다. 따라서 국보위의 실권을 장악한 전상임위원장으로서 국보위가 「대통령 수업」을 쌓는데 좋은 자리였다. 그러나 「청와대로 가는 길」이 순탄하게 뻗어 있는 것만은 결코 아니었다. 총격요법을 통해 국민의 시선을 끌어 모아야 했고 기존의 정치질서의 재편을 도모해야 했다.

보안사가 주도한 民正黨 창당

5·17로 정치활동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8월 중순 수사령관을 정점으로 한 개혁주도세력은 정계개편을 위한 신당·창당 작업을 본격추진했다. 수사령관은 당시 보안사 정보처장이던

권정달대령과 한용원정치과장(방산과에서 명칭 변경)을 보안사에서 차출, 신당 창당 작업을 맡긴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소사령관이 중앙정보부 근무시절부터 알고지내던 李鍾贊중앙정보부 총무국장(현 제1정무장관)을 가세시켜 팀을 구성했다는 것.

권대령을 주축으로 한 보안사와 정보부의 창당준비 멤버들은 성북동 안전가옥(이하 안가)에서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작업은 크게 나누어 △당헌·당규 △조직 △정강, 정책, 이념 등 새갈래 인데 권대령 자신은 총괄 및 당헌, 당규를 맡고 조직 파트는 이상연대령, 정강, 정책 부분은 이종찬국장에게 맡겼다. 권대령은 또 철저한 보안유지를 위해 세팀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당헌·당규팀은 서린호텔, 조직팀을 플라자호텔, 정책팀은 하이얏트호텔을 중심으로 극비리에 신당준비작업을 추진했다는 것.

창당 준비작업이 진행되기 전 한때 소사령관은 기존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을 업느냐, 아니면 신당을 창당하느냐는 문제로 권력 심층부 안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공화당의 나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없다는 개혁주도세력 특히 두 허씨를 비롯한 영관급 실세들의 강력한 제동으로 신당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한다.

이몽든 소사령관이 대통령에 취임한 9월1일 이후 창당작업은 더욱 박차를 가했다. 소사령관 후임으로 노태우수경사령관이 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됐고

민정당 창당작업은 이제 청와대와 권정달대령간의 하트라인 속에 급진전됐다. 노사령관은 창당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권대령 등으로부터 진행상황의 중간보고를 받는 정도였다고 한다.

후술하겠지만 권대령을 중심으로 한 보안사 팀들은 창당 작업을 전개하면서 기성 정치인들의 손발을 묶는 정치규제자 선발도 보안사에 특별팀을 만들어 작업했다. 권대령은 두 허대령이 장군에 진급하자마자 군복을 벗은 것처럼 준장으로 진급한 다음날 전역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성북동 안가와 보안사를 오가며 막바지 창당작업을 진두지휘했다.

野黨창당에도 간여

보안사와 정보부는 집권당 만이 아닌 야당 창당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정치인들을 새로 만드는 당별로 교통정리하는데 간여했을 뿐만 아니라 창당된 민한당·국민당·민권당·신정당·민사당의 당명선정, 당직 배분, 당사 마련 그리고 당 운영자금에까지 개입했다.

보안사와 중앙정보부의 5개월 공작 끝에 민정당과 야당인 민한당, 국민당이 골격을 갖추고 세상에 드러났다. 민정당 창당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권정달보안사정보처장과 중앙정보부 이종찬 총무국장은 창당된 민정당 임시사무국의 연락분과위와 운영분과위를 각각 맡았다. 창당멤버로 잘못 알려졌던 보안사 이상재씨는 청와대

개혁주도세력은 보안사 주도로 민정당 창당 등 정계개편을 시도하면서 구 정치인들을 제거하는데 정치규제라는 원시적 방법을 동원했다. 정치규제자 선정도 보안사 주도로 이루어졌다.

들에 의해 강제로 역사의장에서 사라지는 시대를 맞게 되었다. 전두환대통령은 취임 한달 만인 10월 16일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정치일정에 관해 언급했다. 이날 초대통령은 △81년 3월 이내 대통령 선거 △81년 4월말 또는 5월 중순 국회의원 선거 △80년 11월 정치활동 재개라고 밝혔다.

10월 30일에는 李光魯 입법의원 등 8명의 제안으로 정치풍토쇄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 4일만인 11월 3일 통과시켰으며 11월 12, 15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8백11명과 24명 등 모두 8백35명의 정치인들에게 족쇄를 채웠다.

이에 앞서 초대통령은 11월 7일 정치풍토쇄신법에 따라 정치활동규제대상자를 심사할 정치쇄신위원회 위원장으로 金重瑞 대법원판사를 선임하는 등 위원 9명을 임명,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쇄신위는 11월 19일까지 재심청구를 받았고 1주일 후인 11월25일 부적격자 8백35명 가운데 정치활동이 허용된 인

사정비서관으로 있다. 당의 골격이 거의 짜여진 81년 1월 6일부터 민정당에 참여. 1월15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창당대회를 조직국장으로서 치르게 된다.

당시 민정당의 한 간부는 '1월 6일 점은 정치불 타고 보안사의 이상재, 金大中씨,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尹碩淳씨가 당사에 나타났다. 이들은 각기 조직국장, 조사국장 그리고 사무차장으로 당직을 맡아 민정당이 이들에게 접수당한 느낌이었다고 당사를 회고했다.

민정당은 보안사를 중심으로 한 개혁주도세력들의 집권구상에서 발상되어 창당작업이 추진된지 5개월만에 집권당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정치규제로 야권인사 철폐

개혁주도세력은 민정당 창당 등 새로운 정치질서를 모색하면서 정계개편을 위해 구 정치인들을 제거하는 정치규제라는 원시적 방법을 동원했다. 정치풍토쇄신이라는 미명하에 구 거물급 정치인들과 야권 인사들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80년 8월1일 당시 제업사는 연행·조사중이던 金大中씨 등 야권인사 24명을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육군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했다. 자택에 연금중이던 金泳三 신민당총재도 8월13일 정계은퇴를 선언한다고 대변인이 발표. 근 20년 동안 한국 정계를 주도해 오던 정치인들이 개혁주도세력

사는 10대 국회의원이 1백1명(공화 25명, 유정 57명, 신민 17명, 무소속 2명)이며 구 정당간부 1백62명 기타 5명은 포함, 2백68명으로 규제자의 32%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런 공식적 절차와 달리 보안사를 중심으로 한 민정당 창당작업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여부가 개인별로 정해졌다. 정치인의 선별과정은 보안사 정보처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한 관계자는 보안사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했다.

「권정달정보처장, 유학성정보부장, 유홍수치안본부장의 지침을 받은 실무팀이 구성되어 정치인의 신상카드를 토대로 세 기관의 의견을 종합한 뒤 보안사에서 정치활동 적격여부의 판단을 내렸다. 보안사에서는 정보처의 한용원정보1과장(합수본부 정보부국장 겸임), 안기부에서는 玄鴻柱 2국장(현 법제처장), 치안본부에서는 朴培根 정보1과장(당시 편제로 경무관, 현 대구시장)이 개인별 정보를 취합, 정치인들의 새 체제에 대한 적용여부를 검토했다」

비판자나 비협조적인 자의 손발을 묶고 현실정치를 떠나가는 대표적인 불공정한 행위인 정치규제를 통해 정치인 세대교체를 강제적으로 시도했던 것이다.

기자해직 통폐합 주도

보안사를 주축으로 신당을 창당하기에 앞서 국보위는 「80년 여름의 대숙

청」으로 불리는 강경조치를 내렸다.

언론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숙청이 마무리되던 8월 이후 7백여명이 보안사의 언론대책반을 중심으로 한 개혁 주도세력에 의해 해직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기업사의 보도검열폐지운동이나 언론노조운동에 앞장섰던 비판성향이 강했던 사람들이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해직자들에게 2년동안 취업이 봉쇄되었다.

특히 보안사는 80년 언론인해직과 언론통폐합 등 「언론대학살」로 일컬어지는 언론탄압에 깊숙이 간여한 것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최근 폭로된 「언론건전육성 종합방안보고」에 따르면 기자해직과 통폐합, 언론기본법제정 등이 기업해체후 언론통제 목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특수 집단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보안사는 언론대학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최근까지 증언과 자료를 종합해 보면 80년 7월 언론인 해직과정에서는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11월의 통폐합과정에서는 문제점 수집, 분석의 정보기능과 물리적 힘, 그리고 장소를 빌려주는 실무집행의 惡役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보안사에는 정보처장 밑에 언론과 행정을 담당하는 2과가 있었는데 80년 봄부터 이 2과 아래 언론만을 전담하는 언론대책반을 특별히 만들어 운영했다. 보안사에서 이 대책반의 팀장은 보도검열단 실무총책이었던 이상재 대공수사관이었다.

물리력을 앞세워 공포분위기를 조성

하며 정통성 없는 권력을 억지로 창출한 보안사는 80년 9월 수보안사령관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 막강한 위세가 떨어졌다. 수사령관과 핵심 측근 세력이 모두 청와대와 민정당으로 옮겨가 보안사는 이미 권력의 중추기관이 아니었다.

수사령관 후임으로 온 노태우사령관 시절부터 보안사는 청와대의 필요에 의해 물리적 강제수단을 빌려주는 집행기관으로 탈바꿈했다. 통폐합 당시의 한용원 정보처장(정보과장으로 있다 승진), 金忠佑 대공처장도 두 허씨 들에 밀려 처음부터 「실세」가 아니었지만 실세들이 청와대로 옮겨가자 권력 내부에서 보안사의 힘은 더욱 반감되었다. 이제 보안사는 정책을 입안,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 결정된 사항을 힘으로 집행하는 단순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곳으로 바뀐 것이다.

우여곡절을 거치던 통폐합안이 초대통령의 결재가 나자 언론사 대표들을 보안사로 초치, 이들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은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다. 보안사는 언론사 대표들을 불러와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포기각서를 쓰게 하는 단순한 행동책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당시의 보안사는 해직 때처럼 전권을 휘두르던 보안사가 아니었다.

당시 정보처장이었던 한용원교원대학교수는 통폐합과 관련,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초법적인 것을 알면서도 정책결정을 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지 집행자에게 무슨 책임이 있는가. 당시 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군법회의에

회부됐을 것이다」면서 통폐합의 발상과 기획입안한 사람에게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한교수는 「당시 보안사의 언론대책반은 보안사만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실무자들이 이상제씨를 중심으로 일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아쉬운 「녹화사업」 전상규명

노태우보안사령관이 재임 1년만인 81년 7월 정무제 2장관으로 자리를 옮기자 박준병 육본인사참모부장(현 민정당 사무총장)이 취임했다. 5공화국이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 갈 무렵이었으나 학생들과 재야에서는 끊임없이 저항을 계속했다. 정부는 이에 맞서 운동권 학생들에게 「제적과 구속」 「지도휴학과 강제징집」 등으로 대응했다.

보안사에서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학생운동을 의외에서 차단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강제징집과 이들에 대한 순화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이 문제와 관련,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보안사는 지난 82년 9월부터 84년 11월까지 강제징집된 학생 4백47명을 정훈교육 대상자로 분류 관리해 왔으며 이 중 2백65명에 대해서는 이른바 녹화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집된 학생들은 보안사에서 관리했다.

「보안사는 82년경부터 녹화사업을 전담하는 심사과를 신설, 순화사업

과 프락치공작사업을 병행토록 했으며, 이 목적을 위해 정규대학 출신의 중위급 단기장교를 선발, 특수학적변동자들이 복무하던 전방 일부 사단에 배치, 녹화사업을 담당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新東亞』 88년 5월호, 「眞相!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국방부는 지난 10월10일 국정감사에서 이 녹화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12억 원이라고 밝혔다.

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녹화사업」이란 용어는 학생운동에 대한 정보입수와 탄압을 위한 수사기관의 순화 및 공작사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특수학적변동자(특별자)」로 처리된 강제징집학생들을 관리하는 군 보안대가 반정부 반체제의 식에 물든 이들 운동권 학생들을 일단 좌경 용공분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붉은 색깔에 가까운 의식을 뿌르게 녹화시킨다」는 것이 소위 녹화사업의 기본 취지라는 것이다.

강제징집으로 군부대에 끌려온 4백여명의 특별자들은 차별대우만이 아니라 녹화사업의 공작대상이 되어 시달려야 했다. 이들에게 육체적 고통과 혹심한 정신적 시련을 인겨주었던 녹화사업은 끝내 6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 가고 말았다. (『한겨레신문』 10월14일자).

83년 12월21일 복교대상 학생들의 모임인 복학대책위원회가 강제징집 사실과 이들의 의문의 죽음을 맨처음 거론한 이래 84년 3월8일 NCC 인권위가 「인권소식」지를 통해 이들의 명단을 밝혔으나 이 문제는 그동안 언론통

제로 공개기론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 9월30일 趙北衡의원(평민) 등이 이 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국방부에 요구함으로써 또 다시 여론의 관심권으로 떠올랐다.

국방부는 「학적변동자 복무중 사망자는 △김두황(고려대) △한영현(한양대) △최은순(동국대) △정성희(연세대) △이운성(성균관대) 씨 등 5명이며 △한희철(서울대) 씨는 특별자가 아니며 △김용권 씨에 대해서는 「화인불가」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최씨 이외에는 모두 자살로 숨졌다」고 밝히고 「군수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조사중 사망한 자는 이운성이고 △조사종료 2일 뒤 사망한 자는 한희철이며 기타 사망자는 본 녹화사업과 무관한 안전 및 정신질환에 의한 지해사고」라고 밝혔다. 그러나 녹화사업과 관련해 숨진 것이 아니냐는 유가족 및 제야 인권단체들의 의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오리무중 「제일교회」 폭력사건

5공화국 초기 보안사의 대표적인 종교기관 공작으로 알려진 제일교회폭력사건도 아직까지 의혹에 가득차 있다. 70년대부터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 왔고 5회나 투옥되었던 朴炯非(65)목사의 서울 제일교회가 예배 방해, 성직자 테러 등 잇단 정치폭력으로 지금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 權魯川의원(평민)은 지난 9월 보안사 국정감사에서 「제일교회가 84년 9월10일부터 모 특수기

관요원과 폭력배들에 의해 점거되면서 4년동안 길거리에 쫓겨나 지금도 노상에서 예배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은 「5공 군사독재정권과 현 정권이 기독교계의 반정부활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저질러온 가장 집요하고도 대표적인 정치테러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권의원은 보안사령관을 상대로 「국방부자료는 보안사가 제일교회의 분규사건과 추후도 관련이 없고 교회 내분으로 벌인 유혈 난투극이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나」고 추궁했다.

박형규목사는 지난 9월 「평화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안사 관련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84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현 민정당 국회의원)씨가 정보기관의 개입사실을 시인했고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박준병씨가 姜元龍목사에게 보안사의 제일교회 공작사실을 시인했던 점 △당시 치안본부장이던 박배근씨가 「제일교회 사건은 경찰의 권한 밖에 있다」고 말했고 당시 盧信永 안전기획부장도 「안기부는 힘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다 높은 정권보위기관 또는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권의원은 이같은 박목사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 「이런 사실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을 앓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제일교회사건에 보안사가 개입했음을 목

보안사는 5공 초기 國保委설치, 기자해직, 언론통폐합, 녹화사업, 제일교회 폭력사건 등에 깊이 개입,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안사령관은 「保安司의 새 位相」을 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적으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추궁, 보안사령관이 박목사를 직접 만나 「오해를 풀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기자회견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권의원은 또 86년 6월 「리오야단의 회색의 십자가」라는 괴서적 등장과 이 책의 광고 게재가 보안사의 계획인가, 그리고 정신교육교재로 이 책을 배포한 사실과 박목사를 겨냥한 것이냐는 등 배포동기를 추궁했다.

국방부·내무부 등 관련부처에서 9월초 국회 특위에 보낸 자료는 군 수사기관의 제일교회 사건관련을 부인했으나 박목사 반대파를 이끌었던 정모장로가 쓴, 박목사의 신학적 입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 책자를 86년 6월경 군부대 정신교육교재로 배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평화신문』 제19호).

국회 5공비리특위 제3소위원회(위원장 조승형의원)는 지난 9월 「제일교회 예배방해사건」 조사에 착수, 군 수사기관의 개입여부를 집중조사해 나갈 방침인데 조사차 나간 특위 위원들이 제지당하기도 했다.

지난 8월 보안사의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本誌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일부 문제교회를 관찰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국가 안보의 보안적 측면에서였다. 제일교회 사건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즉각 중지되었다」고 사실상 보안사 관련설을 시인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부총재 黃明秀의원도 국정감사에서 「83년 5월 교황방문을 전후, 보안사에서 종교계의 좌경용공 세력척결을 위한 평화공작, 거미줄공작 등을 통해 종교계를 탄압했다」고 지적하고 작전의 목적 등을 추궁한 바 있다.

보안사 폭로한 「보안사」 압수

한국에 유학중 보안사에 간첩음의자로 체포된 뒤 보안사에 수사관으로 특채, 그 체험을 폭로한 책을 들려싸고 일어난 말썽도 주목된다.

제일한국인 2세로 「보안사」의 저자인 金丙鐵(33)씨에게 국군보안사령부로부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출두를 요구하는 출두요구서가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일본의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오사카판)이 지난 10월 29일 보도한 것. 이 신문은 이날 사회면 머리기사로 김씨에게 출두요구서가 배달됐다고 밝히고 김씨는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가겠지만 보안사의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책은 일본 반세이샤(晩聲社)에서 단행본으로 나왔고(6월20일) 우리나라

에서도 지난 8월24일 도서출판 「소나무」에서 「보안사—한국 국군보안사령부에서의 체험」이란 제목으로 번역 출간됐다 (「新東亞」 9월호 발책 계제).

이 책의 내용은 부제가 설명하듯이 저자인 김씨가 보안사에서 근무했던 (83년~85년)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크게 4부로 분류, 모두 1백 14개의 소제목을 붙인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저자인 김씨 자신이 간첩혐의로 보안사에 잡혀가 당했던 고문의 실상과 조작관련 사항 △그후 자신이 보안사에 특채된 후 보안사 요원으로 참여해 직접 지켜 본 사건의 진상 등으로 요약된다.

권노갑의원 등 국회 국방위원들은 국정감사기간 동안 「보안사」내용의 신빙성 여부 등을 질의했는데 비공개회의로 진행돼 답변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많은 출판인들은 「관계 당국은 이 책의 진위여부와 김병진씨의 문제에 대해 진실을 밝혀 의혹을 씻어 줘야 할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달리 기자가 취재중 만난 전직 보안사 요원들은 익명을 요구하면서 「김병진은 간첩이 확실하다. 나름대로 증거가 있으며 그로 인해 간첩을 체포해 현재 수감중이다」면서 「그가 일본에서 자기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책을 낸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보안사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지난 10월12일 육·해·공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갖고 10.27 불교탄압사건(법난),

12.12사태의 성격, 삼청교육대 비리,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등을 비롯, 보안사에 의한 前서노련의장 金文洙씨 고문사건, 吳弘根부장(중앙경제신문) 테러사건, 우리마당 피습사건 등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군 관련 사건들에 대해 폭넓은 감사를 벌였다.

특히 조승형의원(평민)은 80년 「10.27」법난사건과 관련 「군은 지난 80년 10월27일 불교정화라는 미명아래 3천여 사찰을 짓밟고 총무원장 등 40여명을 체포했으며 2백억원 정도를 환수했다」고 밝히고 △환수재산 처리결과 △당시 보안사 최고 책임자 및 지휘자 △보안사의 판단 평가보고서 사본을 제출할것을 요구했다. 조의원은 기자에게 「보안사와 관련된 각종 인권탄압과 의혹들이 국회 5공비리특위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 주목되는 보안사

「1945년 광복과 함께 軍政法令 제28조에 의거, 남조선 과도정부에 의해 국방사령부가 설치되면서 비로소 오늘날 국군보안사령부의 효시가 되는 정보과가 탄생했다. 47년에는 조선경비대 안에 정보처가 설립, 군이 필요로 하는 정보수집 및 군내부의 방첩활동과 국내 주재 해외무관과의 연락 등 정보업무를 관장하였다. 이 정보처가 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되면서 국방부 직제에 의거, 국군정보국으로 개편되었다. 이어 6.25동란을 당한 50년

10월21일 정보국이 육본 직할부대로 완전독립한 특무대로 새 출발했고 60년 7월 민주당정권이 등장, 종래의 부대 이미지 개선을 내세워 특무부대를 방첩부대로 개칭했다.

70년대들어 보안부대 업무팽창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 3군 방첩부대의 통합이 불가피해졌고 결국 77년 9월 26일 대통령 제8704호에 의거 국군보안사령부가 발족되었다(千金成저, 「인간 全斗煥·창조와 초극의 길—黃江에서 北岳까지」).

민주당은 10월14일 보안사의 권한을 분산하고 각 보안부대의 정치사찰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각군 보안부대를 통합 운영해 온 보안사를 각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설치함으로써 보안사의 권한을 축소하고(국군 조직법 2조), 보안부대 등 모든 군 부대는 국회, 법원, 정당 등에 대한 정보수집 등 사찰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3조 2항) 개정안은 군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차관 및 차관보는 예편 뒤 5년 이후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조직법). 또 수사권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수행상 민간인을 검거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검찰청에 이송토록했다(군사법원법).

이 개정안은 국회통과와 대통령 거

부권 행사 등 여러 난관이 있지만 보안사로서는 제5공화국하에서 누적돼온 각종 민원요인과 시국사건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정리할 때가 온 것이다.

보안사 간부 출신의 한 정부인사는 「기구개편보다 담당 인물의 선정이 중요하다. 정치적 야심없는 직업군인으로 합리적인 인물이 對군부만을 상대로 활동하면 보안사는 절대 필요한 조직이다. 「지키는 자를 누가 지킬 것인가」라는 문제처럼 12·12는 쿠데타를 감시해야 할 조직이 쿠데타의 본부가 되었다. 12·12성공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소장군 추종세력들이 정승화장군측의 모든 전화, 움직임을 도청하거나 포착해 처음부터 이긴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면서 對군부, 간첩사건 등을 다루는데 보안사는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군으로 나누어 개편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 자체보다 계엄법이나 합수본부 설치령을 개정하거나 보완해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吳滋福국방부장관은 10월12일 군사법원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 보안사 기구개편 문제와 관련, 「보안사의 활동을 對간첩 및 조사에 국한 시키고 대민관계 활동은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연구위원회를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이어 「1단계로 보안사 요원들을 상대로 보안사 개편방안에 대한 의식 조사를 실시했으며 소규모 분실 37개

소를 폐쇄하고 요원 1백12명을 감축하는 등 이미 지역별 통합작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보안사, 참모총장 소관아니다」

李鍾九참모총장은 이에 앞서 지난 10월7일 실시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보안사 개편문제에 대해 「국방부 소관으로 답변할 처지가 아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0월15일 여·야합의로 비공개로 진행된 보안사 국정감사에서 야권의원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문제, 민간인 불법연행 및 가혹행위 근절책, 보안사 기능 및 편제의 재조정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황명수 권노갑의원 등은 국방부 감사때 오자복장관이 보안사의 임무 및 기능의 재정립을 위하여 연구위를 구성, 활동방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지적. 보안사령관에게 군조직법을 개정, 현재의 국군보안사령부를 해체하고 3군별로 보안 및 방첩기능을 분할, 특성별로 전담케 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과거 보안사가 민간인을 불법연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문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고 있는 西水庫 등 산재한 수사현장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밖에도 △언론통폐합 △녹화사업으로 숨진 8명의 강제징집대학생 사망사건의 실상 공개 △제일교회 정치폭력사건에 대한 보안사 개입여부 △보

안사에 근무했던 在日교포학생 김병진씨의 저서 「보안사」 회수의 법적 근거와 사실 여부 △이리 주재 朴昌信신부 테러사건 등을 따졌다. 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어 어떤 답변이 오겠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야당의원들은 언론통폐합 등 위증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보안사 정보처장을 지낸 한용원박사 논문의 결론은, 16년만에 부활된 보안사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한국의 민주화는 前군부정권과 관련된 세력들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리고 군부가 정치적 보복으로부터의 보호 등 퇴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보안사는 싫든 좋든 변화해야 할 운명이다. 기자가 보안사 관련 취재를 하면서 새삼 두터운 벽을 실감한 점은 기자의 게으른 탓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취재에 응해준 관련자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보안사도 민주화시대에 맞춰 관심을 군 내부로 돌리고 있는 것 같다.

작년 7월 대통령선거전 보안사 소속 모장군이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야당 정치인을 겨냥해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수류탄을 들고 뛰어 들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정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이런 행태는 지양되고 있는 인상이었다. 한 보안사의 장교는 「민주화가 추진되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편하

다」면서 보안사 내부에서도 전환기의 진통을 겪고 있으나 보안사소속 장군들도 모두 민주화에 적극 호응하고 있어 국민들은 보안사가 앞으로 거듭 태어난 모습을 보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사랑받도록 하겠다」

80년대 한국사회에서 인권탄압과 정보정치의 대명사로 전두환 체제의 기둥이었던 무소불위의 권부 보안사의 최사령관은 국정감사차 방문한 국회의원들 앞에서 「보안사의 새 位相」을 정립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했다.

「그 어느때 보다도 민주화로 성숙된 새 시대를 맞아 저희 부대도 새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군 정보기관이 되기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조직의 개편과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부대 위상을 정립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부대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보안사가 소속한 군부에서조차 이런 다짐이 「말의 盛饌」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보안사의 진로를 주시하고 있다. □

告發!

●日本거주
前保安司수사관의
충격폭로

大韓民國 國軍保安司

金 丙 鎮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풍조의 근원인
정보공작정치의 한복판에서 내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내가 경험한 이수치스러운 현실에 입다물고 살아야 하는가, 나는
「뫼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이 글을 쓴다.”

金丙鎮씨는 1955년 일본 고베(神戸)시에서 태어난 재일교포로, 關西學院大 문학부를 거쳐 80년 서울에 유학을 왔다. 연세대 국문학과를 거쳐 같은 학교 대학원(국어학전공)에 다니던중 보안사령부에 연행돼 수사를 받고 「간첩」으로 발표됐다. 그후 보안사에 특채되어 대공처 수사과에서 2년동안 근무했는데, 83년 7월 보안사에 연행된 이후 86년 2월 일본에 돌아갈 때까지의 체험을 최근 일본에서 책으로 펴냈다. 이 글은 그가 자신의 체험담을 축약한 것이다.

「聖域」중의 하나로 일반인의 접근이 봉쇄된 軍정보수사기관에서, 특히 對共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 수기는 보안사의 활동중 그가 직접 목격한 일부 「간첩조작사건」을 폭로한 것이다. 분단현실에서 보안사와 같은 정보·수사기관의 필요성은 다 인정하는 일이고, 또 그간 그들 기관이 수행한 많은 역할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조작」에 분노하는 金丙鎮씨의 수기는 큰 충격을 느끼게 한다. 이 글이 보안사의 본래적 기능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바란다. ... 編輯者註

연행, 고문, 그리고 「공소보류」

나에게는 그렇게도 그리웠던 조국이였다. 조국을 찾아온 재일동포 2세인 나는 길을 오가는 사람들 모두가 나와 한핏줄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에도 마음 흐뭇해 했다. 고국에서 사랑하는 이를 만

나 연애라는 것도 해봤다. 그녀와 가정을 이루고 아들녀석도 둘 수가 있었다.三星 종합연수원 일어강사 자리를 구하여 분수에 넘는 보수를 받고 연세대 대학원을 다니는 나의 학구생활은 보람에 차 있었다.

그러던 1983년 7월9일 토요일 오후의 일이었다. 노량진수산시장에 들러 생선 한마리를 사들고 아직 백일이 안된 아들 얼굴을 생각하며 귀가를 서두는 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보안사 대공처 수사과 수사2계 L모중사.

「데모하다 잡힌 연대생 하나가 당신을 잘 안다고 하니 신원확인하는 데 협조 좀 부탁한다」

그의 이 한마디가 나와 내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셈이 되었다. 수사과 분실, 일명 西氷庫호텔이라고 일컬어지는 악명 높은 곳으로 나는 연행되었다.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것은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육설과 고문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土木공사 水道공사 전기공사라고 부르는 온갖 공사판(고문)을 벌였다. 그 아비규환에서 빠져나왔을 때에는 온몸이 멍들어 있었다. 얼 빠진 내 머리 속에 맴돌던 한마디는 당시 수사2계장 K모 소령의 협박이었다.

「네 처는 자살하든지 몸 버리든지 둘중의 하나다. 그뿐이나. 네 얘기는 부모가 누군지도 알 수 없게 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고아원에 보내겠다」

8일만에 일단 석방된 나는 철저한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 일본으로 밀항할 것도 생각했다. 여권은 이미 빼앗긴 뒤였으므로 빠져나갈 길은 밀항밖에 없었다. 그러나 백일도 채 지나지 않은 갖난아기를 대동한 모험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감시만 받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8월17일, 나는 재차 연행되었다. 나는 L중사로부터 제일한국학생동맹에서의 나의 선배 徐聖壽씨를 金海공항에서 입국할 때 붙잡았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가족의 안전과 내 개인의 무력함 때문에 일본에 있는 친지 친구들에게 나의 연행사실마저 연락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逆用활용」, 保安司에 특채

같은 해 10월19일, 그들은 나를 간첩죄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KBS·MBC측에 「격려금」까지 주면서 「특별프로」를 제작케 했다. 특별프로 제목은 「유학생을 잡으라」였다. 어처구니 없는 제목이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는 그때 「기소」되지 않았다. 「공소보류」라는 조치를 취하고 사법부의 판결에 의하지 않는 「죄인」으로 만들었음을 뿐이었다. 그렇게 해놓고 그들은 나를 「逆用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보안사 수사관이 되라고 요구했다. 나를 살려준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수사관이 되라는 것이었다.

나와 처는 나의 보안사 「특채」를 거절하기 위한 모든 핑계를 대봤으나 모두 허사가 되었다. 몇번이고 죽음을 생각해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부부는 자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곤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는 「특채」에 응해야만 했다.

이후 나는 보안부대중의 보안부대, 대공처 수사과에 내근하면서 정보분석반에서 일을 했다. 군에 입대한 신병들이 대공교육시 보안부대원에게 써내는 「대공설문」중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첩보」를 분석하는 일에 첩보분석에 몰두했다.

「대공첩보」, 말은 그럴듯하지만 서류몽치와 씨름하면서 남의 프라이버시를 「업무」로서 침범하는 일이었다. 집안 일가중에 재복자 在日연고가족이 있다면 그 대목 하나만으로 대공용의자가 되고, 정부 시책에 대한 비판언동을 했다면 그 용의자의 배후관계를 예하부대에 「내사」토록 지시를 내리는 일이었다. 일본어에 능통한 까닭에 일어로 주고받는 용의자들의 검열편지는 내가 번역했고, 전화감청을 녹음한 테이프중 대화가 일어로 돼 있으면 모조리 내 책상 위에 쌓였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신풍조의 근원인 정보공작정치의 한복판에서 내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나는 내가 보고 경험한 이 수치스러운 현실에 입 다물고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故張俊河선생님이 그분의 수기인 「돌베개」에서 몇번이나 적으신 「못난 조상이 되지 말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2년간을 참고 견디었다.

일본으로 도피한 그날, 1986년 2월1일부터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동안 내 글은 주간지 「아사히 저널」 논픽션에 우수작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 글이 한권의 책으로 나왔다. 나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정보수사기관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도, 또 그곳에서 실제로 많은 고생을 하는 요원들의 노고 자체를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무리한 방법으로 간첩을 조작해내는 과정을 폭로하지 않을 수 없다.

在日동포유학생 李군의 경우

나는 1984년 1월4일 보안사에 특별채용되었다. 채용되기 전인 1983년 후반기에 도 간첩용의자를 「심사」할 때는 통역으로 호출되기도 했다.

83년 연말께 나는 L중사로부터 몇번인가 되는 호출을 받았다. 속칭 삼청동 보안사 후문에서 그를 만나 내가 간 곳은 장지동에 새로 지은 수사과 분실이었다. 수사과장 U중령은 나를 일부러 호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 간첩 하나를 잡아두고 있다. 너를 불러낸 이유는 처장님(C대령)의 지시이다. 네 임무는 그 간첩의 진술을 보고 그 내용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겪었던 경험과 그들의 사고방식에 비추어볼 때 「간첩」이라고 그들이 낙인찍었다면 그 진위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A급이든 B급이든, 아니면 C급이든간에 간첩을 잡았다면 그들에게는 포상금과 함께 각종 훈·포장이 주어지고, 「해외시찰」이라는 선물도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고개를 가우뚱했다. 나에게 「진쟁이」나 「시시한 것」이나를 판가름해보라는 말인데, 그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었다.

「피의자」로 석달째나 감금당해온 李군은 나이 스무살을 갓넘은 제일동포 모국 유학생이었다. 경북대의대에 재학중이던 그는 지역보안대 대공과의 「근원발굴계획」에 의해서 「연행돼」 있었다. 영장도 없이 석달씩이나 구속돼온 이군은 대구에서 조사를 받아오다가 「起訴의견」으로 송치하는 작업을 위하여 사령부 수사과 분실에 와 있었다.

나는 K준위(수사2계 학원반반장)의 지시대로 이군의 「진술서」라는 것을 읽어봤다. 모국어로 갈겨진 그의 진술서에는 일본에서 어느 야간대학에 다닐 무렵 金모추모라는 정체불상의 북괴공작원에게 포

섭되었고, 또 북괴공작선을 이용, 「입북」까지 했던 「진쟁이」간첩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입북시 자기가 평양에서 목격했다는 주체의 탐이나 김일성동상 등의 건조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사관(사령부 공작과 Y소령)에게 권총의 조립분해를 해보이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군의 진술서를 단숨에 읽어내렸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진술서에서 보는 한 이군은 틀림없이 「간첩」이었다. 나는 내가 이곳에 호출받아온 이유까지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말투가 약간 어색하다 하더라도 이군은 똑똑히 모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구태여 통역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산 증거물」로 이용되다

수사관들의 후일담을 종합해보면 내가 호출을 받았을 때의 상황은 이렇했다. K상사(수사3계)가 장지동본실에서 이군이 대충 진술서를 완성시킨 것을 보고 「이상 말씀드린 것은 모두 사실과 다름이 없읍니다라고 적어 서명날인하라」고 이군에게 지시했더니 「이상 말씀드린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고 적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피의자의 저항은 웬만하면 폭력으로 봉쇄되는 것이었으나, 송치작업만을 맡은 사령부 수사과는 C대공처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보고하게 된 배경에는 사령부 수사과와 공작과간의 암투가 있었을 것이다. 이군을 용의자로 선발하고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보안대는 사령부 공작과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이군이라는 「성과」는 지역보안대와 동시에

사령부 공작과의 「성과」이기도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군검거가 「수사미스」라는 수사과의 보고를 들은 C처장은 격노했다고 한다. 공작과 수사관들은 물론 수사과에도 욕설을 퍼부었다. 「성과」는 탐나지만, 어설피게 기소했다가 공판에서 뒤집어진다면 「장군심사」를 고대하는 C처장에게도 불리한 것이었다. C처장은 심사숙고 끝에 재수사를 명령했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수사 2계가 재수사를 맡은 것이었다.

나에게 부여된 임무는 이군과의 「면담」이었다. 「너의 임무는 너 자신이 간첩으로 검거됐으나 아무 벌도 안받고 이렇게 자유스럽다고 말하면 된다. 그리고 겁내지 말고 사실을 이야기하도록 설득하라」는 것이었다.

한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작업에 동원됐다는 사실은 나를 긴장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이군에게 해야만 하는지 나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나는 수사관들의 뒤를 따라 「심사실」에 들어갔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왔다. 너와 같은 재일동포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신문을 잘 보아라」

K준위는 가지고 들어간 서류뭉치 틈에서 내가 간첩이라고 보도된 신문을 꺼내 이군 눈 앞에 던졌다.

「이 사람은 간첩으로 검거됐으나 당국의 배려로 이렇게 자유로운 몸으로 있다. 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산 증인까지 데리고 온 것이다. 우리는 자리를 뜨겠다. 감시병도 붙이지 않겠다. 너희들 대화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마음 놓고 이야기해도 좋다. 물론 일본어로 하는 게 의사소통이 빠르겠지. 오랜만에 일본 이야기를 해보면 어때? 이야기 해보겠나?」

이군은 K의 제안에 동의했다. 당황한 것은 오히려 나쪽이었다. 파란 수의복차림으로 앉아 있는 이군의 모습은 얼마 전까지의 나의 모습이였다.

K준위는 「자유로운 대화」를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심사실을 떴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심사실이라는 곳은 천정 네 구석에 거울이 끼여져 있다. 그 위에는 원격 조종되는 TV카메라가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다. 도청마이크도 당연히 있다.

터무니 없는 날조극

「자네 진술서를 잠깐 봤네」
나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군은 나의 말을 들은채만채하면서 물었다.
「당신은 정말로 간첩으로 잡혔나요? 이 신문에 나오는 사람은 진정 당신인가요?」

간첩으로 잡히고 기소됐다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이군은 그 신문이 발간되던 날에는 대구지역보안대 건물 안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 신문은 「진짜」 신문이다」
나는 내가 진짜 간첩이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대답해주었다.

「그럼 당신도 나와같은 짓을 당했었지요? 부탁드립니다. 가르쳐주세요. 어째서 나는 이런 꼴을 당해야 합니까? 이제 석달이나 됐어요. 억지로 사람 잡아놓고 나를 「간첩」이라고 구박하더니,

이렇게 두꺼운 몽둥이로 온몸을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전기고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말 한마디에 그렇다고 대답해보니까 다음에는 언제 「포섭」됐느냐고 하면서 다시 폭력, 폭력, 폭력... 나는 「포섭」이라는 한국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간첩이 어디 있었습니까? 선배님, 선배님도 나와 같은 짓을 당해왔다면 가르쳐주십시오. 거짓말이라도 그들이 하는 말에 그렇다고 대답해주면 나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초면인 나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이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나대로 이 광경을 훑쳐보고 있을 수사관들의 모습이 마음에 걸리고 또 이군의 박력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이군은 처음으로 심정을 드러내도 껌참은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나는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얼얼 떨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것이다」

나의 힘 없는 이 말은 이군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군은 말을 계속했다.

「선배님, 나는 「북」에 갔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내가 군사훈련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열리지 않더군요」

이군의 「입북」과 「군사훈련」은 나도 그의 진술서를 읽고 의아스럽게 생각되던 부분이였다.

「그럼 한가지 질문하겠네. 자네 진술서를 내가 봤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었지. 그 진술에 의하면 북에 갔다는 경위라든가, 북에서의 생활, 그러한 것들이 아주 소상하게 표현돼 있었네. 그

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놀랐던 것은, 자네가 북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권총분해와 조립을 수사관 앞에서 해보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

이군은 입을 멍하니 벌린 채 어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잠시 그대로 있다가 이군은 나에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겪은 날조극보다도 더 터무니 없는 날조극의 희생물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군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유도심문으로 「사실」 만들어

폭력에 시달리다보니 수사관들의 요구에 타협해보자는 유혹이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든다(나 역시 그랬고 피의자는 모두 그렇다). 그리고 한가지 타협은 백가지 타협으로 이어진다. 그 수법은 이른바 유도심문이다.

폭력과 회유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이군은 북에 갔다는 것으로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이군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어떻게 갔느냐」는 것이었다. 당황하는 이군을 보고 공작과 Y소령은 이런 말을 던졌다. 「보통 동해바다쪽 일본 해안선에 고무보트가 닿아서 사람을 실은 후 바다 가운데에 대기하고 있는 모선에 갈아태우고 가는데 너의 경우는 어떠했느냐. 「북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충 XX정도의 거리를 가야하는데, 공작선은 한시간에 OO정도의 거리를 간다. 너의 경우는 어떠했느냐」는 식이었다.

이군은 Y소령의 말을 듣고 산수계산을 했다고 했다. 질문은 또 계속됐다고 한다. 「평양에 가면 천리마동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높이가 OO미터 정도인데, 안봐

느냐, 「평양에는 주체의 탑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생겼는데 안봤느냐. 만사가 그런 식이었다고 이군은 나에게 호소했다.

이군의 하소원은 계속되었다. 군사훈련을 운운할 때도 어느 때와 같이 공작과 Y소령과 즐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Y소령은 실물 권총을 가져와서 이군에게 분해해보라고 옥박지르는 것이었다. 이군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권총을 만지작거리기만 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Y소령은 「앞부분을 돌려 보는 것이 아니냐」는 암시를 주었다. 오른손이 총구로 갔다. 만져보니 거기에는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군은 총신에서 가느다란 부품을 빼는데 성공했다. 그후도 Y소령의 암시에 따라 끝까지 분해를 했다. 조립은 빼낸 부품을 순서대로 거꾸로 끼우니까 됐다. 자신의 힘만으로 됐다고 한다.

나는 나중에 Y소령이 분실내 수사관 대기실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

「옛날 일이라 잊어버린 모양이어서 내가 실마리만 가르쳐주었지」

이 말은 이군이 나에게 호소한 내용을 추인하는 결과 밖에 안되었다.

「공소보류」는 조작 시인 의미

나는 이군이 간혀 있는 심사실에 앉아 있기가 거북스러웠다. 이군은 나에게서 모종의 도움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나의 입장으로선 그런 일은 불가능했다. 나는 이군의 독백에 그저 떨리기만 하고, 또 나의 무력함을 개탄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었다.

「가르쳐주세요 선배님」이라는 그의 말은 더욱더 나를 괴롭혔다. 시들어진 지푸라기를 곧추세우듯 나는 버티었으나, 이군은 질문에는 「끝까지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겨우 대답할 뿐이었다.

「사실을 말하면 다시 고문 당하는 걸요」

이군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복도에 나가보니 모니터로 내가 방을 나가 있는 것을 안 K준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군을 만난 인상을 묻는 K의 질문에 「이군 말이 거짓말 같지가 않다」고 대답하면서 넌지시 이군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K에게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이군과 나의 괴이한 「면담」이 있는 후 수사과·공작과 합동회의를 소집한 C처장은 대통령보고까지 올린 「간첩검거」(간첩검거는 대통령 보고사항임) 사실이 대공처 내에서 손발이 안맞아 일을 그르쳐가는 짐새를 알아차리자 경상도 억양으로 부하들을 힐책했다(그 회의엔 나도 동석했다). 회의를 끝낼 무렵 C처장은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

「이군의 범죄사실중 입북은 빼라. 처치 의견은 「공소보류」로 하라」

공소보류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약간의 언급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공소보류제도는 국가보안법 제20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그 취지는 반국가행위자라 할지라도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공소제기를 보류, 2년간 당국의 감독하에 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보류자도 검거간첩으로 간주되어 포상금이 지급되고, 훈·표창과 해외 시찰이 약속된다. 「공소보류자」라는 것은 「공소유지가 어렵다」, 즉 날조라고 정보

기관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물건」(간첩용의자를 보안사에서는 이렇게 일컫는다)에 대해서 취해지는 조치이다.

C처장은 그후 모보안부대장으로 영전해 갔는데, 영전하기 전인 84년에는 5·16 민족상(안보부문)을 수상했다. C의 「엄격」을 나열한 책자를 보면 그가 잡은 간첩은 60여명이나 되고 있었다. 책자에는 나도 물론 포함돼 있었고, 이군 또한 엄연한 간첩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군은 조국분단이라는 제상에 올려진 희생물이 되었다. 나는 이군과의 「면담」을 통해서(그때는 내가 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군은 결과적으로 옥살이를 면하기는 했으나, 이것은 기적적인 행운에 지나지 않는다.

염치불구한 「平和工作」

84년 초경 보안사 수사과로 출근하면서 대공업무 「연수」도 마치고 어느 정도 정보기관이라는 조직에서 여유를 느끼기 시작했다. 무렵이었다.

정보기관이라는 데에서는 고급간부가 아닌 한 기관이 벌이고 있는 수백가지 「공작」 전체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같은 부대원이라 할지라도 「보안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책상과 의자가 마련된 수사과 내근 사무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보안사 내의 정보도 비교적 빨리 나도는 곳이었다.

「平和工作」, 이 공작은 군사독재가 어리석은 지배자의식에 흠뻑 젖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두드러진 예이다.

로마교황 「요한 바오로」Ⅱ세의 공식방한이 결정되기 전의 일이라고 한다. 당시 전두환대통령은 안기부 치안본부, 그리고 보안사라는 대한민국의 전 정보수사기관에 「예산에 개의치말라. 종교계에 침투한 북괴간첩을 로마의 「중대가리」가 오기 전에 기필코 색출하라」는 특명을 내렸다고 한다. 사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국민인 로마교황을 「중대가리」라는 말로 지칭했다는 것이 보안사 내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었다.

어쨌건 이 공작은 로마교황이 평화의 사자라는 의미를 가진 것에 착안, 「평화공작」이라고 칭하게 되었는데, 세 기관의 합동공작이라는 대규모공작이었다.

이와같은 공작이 전개되게 된 배경에는 보안사 심사과(의식화학생들의 강제징집과 병영내 「순화교육」, 그리고 불온서클 외해 공작을 담당) 과장 S중령이 직접 대통령에게 제의하여 채택된 것이라고 한다.

전대통령이 보안사령관으로 있을 때 보안교육대 대공학 교관으로 있던 S소령(당시)은 교육대 강당에서 의식화학생 강제징집과 신입대학생 전방부대입영훈련을 골자로 하는 학병제를 제의, 전사령관으로부터 격찬을 받은 경력이 있었다. S는 전대통령 「책」으로 중령으로 진급, 대공처 내에 신설된 심사과장을 맡았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진 바와 같이 「강제징집제도」는 의식화학생들의 「순화」는 커녕 많은 「사고자」를 만들어 물의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S의 입장은 난처해가기만 했다. 대령진급심사 날은 다가오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옷 벗어야 되는 헛은 뻔한 사실이었다. 이런 S과장이 입안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것이 「평화공작」이었다.

대공침보중 「의식화관련침보」를 심사과로 돌리기 위해 내가 심사과로 가서 본 사실인데, 수사과에서 평화공작 「지원」으로 나가 있었던 어느 여성수사관은 「미사니 야유회 때문에 나한테는 휴일도 없다」는 푸념을 하곤 했었다. 수사과에서 지원 나간 여성수사관들은 이복출신인 모신부와 가톨릭계 청년들을 공작목표로 해서 영등포성당에 침투했었다.

대공침보의 확인연락처 예하부대 대공과와 매일같이 전화연락을 취하는 나에게 예하 부대원들은 「이놈의 평화공작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넋두리를 해댔다.

목표는 재일교포유학생

공작담당자가 아닌 내가 정확한 전체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렵기는 하나 서울 관할 보안부대와 심사과 직원들의 말을 근거로 추측해보면 훗날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고초를 치르게 될 민청련의장 金權泰씨, 그리고 그의 친형인 金國泰씨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 같다. 이들 형제의 만형이 월북자라는 배경과 이들이 반정부굴수분자라는 점에서 볼 때, 만약 이 형제가 북에 있는 형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등의 단서를 잡을 수 있다면 자동적으로 거물간첩이 탄생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반정부활동은 북괴의 조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S과장의 대공이론이 증명되고, 나아가서는 종교계 반정부활동을 봉쇄하고 전두환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반석 위로 올려놓는 효과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반정부활동은 북괴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다」는 S의 이론을 증명한다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다. 「반정부면 반정부지, 왜 간첩이나」는 불평이 예하부대 실무자 입에서 나오기까지 했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성과」도 없이 공작을 종결지을 수 없는 것이 S과장의 입장이었다.

S과장은 수사과에서 평화공작지원으로 나가던 L하사에게 기대를 걸기 시작했다. L하사가 쫓고 있는 북괴와 남한 종교계를 잇는 「연락책」 색출에 마지막 희망을 건 것이다. L하사는 심사과의 J라는 여성수사관과 함께 대학가를 누볐다. L하사의 착안점은 역시 재일동포 모국유학생이었다.

수사과 수사관들은 흔히 「재일동포유학생은 가장 만들기 쉽다」고 얘기한다. 사실 내가 봐온 「간첩심사」에서도 재일동포유학생은 수사관들이 「만들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었다.

6.25라는 동족상잔의 피비린내나는 역사와 격리된 재일동포사회에서 대공경각심이 모국에 비해 희박하다는 것은 인정되어야 할 사실이다. 그러한 재일동포사회 혹은 일본사회에서 자란 젊은 재일동포들은 남한의 對 북한자세에 대해 소박한 이질감을 느끼기도 한다. 「같은 동포인데 왜 그러느냐」는 것이다. 좀더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북한은 김일성독재이고, 남한은 군사독재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L하사가 북괴연락책을 재일동포모국유학생중에서 찾으려 했던 것은 대공수사관으로서의 정석을 밟으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L하사의 「근원발굴」에는 두가지의 제한조건이 붙어 있었다. 하나는 수사과나 공작과의 대상자를 제외해야 할 것, 또 하나는 대상자가 종교계와 관련이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수사관의 「침투」

그는 어느 여학생을 지목했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하는 재일동포유학생 李모양이 바로 그 목표물이 되었다(이양은 나와 같은 국문과 대학원생이었으나 전공을 달리했기 때문에 같은 강의를 수강한 적은 없다).

L하사가 그녀를 지목하게 된 경위는 이양의 하숙집에 재일대한기독교청년회 출신자들이 하숙했었고, 이양 자신이 재일대한기독교계통의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번 「梨大 탈출반 연습을 구경」갔었다는 것이었다(탈출에 대한 관심은 L하사의 논리로는 「불순성」을 뜻했다).

그는 매일 대상자들의 편지를 나에게 가져와 번역을 시키곤 했다. 감청녹음테이프도 가져왔다. 재일대한기독교 어느 교회의 바자회에서 팔 노리개를 남대문시장에서 구입해달라는 국제전화가 이양에게 왔을 때는 마냥 기뻐하는 모습이였다. 교회바자회에 내놓을 노리개구입과 「간첩」이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S과장은 석사논문 준비를 위해 연희동에서 창천동 연대 앞으로 이양이 하숙을 옮기자마자 새하숙집의 주인할머니를 포섭하고, 여성수사관 J를 이양 옆방에 「하숙」시켰다(이것을 침투공작이라고 한다).

J는 민간회사 사무원을 위장하고 이양에게 접근했다. 내가 J에게서 직접 들은 것인데, J는 「장래를 위해서 일본어를 배워두고 싶은데, 조금 가르쳐주시지 않겠어요」 하며 자연스럽게 접근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가르쳐주어서 고맙다면서 과자

봉지를 들고 이양 방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J가 공작원이라는 것을 이양이 상상이나 했을까. 최우간 이 두 여성은 아주 친밀한 친구가 되었다.

이양은 당시 장래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고 한다. 「일본으로 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대우를 못받으니까, 한국에서 중학교 선생이나 될까」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시집이나 가버릴까」 J는 그럴 때마다 이양의 푸념을 들어주고 같이 생각을 해주었다.

이상한 말이 될지 모르겠으나 J가 나에게 간혹 이야기해주는 이양과의 「우정」은 진실한 것이었다. J와 이양은 이양의 석사졸업 전에 기념으로 설악산까지 여행한 적이 있었다. 둘이서 밤에 춤추러 갔다가 어떤 남자 둘이 자기네들을 「꼬시려고」 쫓아오는 통에 혼났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물론 J의 「우정」과는 별도로 이양의 동태·연동사항은 S과장에게 꼬박꼬박 보고되었다. 「간첩같지가 않다」는 J의 의견은 무시한 채 석사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간 다음에는 다시 한국에 나올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J의 보고가 S과장을 초조하게 만들었다. 평화공작의 다른 분야의 성과도 시원치 않다는 사정이 S과장을 더욱 이양에게 집착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이양은 마침내 84년 7월 김포공항에서 L하사에 의해서 연행되었다. L하사가 낚아챈(수사관들의 은어) 이양은 심사과 분실로 연행되었다. 이양은 석달동안이나 감금되었다.

「간첩만들기」와 상사병

당시 보안사에 근무한 지 반년도 채 안 되었지만, 나는 수사과의 연행조사를 몇 번이나 봐온 경험으로 판단해서 이양은 조만간에 혼방(석방)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나와 이양은 그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연대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정치문제와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간첩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낙관은 어긋났다.

「김병진씨, 일본 東京에 있는 조총련 본부건물은 몇층이지요?」

충성전화(보안사의 전화망)로 나를 찾은 L하사는 느닷없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모르겠냐고 하나가 찾아봐달라고 하길래 어느 노수사관에게 물어본 다음 L에게 연락을 해주었다.

「4, 5층정도가 아닌가, 그러네요」

「이상하네. 본인은 3층건물이라 하는데, 뭐, 3층이나 4층이나 비슷하겠네」

나는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시간적으로 봐서 간첩으로 만들 것을 포기하고 피의자에 대한 혼방전의 교육, 즉 「의심 받은 네가 나쁘다. 그러나 전도유망한 젊은이고 자신의 부덕을 뉘우치고 있으니 요번만은 봐주고 돌려주겠다. 여기서 조사받은 것을 절대로 입밖에 내놓지 말라. 만약에 얘기하면 네 신상에 안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도 인연인지 모르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힘이 돼줄 수도 있다. 우리가 너의 은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말라」는 피의자를 혼방할 때면 틀림없이 되풀이 하는 말

을 하고 있을만한 때였다. 그런데 조총련 본부라니 웬말인가.

「L하사,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렇게 서두르지 말아요. 이○○은 북한에서 김일성뱃지까지 받아온 초일류의 여간첩이니까 조사해야 할 것들이 태산갈데요」

북괴 대남공작에는 「은밀성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대공수사관으로서의 상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양의 경우는 L하사의 말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그 원칙에 이긋나고 있었다. 대남공작원은 불필요한 북한제 물건을 절대로 소지하지 않으며, 조총련본부라는 공개된 장소를 드나들지 않는다.

사태는 명백해졌다. 심사과는 이양을 간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싫증날 정도로 이양의 편지를 번역했었다. 그리고 그녀의 편지를 본의아니게 읽음으로써 이양의 마음이 아주 섬세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섬세한 마음이 고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L하사가 요구하는 스토리에 수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나는 L하사와의 통화내용을 수사과 어느 노수사관에게 말했다. 그 노수사관은 피식 웃으면서 몇번인가 나에게 해주던 말을 다시 해주는 것이었다.

「간첩을 만들려고 할 때, 한 대상에 집착하면 상사병에 걸리고 만다. 아무리 오랫동안 수사관 해먹어도 그렇다」

사실 아무리 공작원을 침투시켜 감시해 봐도 간첩이라는 낚시를 보이는 동향은 커녕 이양은 정치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적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L하사와 심사과 직원들 말에 의하면, 「대상자의 정치적 무관심은 자신의 신분은 은

폐하기 위한 대남공작원의 기본적 행동원칙」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이야 있을 수 없겠으나 정치문제에 관심이 있어도 간첩, 없어도 간첩이라면 세상 사람 모두가 간첩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사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의 입장이 또한 그런 것이었다. 오직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양을 「혼방」시키기만을 빌 수밖에 없었다.

電氣공사, 水道공사, 土木공사

평화공작이 보안사에서는 심사과를 중심으로 전개돼 가는 한편, 수사과도 84년도의 성과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수사과장(U대령의 후임)의 진급문제가 임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과의 각 외근계는 제일동포유학생들만을 목표로 삼았다. 만약 심사과에서 실제로 평화공작으로 성과를 거두면 S과장의 대령진급은 확실한 것이 되고, 따라서 수사과장 O중령은 진급경쟁에서 탈락하고 만다.

「여러분의 상사가 누구인가. 이 O중령이다. 여러분은 나를 O대령이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 말은 수사과가 공개수사(연행조사)로 들어가기 전에 O과장이 수사과 전수사관들을 내근사무실에 모아놓고서 하던 연설중에 나온다. 그래도 모자라서 장지동 수사과분실 강당에 제상을 차려놓고 「성과거양」을 신령님께 비는 고사까지 올렸으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수사과의 분위기는 무리를 해서라도 「만들어야겠다」는 압력으로 둔갑했다. 각도를 바꾸어서 말한다면 날조를 위

한 결의가 수사과에 나돌았다는 것이다.

수사과는 84년 8월말일부터 공개수사로 들어갔다. 각 계가 가지고 있는 연행대상자중 2계의 대상자인 尹正憲씨가 고대 앞 노상에서 납치된 그날부터 하늘은 울기 시작했다. 이 호우가 그치지 않고 한강을 격노시켜 물난리를 빚었다. 잇달아 김포 공항에서 입국하려던 趙一之군 趙伸治군은 자기네 하숙집에도 못가고 장지동으로 직행했다. 각 계의 대상자 중 두명은 나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제일동포 학생 세명 모두가 간첩으로 만들어지리라고는 당시 생각지도 못했었다. 노수사관들의 좌우명인 「무리하면 안된다」는 말에 기대를 걸기만 했다.

연행된 사람들은 수사과 각 계의 1번 타자에 불과했었다. 만약에 「물건」이 안 되면 2번타자 3번타자가 줄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1번타자들은 2주일가량 「공사판」을 벌인 다음에 모조리 간첩으로 만들어졌다. 「전기공사」 「수도공사」 「토목공사」(고문의 은어)를 「시공」하는 「작업장」은 속칭 「엘리베이터실」, 정식으로 「강력심사실」이라고 하는 밀실이였다.

2계 대상자 윤정현씨는 일본에서 京都 대학을 다닐 당시 북괴공작원에게 포섭, 간첩교육을 받기 위해 북괴선박인 萬景峰호를 타고 입북한 것으로 만들어졌으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에 공작지도원의 신원을 바꾸어야 했고, 만경봉호를 탔다는 입북방법을 삭제해야만 했다.

조신치군의 경우는 「꼭 석방해준다」는 5계장의 거짓말 유혹에 넘어가 「山本」이라는 가공인물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졌다.

나는 이 이수과장에서 5계 대상자인 조일지군의 통역을 맡았다. 그 폭력의 현장에서 조일지군의 힘이 되어주는 것은 사

실상 불가능했다. 게다가 언어소통이 잘 되는 나에게 조일지군이 일말의 의리심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K계장의 지시로 「바른대로 말이 만나오면 돼지우리(「돼지 우리」는 11語로 감방을 뜻한다)로 집어넣겠다」는 말을 조군의 마음을 고립시키는 방도로서 내뱉는 쓰디쓴 경험까지 하여야만 했다.

그들을 간첩이라고 의심해야 할만한 뚜렷한 용의점은 없었다. 물론 물적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가장 만들기 쉬운 「재일동포모국유학생」이었을 뿐이었다.

간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간첩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 실상에 대해서 요약해보자.

기관에서 쓰는 용어이지만 「대공취약자」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적(북한)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뜻인데, 대충 다음과 같은 부류로 나뉘어진다.

◇월북자—6·25 혹은 그후에 월북한 자로서 북에서 남파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행불자—월북가능성이 있어서 월북자에 준해서 본다.

◇남북귀환어부—남북시 적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부역자—타의든 본의든 과거 적에 협조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적과의 연계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밀항渡11자—일본밀항시 제일조총련 등 적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조총련연고가족, 월북자연고가족, 정보사법전과자—사상적 불순성 때문에 적

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반공포로—6·25휴전 후의 포로교환시 남한잔류를 희망한 자로서 위장잔류 혹은 그후에도 적과 연계될 가능성을 본다.

물론 이외에도 더 있다.

보안사 수사과 내근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는 이러한 「대공취약자」들의 신원리스트가 입력되어 있어서 매일 바뀌는 패스 워드만 두드리면 열람할 수 있다. 화면에는 「대공인물」이라는 리스트로 나온다.

여기 나오는 인물들중에서 실제로 간첩으로 만들어지기 쉬운 것은 남북귀환어부들이었다. 조업중의 월경이 북한에서 남치해가는 이유이지만, 북한에서 남한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할당이 있는 모양이어서 월경남치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듯 했다.

남북된 어선이 남한으로 돌려질 때면 메스컴들이 어부들을 인터뷰하고 북한을 비판하는 말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국민들도 잘 아는 터이지만, 그러한 행사가 끝나면 어부들은 인천 혹은 속초시내의 어느 여관에 감금되어 안기부 치안본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한 합심(합동심사)을 받아야 한다.

보안사 수사과에서도 그 심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정해지고 있어서 그의 말을 들어보면 「남귀어부」들에 대한 동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심사」라는 것은 고문이기 때문이다. 재북중에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지령을 받았는가를 심사한다는 것이지만, 그렇게 폭력을 당한 후에도 그들은 시찰대상자가 되어 기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북한 여자는 미인이더라」고 말했다는 것이 단서가 되어 간첩이 된 남귀어부가

있었고, 강원도 탄광촌에서는 파업에 가담한 남귀어부가 「북괴지령사항을 실천했다」 하여 간첩이 됐다.

내국인 용의자의 경우 내근사무실에 앉아 있는 내가 조사과정을 목격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수사관들의 「고생담」(입장을 바꾸면 피의자들의 「수난담」이지만)을 들어보면 재일동포들이 허위에 타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과 대동소이했다.

늘어난 公証時效

말로 들은 이야기지만 나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월북자 연고가족인 전남출신 羅모씨의 간첩사건이었다(나씨는 아직도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씨의 누님이 6·25당시 남편 따라 월북했던 사람으로서 그후 고향인 海南에 출현, 동생인 나씨를 대동 입북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당초 전남관할 보안부대에서 첩보보고로 사령부 수사과로 올린 것이었으나 수사과 5계가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5계 수사관들의 말에 의하면 나씨는 「지독한 놈」이었다. 한겨울 알몸으로 밖에 내놓고 얼어붙게 해도 자백을 안했다고 한다. 고추물을 먹여도 안되고 전기에 달아봐도 안된다고 했다.

어떤 연유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나씨를 일단 석방했다. 나씨는 당시 서울에서 어떤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본의 어느 회사와 거래가 있었는데, 거래전화는 일본어로 하기 때문에 그 감청 테이프를 내가 번역했다. 5계가 기대한 것은 일본을 경유한 연계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통화에는 상거래 얘기 말고는 별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씨는 다시 연행되었다. 나씨의 입북이 사실이라 치더라도 1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료돼 있었다. 5계는 나씨를 「계속범」이라고 조서를 꾸미고 송치했던 것이다. 나씨의 바로 밑의 동생되는 사람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관 판단으로 「공소유지가 어렵다」 하여 기소유제가 되었다.

수사과 내근사무실에는 법무관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다. 이 사람은 사건이 없을 때는 「계엄하에서의 법운영체제」를 상부의 지시로 연구하고 있었는데, 나씨사건이 있는 후에는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연구도 하명됐다. 내가 근무할 당시 무기 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30년으로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었는데, 요즘의 한국법전을 뒤져보니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개정되어 있었다.

장지동 수사분실에서 재일동포학생들의 송치작업이 시작됐을 무렵이었다.

평화공작을 지원하고 있던 L하사를 위시해서 심사과 직원들이 수사분실로 들어왔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서 L하사에게 물어봤더니 「처장님 재가를 얻어 이양과 高順子の 조사를 여기서 하게 됐다」는 것이었다.

고순자 역시 재일동포유학생으로 고려대 대학원에 재학중이었는데, 이양과의 「접촉인물」이라 해서 연행된 것이었다(그녀는 후일 일본에서 자신에게 가해진 고문을 폭로한 바 있으므로 實名으로 표기하겠다). 이양을 「물건」으로 만들지 못할 경우 일본에서 재일한국학생동맹에 소속한 바 있는 고순자라도 물건을 만들어보자는 속셈으로 심사과는 고순자를 연행해 왔던

것이다.

美製 소형 전기고문기

나는 나의 불만을 거리낌 없이 L하사에게 표시했다. 수사과에선 심사과의 무능함을 비웃고 있었으며, 나 자신이 소속하는 수사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 표시가 가능했던 것이다.

「L하사, 아직 결혼 안한 거예요?」

「쇼부는 지금부터다」

L하사는 신경질적 어투로 한마디 하고 나서는 그녀들이 수송되어 있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나는 기계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누구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지만, 지하실의 TV모니터 스위치를 틀었다.

공작과의 여군중사 C가 이양에 대한 심문을 시작하고 있었다(C는 처장 지시로 심사과를 지원하고 있었다).

「너는 여자냐, 남자냐」

「여잡니다」

「그 정도 알 수 있는 인간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앞뒤가 안맞아... 그러니까 북한에 가서 김일성뱃지를 받고 조총련 본부에서 교육 받고... 그리고...」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이양은 L하사가 들어오는 것을 결눈질로 힐끗 보더니 의자에서 일어나 떨리는 몸으로 뒷걸음질을 했다. L하사는 미제 소형전기고문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떨고 있는 이양에게 「아직 바른대로 대지 못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철재책상에 불꽃을 쬐었다. 이양은 「끼악!」하고 짧은 비명을 질렀다.

그날 밤 자정이 가까워진 때였다. 대공 처장이 수사분실로 들어왔다. 송치작업을

독려하고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그의 입에서는 술냄새가 평평 쏟아졌다.

나는 다른 수사관들과 기계실에 있었다. 어느 수사관이 모니터 스위치를 넣었다.

소장실이 화면에 나타났다.

화면 안에서 C처장이 수사관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C처장이 주연을 벌이고 있는 그 시간에 분실 피의자수용동에서는 다섯명의 재일동포학생들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미스 C 에인 없어? 없으면 좋은 사람 내가 소개 해줄까? 응? 어때!」

이양을 남자와 같은 말투로 심문하던 여성수사관 C가 「호호호」 하면서 웃었다. 그 대화에 이어서 수사과 O과장, 심사과 S과장, 그리고 각과의 계장들과 다른 여성수사관들의 웃음소리가 소장실에 넘쳐흘렀다.

그 주연에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었다. S심사과장이었다. 그는 수사과가 가지고 있는 「在日협조망」을 심사과 대상자들의 수사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C처장에게 부탁하곤 했었다.

「재일협조망」이라는 것을 보안사는 여러 루트로 가지고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믿음직한 협조망은 일본의 깡패 오야붕인楊모와 일본 경시청을 정년퇴직한 한 일본인 콤비였다. 그들은 수사과 2계의 협조망으로서 그들의 손발같이 잘 움직였다.

그들이 보내오는 수사자료는 물론 내가 번역했고, 일본 관공서에서는 반출금지로 되어 있는 외국인등록원본 카피까지도 일본 경찰의 협조로(정식수사의뢰가 아님) 보내왔었다.

「平和工作」의 종결

일본인 형사와 재일한국인 깡패, 그들과의 보안사측 창구가 되어 있는 사람은 2계의 J준위였다. 그는 일어를 구사할 수 있어서 위장신분으로 일본을 드나들고 있다. 이른바 「출장수사」라는 것이지만, 하는 일이라야 피의자들 입에서 나온 다방이니 식당같은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하는 일 등이었다. 또 윤정현씨 사건과 관련하여 보안사협조망인 한국인 K를 시켜 윤씨 친가에 가서 윤씨의 책장을 뒤져보는 일같은 일들이다.

서대문구치소에서 피의자들의 신병을 인수받기 위해서 장지동으로 교도관들이 왔다. 석방해준다는 말을 끝까지 믿고 수사관들의 유도심문에 응했던 조일지군은 포승줄로 꽂꽂 묶였다. 그는 억울함과 분함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심사과가 연행한 여성들은 다행히 「훈방」되었다. 마사지와 약으로 치료하고 명든 자국이 지워진 다음에야 석방되었다. 심사관은 결국 「물건」을 못만들었던 것이다. 심사과는 의식화학학생들의 「순화」만을 해온 부서로서 간첩 만드는 데에는 도사가 못되었던 모양이었다. 수사과 어느 노수사관의 말마따나 「개네들

을 간첩으로 만들고 싶었으면 김일성뱃지니 조총련본부니 하는 얘기는 만들지 말아야지. 정체불명의 북괴공작원에 포섭된 간첩이라고 해놓으면 될 걸... 공소유지가 어렵다면 공소보류시켜도 한건 한 셈이 되는데, 명칭한 것들!」이었다.

고순자씨는 일본으로 가자마자 보안사의 고문을 규탄했다. 이양은 그후 소식을 못들었으나, 여자의 몸으로 석달씩이나 연금되고 고문당했으니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않았을까 걱정되기도 했다.

수사과에서 송치한 3명의 재일동포「간첩」들은 서울지법에서 징역 7년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조신치군만은 간첩죄에 해당하는 부분의 재심청구가 통과되어 찬양고무죄(반국가단체에 대한 동조)만 적용되어 2년의 옥고를 치른 후 일본으로 왔다. 자신이 간첩이 된 배경을 알아보려고 나를 찾아온 그에게 찬양고무라고 인정된 언동사항의 사실여부를 물어봤다. 「북한은 지상의 낙원이다」라는 소리를 했느냐는 나의 질문에 조군은 발언사실을 부인했다. 윤정현씨와 조일지군은 올해 6월말에 「가석방」되었으나 4년세월을 허송하고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것이다.

「평화공작」은 이양과 고순자의 석방으로 종결지어졌다. 「그간 수집한 정보를 각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키라」는

보안사령부에서의 체험

보안사에 의해 엄청난 고문끝에 간첩으로 조작되었고, 협박에 의해 보안사요원이 될 수 밖에 없었던 金丙鏞이 목숨을 걸고 밝혀낸 충격폭로!!

전화:337-9767(대) 도서출판 소나무

보안사

단서를 붙이고 종결됐다.

S심사과장은 진급에서 탈락했다. 대신 O수사과장은 그렇게도 갈망했던 대령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보안사 대공처 심사과는 해체되고 학병제관련업무는 정보처가 인수했다.

악착같은 조작극

나는 보안사가 가지고 있는 도구에 불과했다. 보안사 수사관이라는 엄연한 신분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숨기고 검거간첩으로 다른 제일동포피고인들 공판에서 검사측 증인을 서야만 했다.

나는 다시 밀항을 생각하게 되었다. 고민 끝에 일본 어느 신문사 특파원을 접촉 하였으나 밀항하는데 도움을 청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했다.

85년 5월 내가 5계 K계장으로부터 분실로 나와달라는 호출을 받았을 때는 토요일이었다. 피의자는 일본에 사는 43세의 제일동포 柳모씨였다.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수첩내용을 조속히 번역해야 된다」는 지시를 받은 나는 수첩번역만 하고 분실을 떠나려 했다. 「간첩심사」라는 것에 깊이 관여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한국어를 모른다」는 현실 또 나를 통역관으로 만들었다.

유씨는 民團 모지부의 총무부장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두번의 단장선거에서 현직단장측 선거참모로 활약했다. 그것이 단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전 민단 단장 Y씨와 그의 추종자들의 미움을 샀다. Y씨는 몇차례 안기부에 「유는 간첩」이라고 찢었으나 개인적 감정에 의한 허위신고임을 간파한 안기부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자 보안사 K계장에게 다시 찢

르게 되었다. 그는 기막힌 모략극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

유씨가 맛봐야 했던 고문은 그가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였던 까닭에 내가 봐온 그 어느 피의자들보다 지독한 것이었다. 기절을 세번 했고 병원에도 드나들어야 했다. 그의 발바닥은 몽둥이로 몰매를 맞아 검푸른 색으로 부어 고름까지 흘렀다. 견지도 못하는 유씨에게 눈가리개를 하고 「처형한다」고 넌지시 공갈을 주던 K계장의 모습은 잊혀지지 않는다. 별거벗긴 피의자를 각목에 달아올리고 고추물을 먹이는 현장, 그 현장을 지켜보는 나 자신도 정신이 돌아서 버리는 것만 같았다.

사실 3년이 지난 오늘 냉정히 생각해보면 나는 정신이 이상해지고 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유치한 방법으로 스토리를 꾸며가는 수사관들의 모습과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 유씨의 모습은 나에게 「그를 살려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게 하였으니까 말이다.

나는 수사관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날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고 그와 의논하곤 했다.

내가 군법회의에 회부될 각오도 해봤다. 「당신 입장도 생각지 않고 남을 살려주려면, 나와 얘기를 죽인 다음에나 해요」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처의 불안과 고민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나는 그를 살려주어야만 했다. 그를 살려주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유씨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신병은 서대문 구치소로 이감되었다. 「입북간첩」이라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송치했었으니 그가 공판에서 아무리 결백함을 주장해봐

도 거의 틀림없이 「사형」을 언도하게 돼 있었다.

다행히 유씨와 나의 작전은 적중했다. 유씨가 검사 앞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함과 거의 동시에 「입북」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일본변호사의 서류가 도착한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유씨의 「사건」이 날조임이 증명되었다.

유씨는 당연히 무죄석방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서울지검 J검사와 보안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공소보류」로 결론이 났다. 그는 결국 봄에 왔다가 가을에야 겨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한국의 공안기록에는 어엿한 검거간첩으로 기록되었다.

「다시는 한국에 갈 생각이 없다. 또 만약 약에 내가 간다고 해도 가족들이 허락치 않을 것이다」

일본에서 만난 유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유독 유씨뿐만 아니라 정보공작의 희생물이 되어 조국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제일동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일이다.

고국을 떠나면서

1985년 11월 나의 공소보류기한이 만료됐다. 같은 「범죄」로 형사소추를 안받아

도 된다는 것이다. 참아온 2년이 겨우 지나갔다. 보안사는 나를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 것이다.

나는 나의 「퇴직」을 위한 사전운동을 전개했다. 2년간이나 매일 얼굴을 맞대오던 수사관들, 특히 노수사관들 사이에서는 나에게 대한 동정론도 있었다. 이러한 운동이 필요했던 배경에는 나를 풀어주고 싶어하지 않는 보안사 간부들의 속셈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핑계를 댔다.

「생계도 어렵고, 공소보류 기한만료로 계기로 새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

「처의 두번째 해산을 일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일본으로 가겠으나 대학원에 복학해야 되니까 나만은 즉시 재귀국하겠다」

「앞으로는 민간인으로서 보안사에 협조하겠다」

나는 나름대로 만든 시나리오대로 수사관들을 설득했다.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나의 퇴직은 인정되었다. 나는 1986년 1월말일 퇴관신고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년반동안이나 압수되고 있던 여권을 되찾을 수 있었다.

비행기를 타면서 마지막으로 본 조국 강산이 아직도 내 눈에는 선하다. 언제 다시 밟을 수 있는 땅인가 생각하니 처

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86년 2월 1일 大阪에서 비행기를 내린 나는 그날 밤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대학동기 친구에게 『역적이 되고 싶지 않다』는 약속을 꼭 지켜야만 했다.

87년 2월 가끔 연락을 취하던 보안사가 다시 나에게 접촉하려고 했다. 대우 좋고 괜찮은 직장도 마련해놨으니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으로 도망온 나에게서는 경제적 안정은 매력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었다. 끝을 맺지 못했던 원고 일부를 정리하고 어느 신문사 주간지에 투고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그 원고가 다행히 우수작으로 뽑히고 이 수기를 간행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구시대의 비리 종식시키자

나는 내 조국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현실에서 바라든 안바라든간에 국가의 정보활동이 요구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그러나 고문과 협박, 그리고 모략을 일삼는 일부의 행태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말 대한항공기 폭파실종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행기가 이미 폭파된 다음에야 북괴대남공작원 김현희를 잡는 우리의 정보기관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아직도 가난한 우리 조국에서 그들에게 배푸는 포상금등의 국가예산이면 대한항공기 폭파실종사건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차원 높은 활동이 가능했을 것이다.

내가 쓰는 글이 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자의 「반국가적 행위」로 처단될 수도 있음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해두겠지만, 나는 우리 겨레와 내 양심 앞에 죄 짓지는 않겠다. 서투른 글이나마 우리의 역사가 내게 내린 소명에 응답하기 위해서 펜을 잡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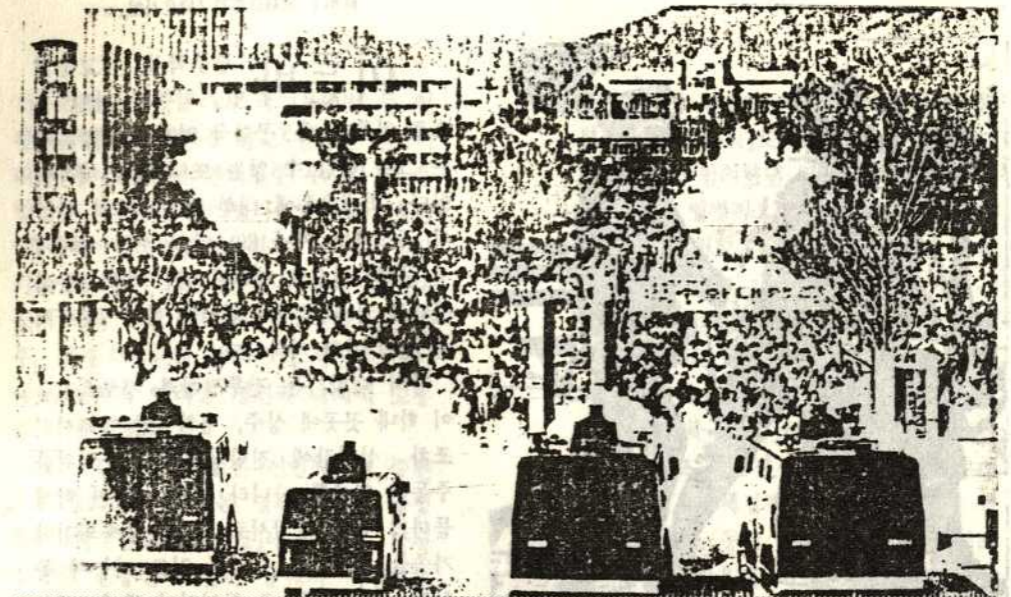
이제 내가 하여야 할 일은 나의 경험과 목도한 사실들에 바탕하여 지난 날의 불행했던 시대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구시대의 비리를 청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리운 조국을 찾아가 내가 직접 입을 열 용의가 있다.

조국을 떠난지 벌써 2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은 부모의 말은 한국어로 듣고 대답은 일본어로 하는 이중언어 생활자가 되었고, 처의 일본어도 제법 익숙해졌다. 일본에서 태어난 딸은 조국을 모르면서 커가고 있다.

모국어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이곳 재일동포들의 현실과 그 사고방식에 국어학도의 한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저항감을 느낀다. 또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조국의 문화권에서 어쩔 수 없이 격리되어야 하는 이곳 재일동포들의 모습에서 지난 근현대사의 우리 겨레의 비애를 느낀다. 재일동포가 아무 거리낌 없이, 즉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일 없이 자유로이 조국을 오가면서 새로운 재일동포의 미래상을 창조해 나갈 수 없는가 하는 바람이 더욱 간절해진다.

마지막으로 영어의 몸으로 이 순간도 한국 어느 교도소에서 지내고 있을 재일동포 李哲씨의 다음 말을 인용하면서 이 글을 끝맺을까 한다.

「일본에서 멀리 받고 조국이라 찾아와 보니 감옥이었읍니다」■



眞相! 強制徵集과





이른바 「광주학살」 「고문살인」 최루탄 남발 등으로 얼룩진 제5공화국 역사의 비망록에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또 하나의 대목이 있다. 학생운동에 대한 정부당국의 탄압이 극심했던 지난 80년대초 소위 학내에서 문제학생으로 지목된 젊은 대학생들이 강제로 군에 끌려가 겪어야 했던 「비극적 운명」에 관한 기록이다.

당시 대학가는 전투경찰과 정보요원들이 학내 곳곳에 상주, 평화적인 학내시위조차 삼시간에 진압당했으며, 시위를 주도한 학생뿐 아니라 단순 가담한 학생들까지 관할 경찰서로 연행, 구속되거나 가족들 친구들과 석별의 정도 나누지 못한채 곧바로 군으로 끌려가야 했다. 사회

「綠化사업」

安 基 碩

전반적인 분위기도 정부당국과 매스컴의 주도로 학생운동을 「좌경화」로 몰고 갔으며, 학원의 좌경화를 막고 사회안정에도 모해야 한다는 명분위에 「제적-구속」 「지도휴학-강제징집」이라는, 학생운동을 탄압한 두개의 장치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80년 5·17이후부터 83년까지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학원으로부터 추방당한 학생들은 모두 1천8백여명. 이들중 1천3백63명이 제적 또는 투옥되었고 나머지는 강제징집되었다. 전자

「강제징집된 젊은 대학생들이 자살했다 해도 그것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영향력있는 학생들을 분리, 죽음의 구렁텅이에 처넣은 것입니다」

가 적어도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헌법상상의 적법절차를 밟고 진행된 탄압이라면 후자는 이에 관계법을 무시한 채 은밀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이들은 소위 「특수학적변동자」라는 붉은 낙인이 신상기록카드에 찍힌채 군수사기관의 감시대상이 되었으며, 순화와 공작대상으로 간주, 군수사기관에 불려가 20세전후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최근 발표된 한 젊은 신인작가의 중편소설 「정도상작」 「친구는 멀리갔어도」, 풀빛출판사 「밤길의 사람들」에 수록)은 강제징집된 운동권 학생이 군에서 직면하게 되는 체험이 어떠한가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 읽는 이들로 하여금 충격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 글은 강제징집실태에 대한 각종 보고서와 국회속기록 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증언자들과 직접 인터뷰하거나 당사자들이 직접 써서 건넨 손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이들 증언자들은 현재 회사원 학생 출판업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아직까지 육체적 정신적 상흔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떠올리기도 싫은 고통의 기억들을 되살리며」 성실하게 증언해 주었다. 이름이 보호되어야 할 사람은 이니셜을 사용하기로 했다.

진혼비를 돌려달라

지난 4월6일 오후 1시경 고려대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는 「진혼비를 돌려달라」는 이색집회가 열려 오가는 학생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날 집회는 애당초 고려대 대강당에서 학교대표 평교수대표 학

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혼비복구를 위한 공개토론회」로 가질 예정이었으나, 참석하기로 합의했던 학교측 대표들이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함으로써 진혼비 복구를 위한 결의대회로 성격이 바뀌어버린 것.

이날 학생회관 전물에는 「구국의 피땀 흘린 진혼비여, 너 다시 안암땅에!」(고려대 총학생회 명의), 「민족고대 단결하여 진혼비를 복구하자」(고려대 복교복학대책위원회)라고 씌어진 대형 현수막이 드리워졌으며, 「강제징집 서러운데 진혼비 철거 웬말이나」 등이 씌어진 피켓들이 여러 개 등장한 가운데 허인회(전고려대학회장) 등 학생들이 학교측을 성토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평교수대표로 참석한 윤용교수(신문방송학과) 이상신교수(사학과)도 학교측을 비판하는 한편 철거했던 진혼비를 즉각 제자리에 복구할 것을 요구해 학생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올해 고려대 총학생회가 들어서자마자 복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혼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진혼비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난 81년 11월9일 발생한 세칭 「고려대 문무대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2차례에 걸쳐 문무대에 입소한 고려대 1학년생들이 문무대 일부 장교들과 마찰, 한 장교가 학생들을 구타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문무대 운동장에 집결, 군사집체훈련에 반대하는 내용의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를 순서에서 교가를 불렀다. 그후 교육기간중 유격훈련을 거부하는 등 마찰을 빚다가 퇴소했다. 이 사건으로 학교측은 제적 19명, 무기정학 1명, 직권휴학 89명 등 1백9명을

징계했고, 이들 대부분은 강제징집되고 말았다.

그후 이들은 「특수학적변동자」로 취급, 전방에서 군복무를 마친 후 85년에 복학하게 되자 자신들처럼 강제징집되었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학생들의 진혼비를 만든다. 이 비는 그해 4월17일 민주광장에 전국학생연합 결성식과 더불어 세워졌으나, 4개월이 채 안된 7월23일 밤 경찰에 의해 강제철거되어 버렸다. 문교부가 「2학기 학내 소요에 선별적 공권력 투입」을 발표했던 날이었다. 며칠 뒤 진혼비가 철거된 자리에서 운용교수가 피약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자를 놓고 앉은채 「항의성 독서」를 해 당시 신문지상에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다 학교를 떠난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학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던 이 진혼비에는 뒷면에 문무대사건 관련자 1백9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앞면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김두황(고려대) 정성희(연세대) 이윤성(성균관대) 한영현(한양대) 최은순(동국대) 한희철(서울대)

「의문의 죽음」 알려지다

그들의 죽음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84년 3월8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제적생과 해직근로자를 위한 기도회」석상에서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위원회가 「인권소식」을 통해 6명의 사망학생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토로했던 것이다.

이미 그 전해인 83년부터 대학가에서는

학업도중 강제로 군에 끌려간 동료대학생들의 신변에 대해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다. 소위 운동권학생들로 지목되어 군에 강제입영한 대학생들은 최전방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면서 군보안대의 계속적인 감시를 받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으며 때로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는 것.

당시 이러한 소문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믿기 힘든 유언비어로 치부되었을 뿐 아니라,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군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될 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3년 12월21일 학생운동에 대해 탄압 일변도를 견뎌던 정부당국이 그동안 양산된 제적학생들에 대한 복교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각 대학 복교 대상자들이 결성한 복학대책위원회들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마련한 각 대학의 제적생총회 공청회 자리에서 대학생들은 구체적인 강제징집실태와 군에서의 비인간적인 취급, 정보제공 강요, 관제프락치공작 등에 대해 성토했으며, 강제징집당했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학생들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84년 2월20일 한국기독교교회총연맹(KSCF)과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가 공동주최한 「진정한 복교를 위한 공개간담회」가 경찰의 장소폐쇄로 무산되자, 이날 간담회장소인 기독교회관 2층에 미리 들어와 있던 제적학생 1백40명이 강제징집 철폐와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학생들의 사인 진상규명을 관제당국에 요구하면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그들은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등에도 사인 진상조

시위원회의 구성 및 합동추모식을 거행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제적학생들의 요구와 호소에 호응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 전국연합회는 성명을 발표, 최초의 공식반응을 보였고, NCC인권위원회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망학생 명단을 발표, 사회문제화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독교교회총연맹 대한가톨릭학생전국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명동천주교회청년단체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지도휴학-강제징집-녹화사업-정보제공강요-의문의 죽음」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과정이 5·17이후 실제로 존재해왔다면 이는 단순히 학원문제나 사회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정치책략화하는 반민족적 행위이자 한국의 인권상황의 비상사태」라고 판단, 공동조사에 착수하여 「강제징집문제 공동조사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사망자중 5명은 강제징집자들

이 보고서는 서울의 7개 대학(서울대 성대 고려대 연대 서강대 외대 경희대)과 전남대 등 모두 8개 대학의 복학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입수 분석하고 보고내용의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사망자의 유류품(편지 일기장 유서)을 수집, 분석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당시 나온 여러 조사보고서중 가장 방대하고 내용이 자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국 잡지에 번역 게재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군입영중 사망한 학생들에 대한 신원, 사망여부, 입대배경과 과정, 사망당시의 정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영현(1962년 3월1일생) 81년 한양대 기계과에 장학생으로 입학, 대학 1학년때 민속문화연구부에 가입 활동, 2학년때 부천에서 야학모임에 가입했으나 별활동은 없었다. 83년 1월 중순경 부천의 야학에서 활동하던 한 선배가 연행, 조사과정에서 한군의 이름이 나와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받음. 조사가 끝난 후 4월1일 수원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녹화명으로 병종 판결. 그러나 이튿날 경찰출두 명령을 받고 나간 뒤 행방불명되었다가 2,3주후에 한군의 옷이 집으로 우송되어 가족들은 군에 강제징집된 것을 알게 됨.

한군은 입대후 훈련소로 가지 않고 4월 10일에서 18일까지 직접 군수사기관에서 그동안 활동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5월에 자대배치받고 6월18일에 포상휴가를 받아 나왔다가 귀대후 7월2일 부대로부터 전보로 자살통보. 몸이 불편한 형이 가서 시체를 확인, 두개골이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군부대측의 말은 「6월30일 밤 탄환을 쏘쳐서 다음날 사역도중 오전 10시에 식사하고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으나 조금후 병커에서 총소리가 나서 가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 사망 당시 21세.

▲김두황(1960년 6월23일생) 1980년 고려대 정경계열에 입학. 유복한 집안의 3남3녀중 3남으로 태어나 항상 명랑하고 매사에 성실하여 주위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학년때부터 경제학과 학회를 담당하면서 심포지움 및 강연회 등을 준비하고 학내활동의 활성화 민주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

4학년이 된 83년, 김군을 중심으로 학내 학회 서클 회장들이 축제 및 학도호국단 선거, 4·19행사 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 방향성과 대안 등을 계획하던 중 그해 3월8일 성북경찰서에 연행된다. 7~8일 동안 조사를 받고 3월15일 저녁에 석방되었다가 16일 저녁 부모와 함께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 18일 아침까지 미시간 호텔에서 형사들과 동숙(부모들은 다른 방에 있었다고 한다). 18일 아침 병무청 직원 1명이 와서 간단히 서류를 작성하고 강제징집되어 〇〇〇보충대에 입대.

김군의 군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 없다. 1983년 3월18일부터 6월18일 사망일까지 약 1백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외출 한번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훈련소에서의 훈련성적이 우수하여 사단장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이 밝히는 바에 의하면 김군의 사망일시는 6월18일 오후 11시30분. 6월19일 새벽 군에서 집으로 연락이 와 사고현장에 가족들(형 두분 매형 두분)이 도착한 것은 오후 3시. 당시 현장의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일체 합구했으나, 두부가 없어진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함. 군에서는 「김군이 아침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 입은 후 저녁에는 밥과 누룽지 빵 등을 먹고 동료 2명과 함께 경계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지로 갔다. 근무중 동료에게 「소변보러 간다」고 한 후 나가서 잠이 있다가 총성이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 김군의 유품으로 볼펜과 사진 한장(군에서 찍은 것), 시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고 하나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망 당시 23세.

총소리를 들었을 뿐

▲정성희(1962년 6월14일생) 81년 연세대 영독분계열에 입학, 한 서클에 가입하

여 활동. 그해 11월25일 연세대 교내시위 현장에서 동료 15명과 함께 연행, 5일후에 가족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군에 강제 입대. 82년 6월8일 첫 휴가 나와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훈련소에서의 생활과 보안대의 감시 등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후 귀대한 지 1달후 군에서 사망통보가 날아와 정군의 부모는 진방으로 달려 갔으나 「82년 7월24일 새벽 0시30분경 철책근무중 목에 M16 소총 4발을 발사해 자살했다」는 통보와 함께, 유서는 없으며 「백양로를 한번 더 걸어보고 싶다. 죽음 앞에서 내가 이렇게 담담하다니」등 8줄 정도의 낙서만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시체확인시 목 이하는 피날로 싸여 있어 보이지 못하고 얼굴만을 보았는데 매우 깨끗한 얼굴이었다고 한다. 군에서는 당시 전방훈련차 와있던 조선대 2년생이 자살의 목격자라고 했으나, 가족들의 면담 결과 그 학생은 총소리를 들었을 뿐 구체적인 상황은 분명히 모른다고 했다는 것. 사망 당시 20세

▲이운성(1964년 1월3일생) 5년1남중 3대독자로 태어난 이군은 경기고등학교 재학시절 웅변반에 가입, 서울역광장에서 일반인들이 모인 가운데 웅변연습을 할 정도로 활달하며 개방적이었다. 1981년 성균관대 역사철학계열에 입학, 2학년때 인문과학연구회라는 서클의 회장직 맡음. 82년 11월3일 학생의 날 가두시위때 다른 많은 학생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던 중 서클회장이라는 것이 밝혀져 11월7일 새벽 신체검사도 받지 않고 군에 강제 입대. 당시 이군의 부친은 고령(60세가 넘었음)이었으며, 3대 독자인데다 시력이 몹시 나빠 보통의 경우 현역입영 대

상자가 될 수 없었다.

그는 입대후 건강하게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3년 1월10일경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만회갔을 때. 이군은 「내가 여기서 편발을 제일 잘먹고 있으니 걱정 말라. 후배들에게 열심히 살아달라고 해라」는 등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그러나 제대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5월말경 이군의 부모는 군당국으로부터 이군이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는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군이 복귀에서 날려보낸 편라의 일종인 「안전보장증」을 갖고 있다가 발각되어 죽기 직전까지 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군 수사기관에서는 조사가 끝난 후 자대로 돌아가 혁대로 목을 매 죽었다고 하나, 시신처리나 죽음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가족들은 일체 합구,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망 당시 19세.

▲한희철(1961년 2월11일생) 1남4녀중 외아들로 태어난 한군은 79년 서울대 공과대에 입학, 서울대 가톨릭학생회와 성남대학생연합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했다. 82년 4학년 2학기때 휴학을 하고 그해 11월30일 입대, 명랑한 성격과 활발한 적응력으로 성실하게 일해 군간부들에게도 호감을 샀다고 한다. 군생활중에 포상휴가를 두번씩이나 나왔고 정식휴가는 83년 10월24일경 나왔는데 친구들에게 「늦어도 한달 후에는 의가사 제대를 하니 학교를 마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귀대 후 한군은 군보안대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직접적인 계기는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때 학생운동으로 도피중인 김무현이란 친구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는 쪽지를 전봉일이라는 방위병친구에게 부

탁하는 편지가 발각되었기 때문. 한군은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학 1년부터 최근까지 활동상황에 대한 자술서 40여장을 썼고 5일째 되는 날 반성문과 서약서까지 쓰고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군이 속한 가톨릭학생회 지도신부와의 면담과정에서 군수사기관이 조사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밝혀졌다.

그해 12월11일 자살했다는 연락을 받고 부친이 시체를 확인했을 때 한군이 가슴에는 세 발의 총상이 나 있었다고 한다. 군부대측에서는 12월11일 새벽 4시30분경 보초를 자진 신청하여 M16소총으로 자살했다고 말하면서 타이핑된 유서를 건네주었다. 그날 오후에 치러진 영결식에는 자살한 사병에 대한 예우로는 볼 수 없는 군악대와 예포가 동원되었다. 사망 당시 22세.

▲최은순(생년월일 미확인) 81년 동국대 사범대 수학교육과에 입학, 83년 3월말 시위에비음모로 5명의 동료와 함께 경찰에 연행된 뒤 강제징집됨. 입대 후 몇개월 후인 83년 8월14일 사망. 군관계자의 말로는 최군이 고참사병과 함께 보초근무중 사소한 언쟁끝에 시비가 발생, 최군이 「나는 인생이 끝장난 놈이다」며 고참에게 대들면서 총을 뺏으려는 순간 고참이 오 발했으며 최군의 목을 관통했다고 함.

국회에서 문제삼다

대학생들과 종교·재야 운동단체들이 강제징집과 「의문의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당시 민한당 국회의원이던 김병오씨는 84년 3월8일 121회 임시국회 본회의 석상에서 성균관대 학생 이운성군과 최경식군의 불법적 입

영조치 여부, 강제징집 여부, NCC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6명의 사망 여부, 속칭 「綠化사업」 및 관제프락치공작의 사실 여부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이날 답변에서 권이혁문교장관은 「5·17이후 데모와 관련 군에 입대한 학생은 모두 4백65명」이라고 밝혔을 뿐 더 이상 자세한 대답은 하지 못했다.

또한 3월12일 당시 민한당 국회의원이던 손세일의원이 국회 문공위원회에서 재차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권문교장관은, 「병역과 군복무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사태관련 입영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복무중에 사망했다는 6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추모집회 잇달아

한편 84년 봄 각 대학과 종교단체에서는 이 문제를 여론화하는 집회가 잇달았다.

주요 집회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월 20일, 홍제동 성당에서 대학생 제적생 유가족 등 1천여명이 모여 한희철군 추모미사 드림.

▲3월 30일, 서울대 학도호국단은 오후 1시반 교내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학생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희철군 추모제가짐.

▲4월 3일, 성균관대생 1천 5백여명이 낮 1시부터 동교 금잔디광장에서 이운성군의 추모식을 갖고 열을 시어 교내를 돈 뒤, 교문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경대원과 대치하며 2시간에 걸쳐 교내 시위.

▲4월 17일, 고려대생 2천여명이 김두환

군의 추모식을 교내에서 갖고 가두시위.

▲5월 4일, 고려대에서 6개 대학 학원자율화 추진위원회 공동주최로 강제징집희생자 합동위령제 가짐.

▲5월 19일, NCC인권위원회 주최로 한국 기독교청년협의회 등 9개 단체가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강제징집되어 군에서 사망한 6명의 대학생을 위한 추모예배」 가짐.

마침내 강제징집문제,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6명에 대한 문제로 학원이 들끓게 되자 윤성민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학적변동 군입영자」 사망경위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했다.

「81년 이후 현재까지 학적변동 사유로 군에 입영하여 사망한 인원은 자살사고 4명, 군기사고 1명 등 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학적변동과 관계없이 가정사정으로 자진휴학하여 자원입대 근무중 자살사고로 사망한 1명을 포함한다면 모두 6명이 되겠습니다」

이어 윤국방장관은 이들의 죽음은 특수학적 변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심리갈등과 군기사고로 빚어진 불행이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운성군 한희철군이 특별한 일과 관련, 군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인정했다. 또한 군입대와 관련, 한희철군에 대해서는 「자진휴학」「자원입대」라는 표현을 썼던 데 비해,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휴학」「입대」라는 표현을 써 강제징집에 대한 가능성을 간접 시사하기도 했다.

윤성민국방장관의 답변이 84년 6월 12일자 신문에 보도되자 강제징집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던 5개 단체와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대한예수

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전국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즉각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는 반박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윤장관은 6명의 강제징집 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근본적인 원인인 소위 「녹화사업」을 은폐한 채, 불법적인 강제징집 자체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현정부는 앞으로도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강제징집 불법성의 사례 녹화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그리고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즉각 중지와 관계 책임자 처벌, ▲윤성민 국방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제징집의 사례

이들 종교·재야운동단체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강제징집과 군에서 사망(자살사건 사고사건)한 6명 학생들의 근본적인 사인으로 규정한 「녹화사업」이란 무엇인가?

강제징집이란 시위현장에서 체포된 시위단순가담자, 뚜렷한 혐의사실도 없이 문제학생으로 지목당한 학생, 노동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야학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병역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병무청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신체검사 통지서의 20일전 송달 및 입영영장의 30일전 송달)를 무시당한 채 경찰서에서 곧바로 군부대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징집 대상자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시위 단순가담자로 경찰에 연행된 경

우—이것은 시위현장이나 그 주변에서 사복경찰 전경대원 정체불명의 청년들에 의해 관할 경찰서로 연행, 조사과정을 거친 후 곧바로 강제징집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경찰서에서는 협박과 회유 등으로 입대동의서에 날인을 권유한다. 이 자원입대서류에 날인하면 이것을 근거로 당일 또는 수일내로 입영하게 된다. 일단 입영된 후 사후처리는 「지도휴학」이라는 학칙상의 제도를 통해 합법화된다.

84년 4월 12일 기독교교회관 2층강당에서 있었던 NCC인권위원회 10주년 기념예배에서 증언한 황언구씨(79년 연세대 입학)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때(81년 11월 25일 연세대 학내시위 때) 그 학생(군에서 사망한 정성희군)이 사복경찰에 둘러싸여 매를 맞고 있던군요. 저는 키만 크지 몸무게가 별로 안 나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 자리로 뛰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초를 사이에 두고 저희 머리카락은 누군가의 손에 잡히고 또 팔도 잡히고 몇초후 자가용이란 데 태워졌습니다.

생전 처음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밤 12시까지 조사를 하면서 빵 하나 주지 않았습디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데 한 형사가 무릎을 계속 밟으면서, 「이 자식이 너 적극적으로 데모에 관련했지」라고 다그쳐 「아닙니다. 했다고 해도 상관없습디다만 실제로는 안했습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치장으로 보내더군요.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혼방되고 15명이 남아 28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경 15명이 나타나 저희 15명을 하나씩 끼고서

담당차에 태웠습니다. 그 안에서 「군대 가서 고생을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문제학생으로 지목되면 강제징집

▲사찰기관에 의해 문제학생으로 지목되는 경우—강제징집이 학생운동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다.

각 대학 관할경찰서, 정보기관 등이 작성한 문제학생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학기중이나 방학기간중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연행되어 군에 입대된다는 것. 이때 강제징집 대상에 오른 학생은 이른 새벽 혹은 밤늦은 시간에 집에서 경찰의 기습적 「방문」을 받고 연행되어 학생활동중에 관한 조사를 받은 후 직권휴학과 더불어 경찰서에서 군에 바로 강제 입대된다. 수색영장도 없이 해당 학생의 집을 살살이 뒤져 노트 일기장 연습장 등의 메모나 낙서 등을 가지고 「유인물 초안이다」 「시위의 주동을 계획했다」 등등의 혐의를 석위 구속시키지 않는 대신 군에 입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근영씨(서울대 80학번)의 얘기를 들어보자.

「83년 봄학기부터 학내에는 강제 징집자 명단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주로 지하서를 회장과 시위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로 인문대 11명 사회대 10명으로 알려졌는데, 그해 여름방학중인 8월경 내무부장관이 각 대학에 명단을 내려 보내고 「데모를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으라. 각서를 안 받으면 군대 보내겠다」는 요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문제에 대해 인문대 사회대에서는 교수회의가 열려 인문대 찬반동수, 사회대 반대로 부결되면서 그 명단

이 학생들에게 흘러 나왔다.

당시 대상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다. 나는 10일쯤 지나 춘천 집에 잠시 들렀다가 자고 있는데 새벽에 춘천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들이닥쳐 연행되었다. 8월 18일경이었다. 관악경찰서에서 지도휴학당하겠느냐, 자의로 휴학을 하겠느냐, 양자 선택을 요구해 자의휴학을 선택, 동대문경찰서로 갔더니 나와 같은 경우인 다른 대학생 20여명이 먼저 와 있었다. 그 길로 바로 춘천에 있는 한 보충대로 끌려갔다」

▲학생대표로서 일한 것이 문제되어 지도휴학된 경우—학도호국단 간부, 과대표, 혹은 학내행사·준비위원으로 학생들의 의사를 성실히 대변하려 한 것이 경찰이나 학교당국의 자숙요구와 마찰을 빚어 지도휴학된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행사도중, 혹은 행사 이후에 연행 조사받으며 그뒤 교수의 권유형식으로 휴학을 하고 군에 입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위 주동학생이 강제징집 당하는 경우—83년 2학기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었는데, 시위 주동학생들을 구속 대신 강제징집시킨 것이다. 이는 80년 5·17이후 연이은 시위-구속으로 수감 학생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과 이로 인해 정부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악화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념서클에 관련되었다든가 야학교사로 일했다는 이유로 지도휴학된 경우—1981년초 서울대 운동권학생들을 대량 검거한 소위 「무림사건」이후 학내외의 서클 및 야학 심지어는 교회대학생부의 수련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 강제징집된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경찰에 불법 연행되어 수사를 거친 후 학교의 지도휴학 조치와 더불어 곧장 경찰서에서 군에 입대하게 된다. 현재 출판업에 종사하는 H씨(81년 당시 서울대 2년생)가 대표적인 예.

H씨는 81년 1월 무림사건관련으로 남산 밑 시경대공분실에 끌려가 10일동안 조사를 받고 「군대안가면 자르겠다」고 협박하여 할 수 없이 승낙, 군대가는 조건으로 조사를 끝내고 관악서로 이첩되었다. 거기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강제징집당했다. 그해 2월4일 통합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신체검사를 했는데 5.2디옴터로 눈이 몹시 나뻐나 「의사가 좀 쉬고 오라며 눈을 좋게」 해주었다. 3디옴터로 허위제한 것. 그때 H군은 형 결혼식도 있고 아버님 생신도 있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가족과 면회만 하고 2월18일 입대하게 된다. H군의 진술에 의하면 관악경찰서 형사가 「군에 입대하기 위하여 휴학을 원합니다」라는 휴학원에 H군 도장을 파와서 자기가 찍었다는 것.

그외에 ▲교내 유인물, 스티커사건 등에 관련된 경우, ▲불심검문에 걸려 경찰에 연행, 조사를 받은 후 강제징집되는 경우, ▲학내 활동과 관련 유기 및 무기정학 등으로 처벌할 대상자들을 처벌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교수와 경찰이 종용하여 자진휴학 형식으로 군입대시킨 경우 등이 있다. 마지막 경우는 반드시 강제징집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일종의 지도휴학 범주에 속한다.

신체 결함자도 징집

정상적으로 학적 변동이 되어 군에 입대하는 학생들의 경우와는 달리 「특수학

적변동자」로 강제징집된 학생들의 경우 주목해야 할 사실은, 신체상 결격사유가 있거나 가정환경상 정상적인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입대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강제입대시킨 점이다. 앞서 학내시위와 관련 강제징집된 황언구씨는 시력이 나빠 방위대상자였는데 현역으로 입영되었다. 따라서 병역수첩에는 방위편성대상자로 되어 있고 복무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제대중에는 3년동안 현역으로 군대에서 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보충대에서 신체검사하는 중에 나타난 것인데, 저희들(강제징집된 15명의 연세대생)중에는 골수염수술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걸로 말짱해 보이지만,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군요. 군의관들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된다고 한 것이 7명이었습니다. 15명중에는 3대독자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안된다고 평가를 내렸는데도 군의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더니만, 「안된다 애들은 군대에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체정상(83학번 고려대 경제학과) 83년 4월15일 교내시위 단순가담과 관련 징집. 신체검사 당시 체중이 징집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이 체중을 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기재. 2대 독자로 보충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전방에서 근무하다 6개월후 의가사 제대.

▲최창환(81학번 고려대 경제학과) 석탑 축제시위와 관련 83년 5월 징집. 홀어머니(당시 51세)의 외아들로 징집 면제대상자였는데, 현역으로 입영. 84년 2월23일 의가사제대.

▲이정록(83학번 고려대 경제학과) 83년

5월26일 가두시위 단순가담으로 징집. 중학교까지만 해도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소아마비자였음. 5월26일 강제징집 당시에도 육안으로 구별될 정도의 이상이 있었음.

▲이재현(80학번 고려대 철학과) 83년 9월26일 교내유인물 배포혐의로 징집. 83년 4월 신체검사시 시력과 축동증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강제로 병무청 직원이 가지고 온 영장에 지장을 찍게 하고 입대시킴.

▲이정철(83학번 고려대 사학과) 83년 11월2일 교내시위 단순가담과 관련 징집. 65년생으로 강제징집 당시 병역법상 연령미달(징집적령은 19세인데 18세였음)

▲최경식(81학번 성균관대 국문학과) 83년 3월30일 문제학생으로 지목되어 징집. 당시 키 153cm 몸무게 43kg으로 신체조건상 군에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집되었으나, 군대내에서의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아 경찰서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며칠동안 연금상태로 두었다가 다시 군에 입대시켜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거쳐 현역으로 입대시킴.

이외에도 간질환자, 간염환자 및 평발 신장초과 등으로 현역입영대상자로는 보기 어려운 학생들이 강제 징집된 경우도 있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는 84년 5월2일자로 「대학생 강제징집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국방부 장관앞으로 발송. 연령미달자, 신체상 부적격자, 보충역대상자들이 병역법상의 절차와 기준이 무시된 채 강제징집된 사실 여부와 법적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회신공문을 발송, 「...다만, 본인이 군입대를 희망하거나 학교 및 연수과정에서 제적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징집연기 사유가 소멸되므로 병역법 제19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부과는 오로지 법정절차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라고만 대답했다.

「녹화사업」이란 무엇인가

결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강제징집자에 대한 조기입영조치의 합법성은 「제적이나 휴학처분」의 경우에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여기에서 언급된 휴학처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이 이른바 말쑥했던 「지도휴학제」이다. 80년대초 서울의 주요 대학의 학칙을 조사해보면 내용은 다소 상이하지만 모두 지도휴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79년 10월 서울대에서

개일 먼저 학칙에 신설하였고, 그후 각 대학이 공통적으로 학칙에 삽입하였는데, 문교부의 지시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조항은 대부분 학생본인의 의사나 객관적 판단기준 없이 총장이 직권으로 직접 휴학을 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위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감동적인 명문으로 정평이 나있는 유시민씨(80년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 의장)의 항소이유서에 주목할만한 기록이 있다.

「...제대를 불과 두 달 앞둔 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사업」 또는 「관제프락치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數百 특번자(특수학적변동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대에 대한 공포감을 이겨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사람들에게는 별거송이산을 푸른 나무로 채우려는 산림청의 사업정도쯤으로 이해될법한 「녹화사업」이란 용어는 여러 당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학생운동에 대한 정보입수와 탄압을 위한 수사기관의 순화 및 공작사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특수학적변동자」로 처리돼 강제 징집된 학생들은 대부분 최전방에 배치돼 순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군보안대는 반체제 반정부

의식에 물든 이들 운동권학생들을 일단 「최경 용공분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붉은 색깔에 가까운 의식을 푸르게 녹화시킨다」는 것이 소위 「녹화사업」의 「기본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국군보안사령부는 82년경부터 녹화사업을 전담하는 특별 심사과를 신설, 순화사업과 프락치 공작사업을 병행토록 했으며, 이 목적을 위해 정규대학 출신의 중위급 단기장교를 선발, 특수학적변동자들이 복무하던 전방 일부 사단에 배치, 녹화사업을 담당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화사업의 내용은 가정배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초중고 대학생활까지 전과정을 상세히 쓰게 할 뿐 아니라, 대학서클에서의 의식화과정 세미나 내용 자신이 읽은 소위 이념서적의 내용요약 등 방대한 분량의 자술서를 쓰게 하는 것이 첫 작업이었다. 일종의 의식상태를 심사하는 작업인 것이다. 81년 강제징집되어 녹화사업 대상자였던 H씨(28세 출판사원)의 말을 빌면 「뇌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은 모조리 다 털어 놓아야 자술서 쓰는 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 및 과천의 보안사 본실 및 각 지역 보안대에서는 이들 특수학적변동자들을 재심사(A급은 서울 B급은 지역보안부대에서 실시)하여 순화작업에 들어간다는 것.

관제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

순화작업은 국가관이나 특별주제에 관한 글을 쓰게 하거나, 남북 분단현실에서 반공의식 강화의 필요성과 사회안정의 중요성을 역설, 정부나 체제에 비판적인 의식을 안보논리에 입각한 체제공정적 의식

으로 개조해 나간다. 이때 대부분의 특별자들은 순화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쓸 뿐 아니라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비판의식을 무너뜨려 가치관의 혼란과 자신에 대한 모멸감에 빠지기도 한다.

「오로지 살아 남아야만 한다는 판단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가치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2년에 강제징집되었던 K씨(27세·회사원)의 이야기다.

강제징집 학생들은 짧으면 보름, 길면 두달까지 이러한 순화를 위한 재심사를 받는다. 일단 순화되었다고 판단되면 반성문과 서약서를 쓰게 된다고 한다. 반성문은 대개 자신의 대학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서약서는 보다 구체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일체 입밖에 내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하게 되면 군기법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며, 사후 보안사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에서 눈 딱 감고 지장을 찍어 버렸다」는 한 증언자가 회상한 서약서 내용요지

이다.

그러나 이들 앞에는 이보다도 훨씬 힘든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순화」된 학생에게 관제프락치 임무를 부여하여 정보수집에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휴가형식으로 사회에 나와 재학시 활동하였던 서클 선후배를 만나 활동상황 학원전반의 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집된 학생들은 군대라는 조직사회속에서 협박과 회유, 고문 등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공포와 친구들을 배신해야 한다는 양심의 갈등으로 매일매일을 보내야 한다. 구체적인 체험을 들어보자.

현재 노동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C씨(27세)는 82년 9월20일경 밤늦게 집에 들어와 막 잠자리에 든 순간 들이닥친 K경찰서소속 형사 2명에 의해 연행된다. 이때부터 그의 운명은 강제징집-녹화사업의 「덧」에 걸리게 된다.

잠자리에서 연행된 C씨

그는 당시 S대 3학년으로 공개서클의 틀을 맡아 학내주요 공식집회의 실무를 맡아왔다. 82년 여름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사건으로 국내에서는 일본을 성토했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대학가에서는 민족 자주성을 각성시킨다는 의미에서 2학기 시위의 주요 이슈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서울시내 각 대학들은 9월25일을 D데이로 설정, 광화문시위를 결의했고, S대의 경우 C씨가 여러 학내 공개 서클의 장들과 함께 제책을 짜는 등 실무를 맡았던 것이다.

C씨가 특별히 경찰 정보요원들로부터 주시당했던 것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학내 집회를 알리는 공고를 주로 C씨가 썼는데 필체가 파악되었던 모양이다. 각종 공개집회에서도 C씨가 기록을 담당했던만큼 정보요원들의 눈에 쉽게 띄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연행 즉시 K경찰서 2층 취조실에 내팽개쳐졌다. 2, 3평 되는 방에는 매트리스와 책상 하나뿐이었다. 「다 알고 있어. 어떻게 결의문이 나왔지?」라는 질문과 함께 형사는 C씨의 몸수색을 시작, 광화문시위 준비내용이 촘촘히 적혀진 메모용지를 발견했다. C씨는 그때 속으로 「끝장났구나」 생각하며 굉장히 당황했다고 한다.

「누구랑 모의했지?」

그는 동료들의 이름을 들먹일 수밖에 없었다. 거명된 동료들은 이내 경찰서로 연행되고 이어 눈을 붙일 틈도 없이 분리심문에 들어갔다.

「배후조정선이 있으니 대!」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의논한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 따귀를 맞고 엎드려 뺨치자 새로 몽둥이세례를 받았다. 그후 전투경찰 1명이 지하실로 끌고가 이단 열차기로 차고, 쓰러지면 짓이겨 버리는 등 실신할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

「크게 소리내어 울기도 했고 복부에 맞

으면 속이 뒤틀려 호흡하기도 힘들었어요. 30분정도 실컷 맞고 난 후 할 수 없이 굴복하고 말았어요. 이야기하겠다고」 그러자 담당형사가 들어와 식당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쇠고기요리를 먹었다고 한다. 조사가 끝난 후 그는 잡혀온 다른 동료들과 함께 큰 방으로 옮겨져 비교적 승통을 트고 생활하다가 어느날 아침 모두 호출되어 불러간 자리에서 입대권유를 받는다. 시위에비음모죄로 구속될 것이냐, 군대에 갔다 올 것이냐 양자택일 하라는 것. C씨는 징집영장에 지장을 찍었다. 그 다음날 아침 C씨와 동료친구들은 경찰서에서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춘천부근의 000보충대에 입대, 군생활을 시작했다.

「이 정도 고문은 약과야」

사단에 배치되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C씨는 훈련 4주가 지난 어느날 아침 「명찰을 단 A급 군복 상태에서 대기하라」는 대대장의 지시를 받았다. 대대장과 함께 짚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화천읍내에 소재한 사단보안대. C씨는 사단보안대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보안대 짚차에 갈아타야 했고 그 짚차는 경춘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C씨는 서울 종로에서 내려 사복차림의 사단보안대 중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S동 어느 양옥 대문앞에 도착했다. 사단보안대 중사는 C씨를 인계한 후 돌아가버리고 보안사분실 기간병 1명이 나타나 C씨를 데리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복도에 세운 채 마구 구타, C씨는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다.

C씨는 사무실로 끌려가 위관급 장교와 대면, 교향 본적 가정 학교 생활 등에 대한 형식적인 심문을 받은 후 어느 서클 어느 교회에서 활동했는지 질문받는다. 서클 이름을 대지 않고 얼버무리자 불호령이 떨어졌다.

「바른 말 안해? 정신차려야겠군. 취조실로 데리고 가」

취조실은 방음장치가 되어 있었으며, 양변기 침대 책상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높은 창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다고 한다. C씨는 군복을 벗기우고 계급장도 명찰도 없는 군복으로 갈아입혀졌다.

「이 자리는 80년도 XXX가 죽도록 고생했던 자리다. 여기가 어딘줄 아나?」

C씨는 취조시작 무렵 오갔던 대화를 상당히 정확하게 기억했다. 그 순간은 도저히 잊을 수 없다는 것. 저녁식사후 취조요원 2명이 들어와서 본격부터 다시 묻기 시작, 지하서클 및 야학과의 관계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다. 취조요원들은 C씨가 서클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계속 물고 늘어졌고 C씨는 자신이 은밀히 관여했던 지하서클만은 보호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완강히 거부했다. 엎드려 뺨쳐 자세에서 계속 몽둥이질질을 가해도 C씨가 계속 거부하자 다른 사람들을 호출, 4, 5명이 몽

둥이를 들고 나타났다.

「1초내로 옷벗어」

C씨는 짹짹 옷을 벗었다. 그러나 펜츠만은 벗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자 「다 벗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알몸이 된 C씨는 L자 형태로 눕힌채 다리를 올리웠고, 취조 요원들은 발바닥을 때기 시작했다. 그는 그 아픔은 견딜만했으나 옆방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공포심이 더했다고 한다. 계속 지하서클에 대해 모른다고 하자 취조담당요원은 「이 정도는 약과다. 지하실에 내려가 전기고문을 받으면 고생할 것 다하고 결국 불게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C씨를 일으켜 세우더니 지하서클에 가입한 한 후배의 이름을 대며 「너 알지」라고 기습질문을 했다고 한다.

취조요원이 질문한 그 이름은 한 공개서클의 이름이었는데 마침 후배이름과 일치했다. C씨는 이들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후 C씨는 지하서클에 가입한 날짜, 인맥, 세미나 내용 등을 자포자기 상태에서 소상히 밝히게 된다. 다음날 취조는 다시 시작되었다. 세미나 내용 선후배관계 활동사항 의식화내용 등을 모조리 쓰기 시작, 4일 동안을 꼬박 쓰고 고치는 작업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야학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부인, 더 이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일단 조사작업이 끝나자 고위급 간부가 와서 「앞으로 국가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라」고 훈시한 후, 순화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6일째 되던 날이었다.

「너는 간첩은 아니지만 간첩과 똑같은 행위를 했다.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봐줄테니 잘 협조하기 바란다」

취조요원은 이렇게 말한 뒤 국가관 통일문제 등에 대해 소견을 쓰게 한 뒤 C씨가 자신들의 논리를 따르도록 유도했다. 위압적인 분위기가기도 하지만 살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C씨는 순화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조사는 끝났으나.....

보안사분실에 들어간 지 2주 후, 「그동안 고생했으니 호형같은 데서 좀 쉬다 가라」는 말을 들은 뒤 지긋지긋했던 보안사분실을 C씨는 떠나게 되었다. 눈이 가린 채 승용차에 합승한 C씨가 끌려간 곳은 서울 종로 4가 세운상가 뒷편에 있는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들어간 집은 사복차림의 일반기간병 1명이 상주할 뿐 어느 가정집과 똑같았다고 한다.

하룻밤을 자고 난 C씨에게는 충격적인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른바 프락치가 되어달라는 것.

「지금까지 반성문도 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학생운동은 일종의 이적행위인데 네 친구들이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너는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정말

그렇다면 증명을 해야 한다. 학생친구들을 만나보라. 그들로부터 학내 동향을 듣고 와서 보고하라. 너는 혼자 나가기 때문에 너의 행동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항상 너를 지킨다. 탈영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너를 믿고 보낸다. 잘하라」

시내로 나온 C씨는 미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버스를 4번 갈아탔다. 맨마지막에 내리고 맨마지막에 타는 행동을 계속 반복, 미행자를 떨쳐 버리려는 것이었다. 그 길로 C씨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군대로 강제징집된지 얼마되지 않아 집에 나타난 자식에 대해 기뻐하면서도 불안의 눈빛을 보내는 가족에게 C씨는 군대에서 근무성적이 좋아 포상휴가를 받았다고 안심시킨 후 하룻밤을 잤다. 「영원히 깨어나기 싫은 잠」에서 깨어난 C씨는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가야했지만 죽어도 가기 싫어 전날 밤에 전화했던 친구 K군을 학교근처 다방에서 만났다.

그는 몇가지 학생활동 계획을 K군으로부터 들은 뒤 경찰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정보 몇가지를 갖고 모 아파트로 돌아가 보고했다. 이날 C씨는 서약서를 쓰고 마침내 귀대하게 된다.

사단보안대에서 2박3일 편하게 지낸 C씨는 소총수로 전방에 배치, 철책근무를 서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C씨는 방공호를 파다가 갑자기 호출명령을 받는다. 83년 9월경이었다. 이상한 예감이 든 C씨는 산을 내려오면서 당혹한 나머지 발을 헛디더 벼랑으로 굴러 떨어졌다. C씨는 그렇게 되기를 속으로 원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머리가 터지고 이마가 찢겨진 C씨는

겨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집에서 5일을 보냈다. 학교에는 한번도 가지 않고 정 답답하면 장경원 등에 가서 배회하기도 했다.

5일후, C씨는 다시 모 아파트에 들어가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그들도 모른더라는 식의 거짓보고를 올렸다. C씨의 표현에 의하면 일종의 태업을 시도했다는 것. 그들은 몹시 신경질을 내며 고향을 질렀지만 C씨는 자신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 보고가 전부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며 호소, 겨우 모면했다고 한다.

특별휴가가 끝날 무렵 C씨는 집에서 귀대신고만 하고 도주하듯 자대로 복귀했다. 그동안 C씨는 자신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대상임을 최대한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그 이후 더 이상 시달림을 받지 않고 그는 제대한다. 83년말부터 유화국면이 되고 군에 강제징집된 6명의 죽음이 대학가와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녹화사업」의 기세가 수그러들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C씨는 다음과 같은 말로 당시의 체험을 정리했다.

「제대 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군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체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 의연히 대처하지 못했

을급치료를 받고 특별휴가를 1주일 받았다. 사단보안대 모 중사는 서울 모 아파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서울가서 연락 하라고 했다. 서울에 도착한 C씨는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연락, 한 다방에서 먼저번에 자신을 취조했던 요원을 만났다. 그 요원은 C씨를 모 아파트로 데리고 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S대 시위요주의 인물인 K, O, Y군을 군에 입대시켜야 되겠는데 그놈들이 미리 알고 도망을 쳐버려 잡을 수 없다. 너의 친구들이니까 무조건 찾아 보고하라」

두번째 프락치 공작

C씨는 서슬이 퍼런 요원의 표정에 주눅이 들어 일단 「알았습니다」고 대답한 후 그곳을 빠져 나왔다. 그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한다. C씨는 지난 7월 첫 정식휴가때 나와, 같은 서클 친구, 선배들을 수소문해보니 지난번 취조때 자신이 이름을 댄 사람들이 이미 수배되어 소위 「도발이」 중인 것을 보고 몹시 괴로와 했는데 또다시 그들의 꼬나붙이 되어 친구들을 배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것.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이 그렇게 저주스럽게 느

는가라는 치절한 패배감과 자신에 대한 혐오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꺾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일념으로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나름대로 성실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었던 일은 치욕적인 나의 경험을 보상해야겠다는 의지를 오히려 불태운 셈입니다」

5.17직후 끌려간 K씨의 경우

K씨(30세, 서점경영)는 80년 5.17 당시 지방 G대학의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언론분과위원장이었다. 5.17 전국계엄령 확대 실시 때 학교에 군이 진입했으나 마침 의부에 있어 연행되지 않았다. 그후 계엄당국의 수배를 받다가 80년 6월30일 전북 부안의 어느 콩나물공장에 근로자로 취직해 있다가 전주 보안대로 잡혀갔다. 사단 소속 보안대 지하실에서 1주일동안 학내 활동에 대한 일체의 조사를 받고 한달동안 현병대의 영창생활을 했다. 하루종일 무릎을 꿇고 생활해야 했으며 보안대로 끌려가 조사를 받을 때는 군화발에 은뭍이 짓이겨져야만 했다.

한달간 조사가 끝난 후 석방되었으나 3일만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8월17일자로 학교에서 제적통지가 왔고 신체검사도 없이 9월4일 강제입대된 것이다. 논산훈련소에서 4주 교육을 받은 K씨는 경기도 연천부근의 한 포병부대에 배속된다. 특수학적병동자로 낙인이 찍힌 그는 데모하고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사들에게 구타당하기도 했으나 잘 견디어나갔다.

그러나, 83년 1월 느닷없이 포대본부에서 휴가증을 끊어줘 나가보니 정문 앞에서 질차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단

보안대에 도착한 K씨는 그곳 조사실에서 녹화사업을 받게 되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낱알이 다 쓰라고 요구, 3일정도 걸려 백여매의 「강제 자서전」을 쓰게 된다.

대학시절부터 특히 상세한 기술을 요구, 생각나는 것은 모두 쏟아놓아야 했다. 대학시절 시위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방화 행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했고, 의식화과정 조직적 연계를 캐물었다. 자술서를 쓰다가 앞뒤 문맥이 틀리거나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발가벗기고 권총으로 위협, 극도의 공포감에 떨어야 했다. 구타, 몽둥이세례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K씨는 상당한 기간동안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써야 했다.

놀라운 일은 K씨가 평소 동료 사병들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이미 상세히 보고되어 있었다. 한번은 K씨가 동료사병들에게 농담조로 「때려잡자 김일성」 구호는 몇십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데 좀 세련된 구호로 바꾸는 것이 어떻까라고 말했던 것이 이미 보고되어 자료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철저히 감시당했던 것이다.

취조방향은 K씨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K씨는 현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한다고 인정하게 된다. 일단 「빨갱이」로 규정된 것이다. 그때부터 K씨는 자기해체과정을 겪어야 했다. 국가관, 민주주의에 대한 K씨의 평소 소신은 깡그리 문지르고 그들의 논리에 따라 「의식을 바꿔나가야」 했다. 월남전의 성격에 대한 평가, 백기완씨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대공계장은 주로 언급했다.

일단 조사가 끝난 후 술자리가 마련되었다. 그 자리에서 K씨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발언을 무심결에 해버려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다. 2달반동안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주로 군내부에서의 발언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중간 중간에 「한민족의 용트림」 「김일성 정치비사」를 읽고 감상문을 쓰게 한 뒤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다시 구타, 권총 위협 등이 계속됐다. 결국 똑같은 책을 7번 읽고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모조리 암기하게 되자 각서를 쓰게 했다. 이제까지 생활을 반성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K씨는 이것을 「자기해체과정」이라고 표현한다.

녹화사업은 인간을 파괴

그후 1달반 정도 지나 보안대에서 한 소령이 와서 보안사에 입사할 것을 권유했다. K씨가 소기의 목적대로 순화된 것으로 판단, 이제는 더 이상 음지에서 생활하지 말고 밝은 양지에 나와 일하자는 것이 요지였다. K씨는 「그것만은 죽어도 못하겠다. 교사를 하고 싶으니 제발 봐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

보안대에서는 그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프락치가 될 것을 요구했다. 「너희 동료들이 어둠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올바르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했다. ▲G대 지하유인물을 가지고 오라. ▲친한 친구들이 어떤 조직에 가입했으며 활동하고 있는지 보고하라. ▲대학의 지하서클 조직계보를 파악해 오라.

「이것을 해야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마지막 부탁이다. 나가서 네 마음대로 활동해도 좋으나 끊임 없이 관찰당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친구를 팔아야 된다는 생각에 K씨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한다. 휴가를 나온 K씨는 고민 끝에 공개유인물을 몇장 입수하고 한 친구와 상의 끝에 이미 공개된 교회 조직의 계보를 파악, 귀대후 보고했다. 보안대에서는 「이것밖에 조사 안해 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시큰둥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다만 1주일에 한번씩 만나 계속 의식상태를 체크해 가곤 했다고 한다.

그후 K씨는 보안사와 계속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다짐을 받고 제대하게 된다. 제대 후 학교에 복학한 K씨는 상당한 기간동안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양심적 고통을 겪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가 85년 학내시위 때부터 다시 학생운동에 나섰

다. 그후 재야운동에 참여, 집시범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녹화사업이란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인간을 파괴해서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녹화사업대상자 중 상당수가 무기력과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피해와 상처를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K씨의 말이다.

83년 강제징집된 6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84년 국회에서 논란이 일자 보안사는 녹화사업을 일단 포기하고 심사과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후로 84년 경부터 강제징집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84년부터 특수학적 변동자들을 공식해체했으나, 입영복무중인 기존 인원과 강제징집된 학생은 아니나 문교부가 이른바 「관심지도 대상자」로 분류한 운동권학생으로서 입대한 사병들에 대한 관리 및 순화업무는 타처로 이관되어 계속되었으며 녹화사업은 한결 완화된 형태의 선도업무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일어난 김용권사망사건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권군도 프락치 강요당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작년 87년 2월20일경, 미군 카츄사부대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권군의 경우도 일종의 「녹화사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군당국과 NCC인권위에서는 자살이나 타살이라는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 NCC의 김상근·김동완 목사와 류태선간사가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구류를 살게

된 이 사건은 유가족의 「타살됐다」는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군 군의관의 시체부검결과 자살로 인한 질식사로 결론이 났다.

군부대에서 제시한 자료로는 김군이 정신병 경력이 있고 병을 비판해 자살했다고 하나, 가족측에서는 김군이 인척인 보안대 추봉엽상사에게 고문당했다고 진술, 사인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군의 경우 자진입대했지만 운동권학생으로지목,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김용권상병 의문사건」에 대한 조승형 김상철 변호사의 1차조사보고서 중 군보안대와 관련된 부분이다.

▲조사결과

네째, 김군은 86년 8월3일 포천군 소재 8사단 보안부대 행정계장 추봉엽상사의 요청으로 위 보안부대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추상사로부터 군복을 벗고 서울대로 돌아가 프락치 노릇을 하면 충분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아울러 민민투 83학번 수배자의 소재를 대달라는 제의와 강요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탓으로 보안대근무자로부터 사정없이 구타당한 사실이 있는 바, 이것과 본전사망과의 사이에 분명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확인사실

네째, 프락치활동권유와 83학번 민민투 관련자 소재수사(가족·친구주장)로 86년 8월8일 14시10분부터 18시30분까지 포천 보안대에 체류하였음.

다섯째, 8월3일 직후 5일경 종로5가 인근 지역으로 김군이 어머니를 불러내어서 추상사로부터 프락치활동을 권유받는 경위를 설명하면서 「추상사에게 어머니가

**윤이병의 양심선언 정당하다,
수배조치 즉각 해제하라!!!**

서울대 운동권 신장내용 '녹화사업' 통해 파악

보안사, 입대학생 물고문·구타 자행

'출처'로 분류...휴가·외박보내 정보수집 강요

속도 - 보안사가 별도 관리해온 서울대 출신 운동권 3백87명의 신장내용은 입대학생들을 보안사로 연행·조사한 '녹화사업'을 통해 파악한 자료인 것으로 9일 밝혀졌다.

특히 보안사는 이 과정에서 입대학생들에게 물고문과 구타 등을 자행했으며, 특별휴가 또는 외박 형식으로 학교에 보내 학내 정보를 수집해 오도록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지난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자료 일부에 인적 사항의 '출처'라고 연필글씨로 적혀 있던 한아무개(당시 기계화사단 군무) 씨 등 당시 서울대생 4명을 추적, 확인한 결과 밝혀졌다.

지난 86-87년에 입대해 한씨 등 4명은 "보안사 서빙고 분실 등으로 강제연행돼 고문을 당하며 수배자의 소재를 찾아내거나 과·서를 동료의 이름과 활동내용

을 대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군 복무 시절 1~3차례 보안사로 불려가 학교활동과 동료들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한씨 등 3명은 1~2차례 특별휴가를 통해 학내 정보수집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한씨에 따르면 지난 86년 4월 수도기계화사단에서 자대보충교육을 받던 중 보안대 수사관 2명에 의해 경기도 파천 추궁아파트에 있는 '안가'로 연행돼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씨는 "86년 9월엔 '구국학생연맹'(구학련) 사건으로 수배된 이광섭(당시 서울대 역사교육3) 씨의 소재를 파악해 오라며 보안사에서 9박10일의 특별휴가를 보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씨는 특히 지난 87년 12월 정기휴가를 받아 대전 집에 머물던 중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잡

자기 연행돼 "이병우(당시 영문4·민변투사건 수배자)씨를 찾아라"며 물고문과 온 몸을 받갯기고 구타하는 고문을 당한 뒤 3일 동안 보안대 수사관 3명과 함께 이씨를 찾아다닌 적도 있다고 폭로했다.

또 인권위원회가 8일 공개한 자료에 이병우(영어교육과 82학번)씨 등 25명에 대한 인적 사항의 '출처'로 기입돼 있는 한아무개(당시 7사단 군무)씨도 지난 87년 1월 서빙고 분실로 연행된 뒤 혹독한 구타와 함께 과 동료·서울 선후배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한씨는 "서빙고 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를 동안은 서울대에 보내 학내 정보와 수배자 온 신처 등을 파악해 오도록 요구받았다"면서 "이 활동이 별 성과가 없자 분실장으로 보이는 소령으로부터 '너는 학교 가서 친구들과 술만 마시고 오라는 협박과

함께 자대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또 인권위 공개자료에 김영환(공법 82)씨 등 16명의 '출처'로 돼 있는 박아무개(당시 25사단 군무)씨는 "지난 88년 2월1일부터 보안사 장지동 분실에 끌려가 5일 동안 대학 의식화 과정, 서울활동, 선배·동료들의 행적 등에 대해 8월지 20여장 분량의 조사를 받았다"면서 "수사관들의 구타와 '남한산성에 보내겠다'는 협박에 못이겨 동료·저를 선후배 등 16명의 운동권 학생 명단을 실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 이재호(정치 83)씨 등 17명의 '출처'로 기록된 박아무개(당시 22사단 군무)씨도 "지난 89년 2월 보안사 장지동 분실로 연행돼 수사관들로부터 구학련 사건으로 구속된 동료들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받았다"고 밝혔다.

한겨레
Po. 10.10



—시위가담학생—

真相! 強制徵集과 「綠化사업」.....

프락치가 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물음.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매우 기분하여, 「추상사 그 지식 야비한 놈, 니를 이용하여 출세하려고 한다」며 비난했다 함. 그후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추상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병원을 출입하는 게 다 추상사 때문입니다」라고 뽀뽀했다.

여섯째 홍태룡(제2공병단 44대대 중대 2소대)의 진술서에 의하면 「용권이 9월 즈음 포천에 친구 면회간디미 나갔는데 며칠 뒤 동료 임창택 병장한테 보안대에 끌려가 7시간동안 발가벗긴 채 맞았다고 애기한 것을 이번 사건후에 들었다」고 함.

일곱째 김군사망 후 허병화(카슈사로 군 무경력자 같음)는 얼마 전에 김군이 「의정부 보안대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처지이다」라고 애기한 적이 있다고 김군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함.

위에서 언급된 사실을 따져보면 김용권 역시 녹화사업이 변형된 일종의 프락치공작 대상자였음을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김군의 모친 박명선씨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생전에 용권이 그러는데 포천보안대에서 추상사가 용권을 다달하자 곁에 섰던 두 장교급 사람들이 뽀뽀를 것 다

뽀뽀했는데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녹화사업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남용, 이 나라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군 자체에 대한 회의를 조장,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운 것 같다. 앞으로 녹화사업의 전체상이 제대로 국민 앞에 공개되고 의문의 죽음을 당한 6명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진상은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문제학생으로 지목되어 강제징집당한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감당키 어려웠던 정신적 육체적 상흔도 회복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혼비 복구대회에 참석했던 고려대 이상신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실사 군에 강제징집된 젊은 대학생들이 자살했다 해도 그것은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영향력 있는 학생들을 분리 이간질시키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처넣었던 것입니다. 학교당국에도 책임이 큼니다. 어린 학생들이 군에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책임회피에 급급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한시대가 저지른 범죄에 적극 가담한 공범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강제징집, 녹화사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강제징집, 녹화사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강제징집, 녹화사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임기운

- 1922. 12. 27 평남 용강군 오신면 석정리에서 부친 립찬 하씨의 4남으로 출생.
- 1951. 중앙신학교 신학과 졸업.
- 1961. 중앙신학교 사회사업과 졸업.
- 1956. 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안수.
- 1965~66 부산기독교 연합회 총무.
- 1971~72 부산 기독교교회 협의회 총무.
- 1979~80 부산신학교 운영이사장.
- 1979~80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연회 부산지방 감리사.
- 1980 7. 19 국군보안사령부 부산분실(속칭 삼일공사)에 연행됨.
- 7. 21 부산 통합병원으로 옮김.
- 7. 26 순교.

[연행동기]

그간 일부에서는 임기운 목사님이 정치인들과 친했으며, 보안사 연행이유도 김대중씨와의 관련여부를 캐묻기 위한 것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부산지역의 여러분과 면담을 해본 결과 연행동기는 다음과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임기운 목사님은 암울한 유신치하인 1975년 2월 16일 침례교와 성결교 등까지 포함하여 범교단적으로 40~50명의 목회자가 조직한 '사회정의구현부산 기독교인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함석헌 선생님, 서남동 목사님, 문동환 목사님 등의 초청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반유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분이셨습니다.

임기운 목사님의 친지인 김광일 변호사님은 5·17직후 김대중 사건 및 부산지역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1차로 많은 민주 인사를 연행, 조사, 구속하였으며 그후 2차적으로 그동안 요시찰 인물로 찍혀있던 인사들에 대하여 그 이전의 활동에 대한 조사 겸 장차의 반체제운동 예방을 위한 일종의 정신교육, 순화교육 차원에서 민주인사들을 연행하였는데, 이때 임기운 목사님도 연행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광주사태에 대한 설교를 하시자, 바로 며칠뒤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협박편지가 제일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우송된 적이 있고, 설교내용으로 담당 형사가 찾아와 전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목사님께서 "나는 정치 잘 하고 있다고 말 못한다"고 응답하시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 목사님의 연행은 이러한 설교

말씀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제재조치였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사망경위]

목사님께서 1980년 7월 19일 국군보안 사령부 부산분실에 참고인으로 불려가신 뒤 3일 만인 21일 통합병원으로 옮겨졌다가 26일 순교하셨습니다. 보안사 안에서의 3일 동안 어떠한 일이 목사님에게 있었는지를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안사 측에서는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고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혈압이 80~150으로 체구에 비해 볼 때 그렇게 높은 편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혈압으로 인한 이상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모님이 목격하신 바에 의하면 뒷머리 왼쪽이 3센치 가량 찢어져 있고 그 곳에 피가 흘러 말라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통칭 삼일공사라 불리는 보안사에 연행되었던 사람들은 그 곳 지하실에서 20대 청년들에 의해 폭행이 흔히 행해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고 임기운 목사님은 보안사 내에서의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돌아가셨거나 설혹 육체적 고통은 당하지 않았더라도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공포분위기에서의 정신적 고문으로 돌아가셨으리라 추정됩니다. 친지들도 고문, 폭행 여부는 당시의 보안대 담당자를 상대로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최소한 자연사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미망인 최광명씨의 글이다.

드리는 글

고 임기운 목사님께서 순교하신지도 어언 햇수로 9년, 만 8년이 되갑니다. 광주의 거가 일어난지 얼마 안되어 빗어진 갑작스런 일들을 다시 회고해 본다는 것은 고통스럽고도 원통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잊혀져 가려는 그날들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안사 부산분실에서 참고인으로 와 달라는 통지서류를 받은 목사님께서 1980년 7월 19일(토) 아침 6시경 집을 나셨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을 초대할 계획도 있고 해서 꼭 돌아오실 줄 믿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시지 못했습니다.

다음날(주일) 주보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설마하니 주일아침에는 일찍 돌아오실 줄만 믿었던 목사님께서 오전 10시가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10시 조금 지나서야 그리던 목사님의 힘없으신 목소리가 전화통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언제오시는 것입니까 물으니 내일이나 보내 줄 것 같다하시며 서둘러 목사님 한 분을 단에 세우라 하시면서 잘 있으니 여기 일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 없으신 그 목소리가 살아 생전 마지막 목소

노동자 강제징집, 제 2의 '녹화사업'

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날(월요일) 12시가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자 저는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1시경이 되자 진화 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모르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기가 임기운 목사님대 입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기가 어디냐 물으니 정식(장남, 한번 들이갔던 곳)이와 함께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정식이와 차를 잡아 타고 달려간 곳이 국군보안사 부산본실이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선 저는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직원 한명이 말하기를 본래 목사님께서 혈압이 높으셨다고 질문을 하기에 혈압은 정상이라 말하고 당신들은 목사님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니 그것은 자기들의 잘못이라 시인하였습니다. 제가 목사님 계신 곳을 어서 빨리 안내하라고 독촉하여 옆 건물인 통합병원으로 인도 받았습니다. 병원문을 들어서니 수술방 유리문을 통해 목사님의 누워계신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미 순환기절제 수술을 하시고 산소호흡으로 연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반경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받으시다가 5일만인 26일 오후 10시 43분 운명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임종 이후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른 지금, 목사님의 뜻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진상을 밝혀내려 애쓰시는 교단의 목회자님과 여러 신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고 임기운 목사님의 처 최광명 올림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한국 의 노동운동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가 어떠한 우리 경제가 어떠한 하고 떠들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으려 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자 89년 들어 새롭게 들고나온 것이 소위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파업 저지방책이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서 복면을 한 채 흉기를 들고 노동자의 목을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방위산업체 병역 특례복무자 강제징집' 책동이다.

여기서 병역특례제라는 것은 방위산업체에서 5년간 근무함으로써 군복무를 면제받는 제도를 가리킨다. 그런데 특례기간은 신체검사를 받고 특례서류를 제출해 병무청에서 특례복무자로 인정을 받을때부터 시작되므로 실제로 특례복무를 마칠 때까지는 적어도 입사후 5~6년이 소요된다. 거기다 특례복무가 군복무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되므로 회사측은 특례자에 대해 비인격적인 대우와 저임금·잔업·특근 등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노동력을 착취해 왔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10명), 안강 풍산금속(9명), 창원 (주)통일(6명)에서 특례복무기간 중에 회사측에 의해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해 89년 1·2·3월부로 징집영장이 발부됐다.

그동안 관할 광주·전주·부산·춘천 병무청은 87년 11월 (주)통일에서 해고된 특례자에 대해 지금까지 징집을 연기해왔다. 그러던중 돌연 올해 초에 병역법 97조의 "1년이상 연기 불가능"이라는 조항을 내세워 징집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그런데 병역법 97조는 병역특례제와 무관한 조항으로 일반인이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으로 입대를 연기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을 특례

복무중의 해고노동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주)통일의 해고자들은 행정착오로 그간 징집이 연기된 것"이라며 삼성과 풍산 해고자의 경우 연기마저 시켜주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해고자를 관할하는 네 지역의 병무청이 동시에 똑같은 행정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인가? 더욱이 풍산금속의 한 특례복무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기도 전에 징집영장이 날아들기까지 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1월 11일 지방법원에 회사측의 부당해고에 대해 해고무효소송을 제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조합법 3조 4항은 "해고의 효력을 다 두고 있는 자는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해고자들에 대한 징집은 최종확정판결시까지 당연히 연기돼야 한다. 아울러 우리가 승소할때, 회사측의 해고처분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해고기간의 임금을 100%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병역법 74조 2호의 '유급휴직제의' 조항에 의거, 해고기간이 특례복무기간에 가산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입대할 경우 특례중복무기간은 하나도 인정되지 않고 30개월의 군복무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엄청난 모순이 존재한다. 또 우리가 병무청의 요구대로 입대한 후 법적 승소판결이 있을 때 우리가 즉시 회사에 복직할 수 있는 법적 보장도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방위산업체 특례복무자는 어떤 이유로든 회사측에 의해 해고되지만 하면 입대해야 한다는 부당한 병역법의 개폐를 위해서도 우리는 입대할 수 없다.

해고노동자 중에는 특례복무 5년만기 중, 3일을 남겨둔 채 해고된 사람도 있다. 과연 인간의 탈을 쓰고 특례기간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사람을 해고시켜 군대에 보낼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속아 살면서 열심히 일해왔고 일한 만큼 대우해 달라는데 그 대가가 바로 이것이란 말인가?

결국, 이같은 강제징집은 그동안 한국노동운동의 선봉에서 서서 싸워온 방위산업체 병역특례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운동탄압책동이다. 80년대 초에 대학생들에게 자행됐던 강제징집·녹화사업은 고귀한 애국학생들의 목숨을 빼앗은 채 아직까지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화를 정착시켰다면 6공화국 정권은 이제 병역의무를 병자한 노동운동탄압-제2의 녹화사업으로 우리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현재 우리 강제징집대상자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이러한 부당한 처사의 철폐를 요구하며 1백21일째 농성하고 있다. 지난 3월 7일 우리 농성 해고자 중 4명이 지하철 무임승차투쟁 홍보 작업을 나갔다가 강제연행됐다. 이들은 강제입영을 강요 받았지만, 끝까지 이를 거부하자 경찰은 이들을 병역기피라는 명목으로 구속하여 현재 내남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나갈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방위산업체에서의 노동쟁의를 전면 허용하라.
2. 해고무효확인소송 제류중인 해고자의 징집을 최종확정판결시까지 연기하라.
3. 방위산업체 해고자의 군복무기간에 특례복무기간이 적정비례제로 가산되도록 병역법을 개정하라.

삼성중공업·풍산금속·(주)통일 강제징집 대상자 일동.

해고되면 곧바로 양장나서

노동통제 수단으로 병역특례 악용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에 근무하는 병역특례 노동자가 일단 해고만 되면 법적 구제신청과 상관없이 입영영장이 발부되고 심지어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된 특례자에게 병역법에 의한 사법조치가 취해져, '법의 사각지대'에 처한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시급하다. '풍산금속 토초' '한강지부' '초합원 권영국(28)의 4명의 특례자가 입영영장 취소소송이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8, 9월에 입영영장이 발부되고 특례기간 중인 89년 1월 해고된 뒤 90년 6월 15일 복직판결로 노조 회계 감사로 일하던 백인건(22)씨가 22일 경찰에 강제연행, 병역법에 의해 경찰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처리된 일이 발생해 노조활동 봉쇄와 보복조치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병역특례제도는 방위산업 및 기간산업 등의 발전이란 명분으로 기업주에게 병역지원 일부를 양도한 제도이자 노동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란 주장

속에, 회사측은 이를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유력한 무기로 사용해 왔다.

5년 특례기간 동안은 이직을 할 경우 2주내에 다른 방산업체에 취업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더우기 특례대상자들을 근무평점이나 조합활동 등 이유로 특례병에 편성시키지 않는 사례조차 있어 악용의 우려를 낳게하는 제도라는 것이 특례 당사자들 주장이다. 특히 해고되면 즉시 입영영장이 발부되는 현실이고 보면 특례자에 대한 대응은 시급하다.

85년 대우자동차 임금투쟁에서 해고된 노동자 중에 특례자가 있어 회사측 저의를 의심하게 된 후 대공장이나 노조활동이 활발한 공장의 특례병 문제는 독점자본의 노동통제 수단임이 최근의 풍산금속 현대중공업 삼성조선 등의 사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특례자를 해고시킨 후 군입대를 유도

하는 것은 명백한 강제 징집이며 제도를 악용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89년 2월 풍산금속 통일산업 삼성조선의 특례자들이 '사용주와 야합한 노조탄압'이라 규정, 강제징집 철회 농성을 한국노총에서 벌인 후 입영거부를 결의해 특례 파문이 일어났다. 특례자들의 징집거부로 강제징집을 통한 노조탄압은 줄었지만 현행 병역법에 저촉돼 불이익을 당한 특례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방산업체는 특례자를 해고시킨 후 병무청에 특례해제를 통보하기만 하면 병무청은 즉각 영장을 발부해 '해고효력'을 다루고 있는 자는 근로자임을 규정한 노동조합법과 배치되어 있다. 88년까지 소송 계류중인 특례자는 영장이 연기되던 판례마저 '행정상 어려움'을 빌미로 개져 '병무청과 회사의 야합'에 의한 강제징집이란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특례자들은 회사측의 일방적 해고로 특례가 해제된 것이기

에 해고의 부당함을 사법부에 제기한 상태로 노동조합법 제3조 4항에 의거 조합원 신분임으로 입영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근무기간이 군복무기간에 전혀 산입되지 않고 입영하고 나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으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특례자의 주장에 법원과 병무청은 회사별로 또는 당시의 정세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과 집행을 해 당사자로부터 의혹을 더욱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조성익 이봉수씨는 병역법상 입영기피로 경찰에 연행됐으나 소송계류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고 삼성중공업은 영장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했으나 풍산 통일산업은 병역법에 의해 구속되고 입영영장이 발부된 상태.

이러한 것은 노동조합측의 역량이나 회사측 노무관리에도 영향이 있으나 특례자에 대한 애매한 관계법과 야합에 의한 부당조치라고 당사자들은 지적한다. 법적 형평과 제도적 보장을 위해 89년 풍산 통일 삼성의 특례자와 금속연맹(위원장 박인상)이 공동으로 병역법 개정

운동을 벌여 개정요구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당시의 개정내용은 해고쟁의 소송 기간 중 입대 불가와 특례해제 경우 근무기간에 비례한 복무단축이 골자였으며 취지는 헌법상의 노동3권 정신의 위배와 특례보충역제도가 노동권을 억압하는 부분을 개선하는 취지였다.

이의 부결에 이어 특례당사자들은 법적 규제가 전무한 상태에서 본래 입법에 위배되는 실행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특례자들은 궁극적으로는 병역관계가 개선되고 관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단위노조별 해고자 미 특례자에 대한 대응도 주목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즉, 단체협약 조항에 특례자 해고제한을 삽입한다면 특례자들 조직을 결성, 부당한 처사를 막는 구조와 전국 차원의 공동 대응이 시급함을 역설한다. 대우정밀은 투쟁력을 기초로 전원 복직을 확보하고 삼성도 동일한 결정을 주목한다는 지적이다.

수만명에 달하는 특례자가 독점 대기업에 산재한 현실에서 특례를 이유로 권리가 제약되거나 보복적 조치가 비일비재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대응

할 노력이 절실하다고 관계자들은 역설한다.

<포항지국 추연만 기자>
노동자신문 90.9.28

복직판결 불구 병역기피로

구속영장 청구

끓이져 앓는 정치테러

— 그 배후는? —

자료4

우리마당 피습사건

박창신신부 사건

박형규목사 사건

「우리 마당」테러, 情報司소행인가

「중앙경제신문」 사회부장 吳弘根씨(46) 테러사건이 발생한 지 11일 후인 지난 8월 17일 새벽 4시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4-77 재야문화운동단체 「우리마당」에 귀한 4명이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침입, 바닥에서 잠자고 있던 朴正元군(22, 연대 수학과 4년)을 각목으로 때려 실신시킨 뒤 蔡모양(22, E여대 졸)을 폭행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우리 마당」이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상대로 탈춤 연극 풍물놀이 등 전통문화를 전수하는 단체로 강도들의 범행대상으로는 부적합하며, 24세 가량의 머리를 짧게 깎은 괴한들이 지휘자인듯한 1명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고, 사무실 안의 서류와 유인물을 뒤지다 무비카메라 1대와 삼각대(일제 캐논·시가 14만원 상당)만 가져갔을 뿐 녹음기 등은 그대로 둔 점 등으로 미루어 단순한 강도범의 소행으로 보기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게 현장 초동수사의 결론이었다.

그러나 사건 직후의 수사 방향은 엉뚱했다. 주변 불량배와 동일수법 전과

자 등 우범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만 초점을 맞추고 특정 목적의 조직적 범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초동수사 단계서부터 배제하는 듯 했다.

그후 사건발생 한 달이 넘도록 수사는 원점에서 맴돌았다. 올림픽이라는 큰 이벤트에 가려져 「우리 마당」피습사건은 점차 잊혀져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26일 자신을 뒤통자 테러사건의 제보자라고 밝힌 사람이 「우리 마당」피습사건도 오부장 테러사건과 마찬가지로 특수조직의 치밀한 사전 계획에 의해 저질러진 테러였다」는 제보가 언론계와 정당 등에 들어왔다.

평민당 李相洙대변인은 9월 30일 평민당에 제보해온 내용을 공개했다. 이 제보에 따르면 「우리 마당」사건은 오부장테러사건을 저지른 정보사령부 우이동지대의 군 특수요원의 소행이라는 것. 오부장 테러로 구속된 정보사 우이동지대장 朴哲鏞소령의 휘하에는 2개의 팀(1개팀 10명)이 있는데, 그중 安善鎬대위팀이 8월 6일 오부장사건을 저질렀고, 또 하나의 팀인 朴희실대위팀이 「우리 마당」사건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실행팀은 박대위 휘하의 金학두중사 孫영춘중사 金천연하사 羅철식하사 정모하사 등 하사관 5명으로, 현장지휘는 김종사가, 강간은 손중사가 했으며, 남자를 각목으로 친 것은 정하사가, 나하사는 건물입구를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세세한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범행지시는 정보사 파견 부대장 李撥洪준장(구속중)이 직접 했는데 이준

장은 「강도·강간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여자가 있으면 손대도 좋다」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지시를 할 때 이준장 옆에는 사복을 입은 외부인사 4명이 거들었다고 한다.

평민당의 폭로가 있는 지 몇시간이 지난 뒤 육군본부는 「『우리 마당』사건에 군이 관련했다는 제보는 조사결과, 제보자체가 완전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즉각 발표했다. 육본은 「제보내용을 근거로 정보사 전체 요원에 대한 조사와 73-83년 사이 전역한 부대원들의 신상까지 조사했으나 범행과정에서 중간역할을 했다는 장선규중령, 행동대장 박희실 대위, 김학두·손영춘중사, 김천연 나철식하사는 실존인물이 아니었다」고 발표했다. 또 구속중인 이규홍준장 박철수소령 안선호대위 등도 「우리 마당」사건과는 관련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육군본부의 발표에 대해 평민당측은 「제보자는 필요하다면 직접 모습을 드러내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오부장테러사건도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다 대세에 밀려 사실을 인정했음을 상기시켰다. 평민당 이상수대변인은 제보자의 지위와 신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보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6共과제로 남은 「5共未濟테러」

사건은 평민당과 軍의 「논쟁」으로 비화되었지만 국민들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언론인과 재야문화단체의 테러

배후세력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범인이 잡힌 똥부장테러사건 역시 최근 사법절차(군법회의)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가 철저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정보사가 과연 단독으로 일으킨 범행이나 하는 점이다. 이런 의문은 국회에서도 지적됐지만 정보사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정보사 요원이 행동대원으로 동원될 수는 있으나 그 판단은 다른 군고위층이나 私조직에 의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에 보고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정보사는 「적국 및 가상적국에 대한 첩보수집과 정보임무지원·항공사진의 해석·전술교리 연구 분석 등을 주임무로 하는 특수부대」로 국내 정치나 민간활동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인들이 오부장에게 「대공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한 점, 정보사 차량을 대로변에 뒤편하게 세워놓은 점 등이 이런 가설을 밀받침한다.

또 사건 은폐조작에 있어서 예하부대장인 이규홍준장이 참모장 權起大준장(45)에게 증거를 은폐조작시킬 수 있었던 점도 의문이다. 이준장과 권준장은 지난 1월1일부로 같이 준장에 진급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과연 이준장이 선임자라는 이유만으로 중대사안인 증거은폐지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의혹이다.

이런 오부장 테러사건과 「우리 마당」사건은 「白色 테러」에 대한 국민들

의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지난 80년 군요원으로 보이는 20대 괴한에게 테러를 당해 오른 발을 절고 있는 박昌信신부(47·전주시 중화산동 천주교회 주임)는 「테러의 망령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동안 덮어두었던 사실을 공개하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교회내 문제」 「黨내 문제」라는 이유로 공권력의 방치상태에서 발생한 5공화국시절의 대표적 미제 테러사건인 「朴炯圭목사 사건」 「용팔이」사건 등은 바로 그 내부문제를 겨냥한 집권세력의 「정치 공작」이었다는 의혹이 높아지면서 국회 5공비리특위의 도마대 위에 올랐다.

일반적으로 테러사건은 「사건만 남고 범인은 霧中으로 수사는 迷宮으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 범인이 잡히더라도 그 배후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가장 뒤에 앉아있는 배후인물은 꼬리잡힌 도마뱀처럼 下手人이 찢어져도 살아남는다. 5공화국시절 미제로 남아 6공화국의 과제로 떠넘겨진 「정치 테러」의 실상을 알아본다.

朴昌信 신부 테러사건

약간의 비가 내려 땅바닥엔 발자국이 생길 정도의 축축한 날씨였다. 1980년 6월25일, 그날은 수요일이었다. 전북 익산군 여산면 여산성당 주임신부 박昌信 신부는 구역내 공소가운데 하나인 金馬공소(현재는 금마성당으로 바뀌었으나 당시엔 여산성당 관할)

에서 수요일 미사와 예비자 교리를 마치고 林을영씨(34) 蘇화숙씨(28·여)와 함께 여산성당 사제관으로 돌아왔다. 이때 시간이 밤 10시30분경.

사제관 2층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먼저 아래층으로 내려간 임씨가 현관문의 빗장을 벗기고 20cm 가량 문을 열자 4-5명의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괴한 가운데 한 명이 임씨의 양 어깨를 흉기로 내려친 뒤 복도 끝으로 끌고 갔다. 당시 전북대학생으로 26세의 청년인 임씨는 이 괴한과 뒤엉켜 격투를 벌이다 자신을 때리는 막대가 쇠파이프임을 알았다.

한편 임씨의 비명 소리에 놀라 계단을 내려오던 박신부에게 나머지 괴한들이 덤벼들었다. 쇠파이프로 박신부의 전신을 때리고 예리한 흉기로 팔·다리 등 6군데를 찢른 괴한들은 「일단 후퇴」라는 외침과 함께 도주했다. 이들 테러범이 이때까지 한 말은 오직 「일단 후퇴」라는 이 한마디뿐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2-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임씨는 가벼운 타박상에 그쳤으나 박신부는 왼편 늑골이 부러지고 팔·다리 등에 타박상과 刺傷을 입고 부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다음날 전북대 부속병원으로 이송, 보름간(6월26일-7월11일)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1년쯤 지난 뒤 상처가 재발하면서 하반신이 마비, 전북대병원, 서울 성바오로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8년이 지난 지금도 오른쪽 다리를